

박해순의 삶과 생애

# 인제 멧목과 멧꾼들

글 장정봉 · 이한길



# 인제뗏목과 뗏꾼들

- 박해순의 생애 및 구술사 -

장정룡 · 이한길

2005

인 제 군

## | 차례 |

발간사

I. 머리말 .....	10
II. 인제군의 지리와 기후 .....	12
1. 지리적 배경	12
2. 기후의 특성	14
III. 인제뗏목의 역사 .....	17
1. 뗏목의 역사	17
2. 인제지역 삼림의 최근 역사	21
IV. 인제뗏꾼의 생애 .....	24
1. 뗏꾼 박해순(林海順)	24
2. 적심꾼 방범수(方範守)	30
3. 손천유(孫天有)와 천유송(川流送) 공사	35
4. 매목(賣木)과 김춘봉(金春鳳)	39
5. 심흥규(沈興奎)와 김종식(金宗植)	40
6. 손용인(孫龍仁)과 뗏꾼들	42
V. 인제뗏목 제작과정 .....	49
1. 목상	49
2. 벌목(伐木)	51
1) 산신제	52
2) 벌목	53
3) 벌목의 도구	55
4) 표지(標識)	57
3. 운목	57
1) 통길을 이용하는 방법	57
2) 소를 이용하는 방법	59
3) 목도를 이용하는 방법	60
4. 적심	62
1) 적심꾼	62
2) 복(服)지기	64
5. 뗏목 만들기	65
6. 벌류(筏流)	69

1) 강치성	69
2) 별류	71
3) 여울	72
4) 주막	76
7. 귀환	78
<b>VI. 인제 뗏목아리랑과 민속예술 자료</b>	79
1. 인제 뗏목아리랑	79
1) 박해순의 뗏목아리랑	79
2) 손용인의 뗏목아리랑	80
3) 김계근, 임일남, 박해순의 뗏목아리랑	81
4) 박춘매의 떼타는소리	83
2. 인제 뗏목놀이	83
3. 인제 뗏목꾼 소리	85
4. 인제뗏목 재현	88
5. 강원도 뗏목 소리	92
1) 인제의 뗏목 소리	92
2) 춘천의 뗏목 소리	95
3) 화천의 뗏목 소리	97
4) 정선의 뗏목 소리	98
5) 영월의 뗏목 소리	101
6) 한강원가(漢江怨歌)	102
<b>VII. 뗏음말</b>	104
<b>[사진자료]</b>	106
* 벌목에서 뗏목까지의 과정	106
* 인제뗏목놀이 재연 화보	115
* 기타	119
<b>[생애사 구술자료]</b>	120
<b>[참고문헌]</b>	146

## | 발 간 사 |

우리 인제군은 강원도의 정중앙에 위치한 군으로서 예로부터 울창한 삼림을 자랑하여 왔다. 울창한 삼림 덕분에 다양한 임업이 발달하였는데, 대표적인 임업으로 산판, 숯, 목공예, 뗏목, 나물 채취, 산삼, 약용식물 재배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것이 바로 조선시대부터 황장목으로 이름난 아름드리 재목이었다. 이 재목을 인제군에서 벌목을 하여 인제군을 관통하여 흐르는 내린천과 인북천을 통하여 서울·경기지역으로 운반하였다. 내린천과 인북천이 만나는 합강리 합수머리는 바로 소양강의 발원지로서 이 물이 흘러 춘천을 거쳐 북한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 물과 함께 인제군의 경제와 문화가 발달하였다.

합강리 합수머리는 봄부터 가을까지 사람들로 붐볐는데, 이곳에서 아름드리 재목을 엮어 뗏목을 만들어 소양강으로 띄워 보냈다. 소양강 변에는 수많은 여울이 있어서 뗏목꾼들의 생명을 위협도 했지만 그들은 불굴의 삶의 의지로써 이를 극복하였다. 뗏목에는 우리 조상들이 삶을 헤쳐나간 정신이 그렇게 담겨 있었다.

그러나 1943년 청평에 댐이 건설된 이후로 뗏목을 통하여 서울로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막혀 버리고, 춘천까지 운반되는 뗏목 또한 38선이 그어지자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왜냐하면 38선이 인제군을 가로질러 그어졌기 때문이었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인제군은 완전히 수복되었지만, 이미 사라져버린 뗏목문화를 다시금 되돌리 수는 없었다.

인제군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사라져버린 우리의 고유 민속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그 성과로 『인제뗏목』이 발간되었는데, 이 책에서 뗏목을 만들었던 방법을 자세히 고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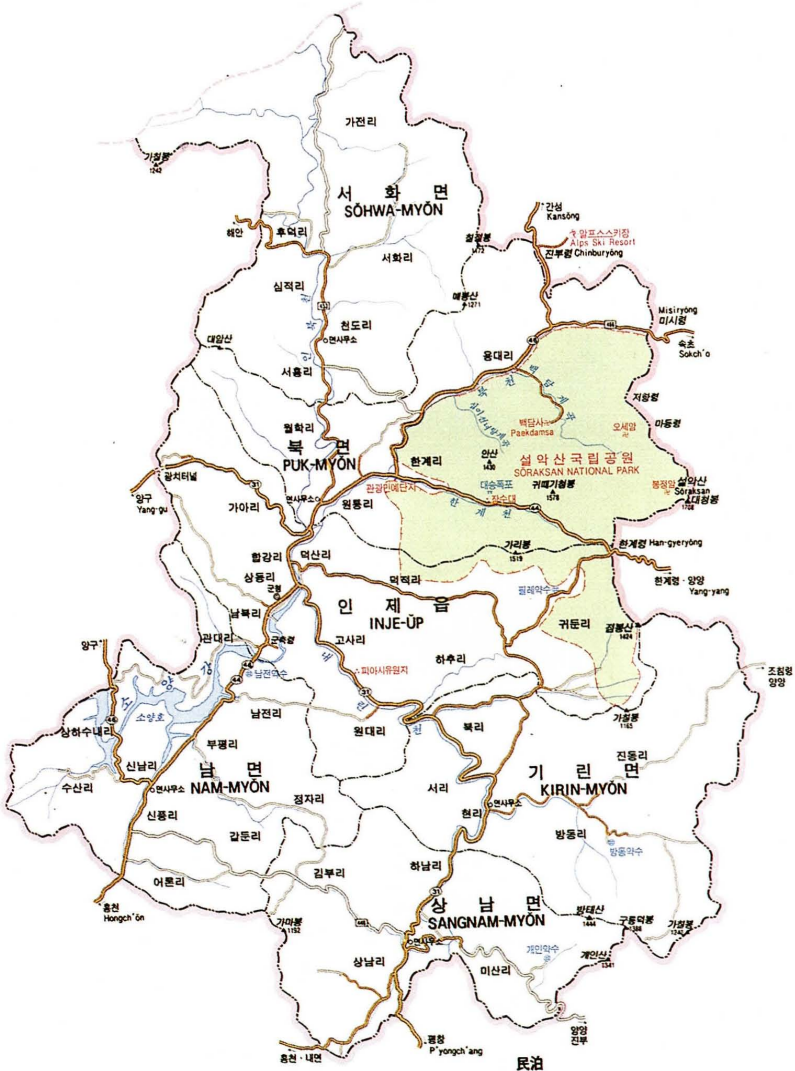
그 후로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 뗏목을 만들었던 기술만이 아니라 뗏목을 탔던 뗏목꾼들이 불렀던 소리도 이제는 전승이 힘겹게 되었다.故손용인 옹을 비롯하여 하나둘씩 모두들 돌아가시고, 이제는 관내에서도 예전 뗏목을 탄던 이가 박해순 옹 외에는 찾기가 힘들어졌다. 이에 예전 뗏목꾼들의 삶을 조망함으로써 뗏목이 아닌 뗏목꾼의 삶의 편린들을 담아내는 작업이 필요해졌고, 이를 강릉대학교의 장정룡, 이한길 두 분 교수님의 노고로 완성할 수 있었다. 이로써 뗏목문화에 관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는 완비되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동안 인제군은 합강문화제를 통하여 합수머리에서 직접 뗏목을 띄움으로써 주요 민속문화의 보존에 노력해왔다. 추후로도 더욱 훌륭한 민속문화를 발굴 보존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의 말로 발간사를 마치고자 한다.

2005년 6월

인 제 군 수

| 인제군 관내 지도 |



| 뗏목 아리랑 악보 |

# 뗏목 아리랑

나운영 채보



우 수 나 경 칩 에 물 풀 리 - 니 -  
아 리 랑 타 령 이 어 디 서 났 - 나 -



합 강 정 - 뗏 목 이 떠 내 려 - 간 다 -  
얼 었 다 - 녹 아 지 니 산 에 서 - 나 네 -



아 리 아 리 스 리 스 리 - 아 라 리 요 -



아 리 아 리 - 고 개 로 넘 - 어 - 간 다 -

| 뗏꾼 박해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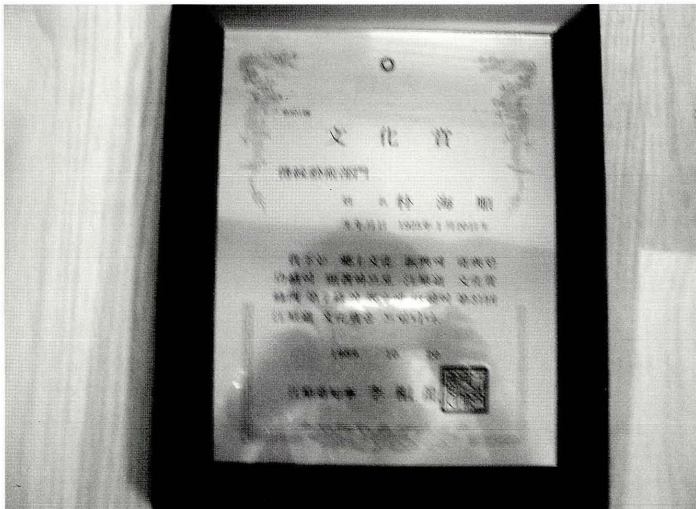




| 박해순씨 수상경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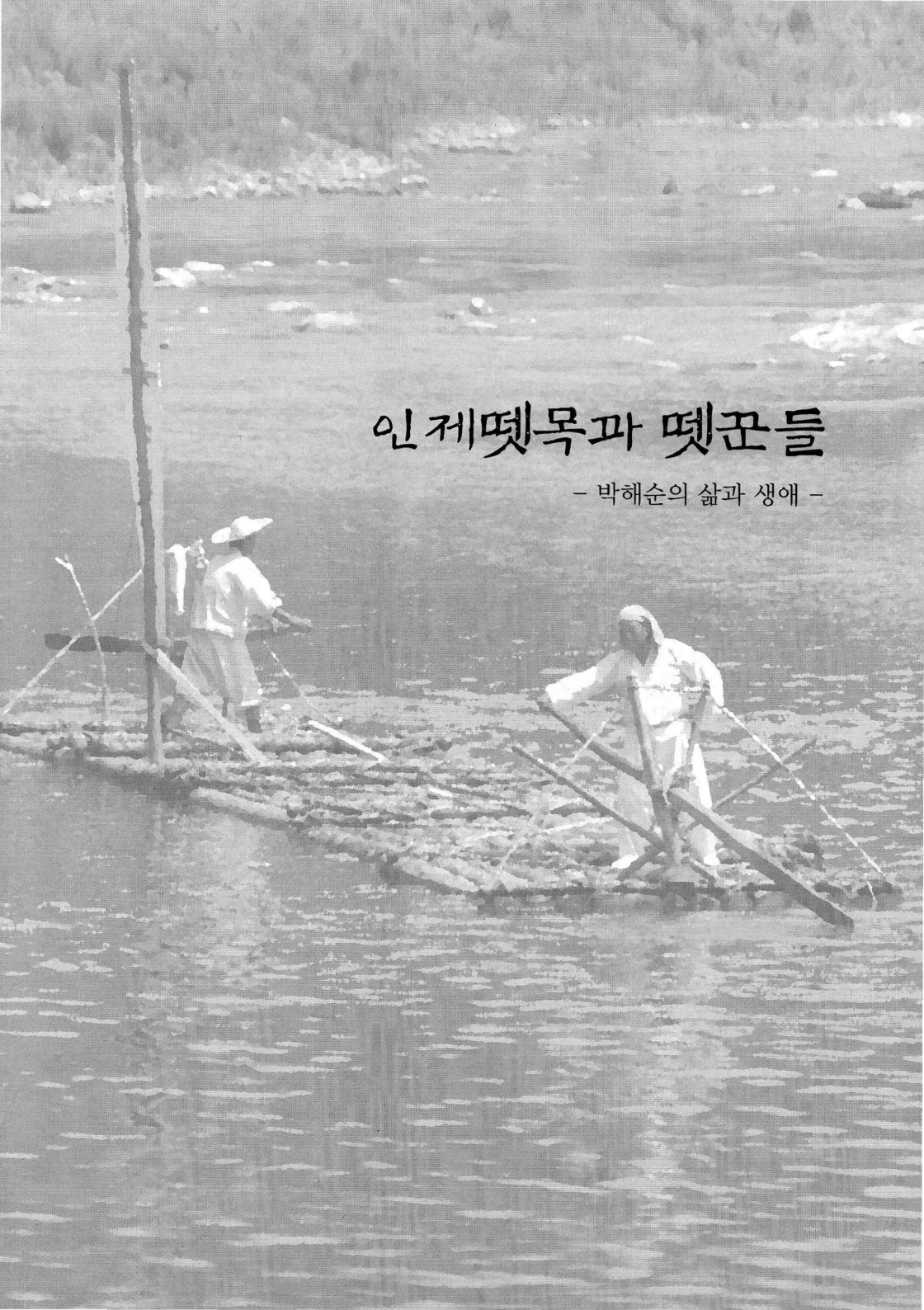
인제군민대상(1995)



강원도문화상(1989)

# 인제뗏목과 뗏꾼들

- 박해순의 삶과 생애 -



## I. 머리말

인제군은 강원도의 중앙에 위치하는데, 동쪽은 양양, 서쪽은 양구 및 춘천, 남쪽은 평창 및 홍천, 북쪽은 회양 및 고성과 경계를 이룬다<sup>1)</sup>. 산이 많고 삼림이 울창하여 예로부터 산림자원이 풍부하였다. 특히 아름드리 수목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런 아름드리 수목을 황장목이라 하여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일정 부분 관리를 하였다. 황장목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역의 수목 반출을 통제하기 위하여 황장금표를 세웠다.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강원도에서 북한강 수계에 황장금표가 설치된 곳은 남천 3곳, 홍천 2곳, 인제 2곳 등 총 7곳이며, 이중 황장금표가 발견된 곳은 인제군 북면 한계리 안산(鞍山) 절터뿐이다. 물론 남한강 수계에는 영월군 청령포(淸冷浦) 근처와 원성군 소초면 학곡리 치악산(雉岳山) 구룡사(九龍寺) 입구 등 두 곳이 발견되었다.

이처럼 삼림이 발달하였기에 삼림으로 인한 다양한 문화가 발달하였다. 본고에서 다룰 뗏목을 비롯하여 숯가마, 되남박 만들기, 심마니, 약초 등, 그 수많은 산림문화들이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이러한 문화들이 이제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본고에서 이번에 정리하는 뗏꾼에 관한 문화도 그중 한 가지이다.

일반적으로 뗏꾼이라 하면 뗏목을 운반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일명 뗏사공이라고도 하는데, 이들은 뗏목을 운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뗏목을 만들기도 한다. 뗏목을 만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뗏목과 더불어 보냈던 생활사(生活史)들이다. 뗏목은 어떻게 만들고, 뗏목을 운반하면서 무엇을 했으며, 뗏목으로 인하여 생겨난 여러 가지 생활풍속들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관심을 자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록들은 쉬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예전에 뗏목을 타셨던 분들도 많지 않아 그분들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얻어내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뗏목은 1943년 청평댐이 만들어져서 춘천에서 서울로 가는 뗏목 수로도 막혀버린 이후로 점차 퇴보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것이 1945년 이후로 남과 북이 갈리면서 북한강 수계를 이용하는 여러 시군들, 즉 인제군에서는 사라져버린 문화요 생활이 되었다. 인제군 곳곳이 물줄기를 따라 38선 이북도 되었다가 이남도 되었다가 하는 지형적 특징으로 말미암아 뗏목의 운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인

1) 강원도, 『강원도지』, 2005, p.85.

제는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에 수복이 되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지역이 되었지만, 그러나 북한강 수계에 하나들 들어서기 시작한 댐들과 경제개발로 인하여 차츰 정비되기 시작한 교통망 덕분에 뗏목은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뗏목에 종사하셨던 분들도 차츰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 시절 그 일을 아는 분들조차 드문 현실이 되었다.

박해순(남·81세)은 이제 인제군에서 유일하게 살아 계신 뗏목문화의 산 증인이다. 본고는 박해순 용이 들려주는 뗏목에 관한 다양하고 생생한 구술을 바탕으로 옛날 뗏목의 생활상과 문화를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당시 뗏꾼들은 여울을 타다가 소(沼)라든지 한적한 곳이 나오면 잠시 쉬면서 소리를 곧잘 하기도 했다. 당시 들려졌던 소리 중에 뗏목아리랑이 있다. 이 소리를 불렀던 이들 중에 지금 생존해 계시는 제보자는 박해순 뿐이다.

또한 벌목과 적심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범수(남·86세)의 도움을 받았다. 2005년 2월에 경기도 파주로 이사를 갔는데, 본고에서 조사하기로는 현재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적심꾼이었다. 이분으로부터 적심꾼과 복(服)지기 등의 생활을 채록할 수 있었다. 그밖에 내린천에서 암석을 발파·제거했던 일화를 들려주신 손천유(남·83세), 1945년 이전 영림서에서 근무했던 김춘봉(남·95세) 외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아 1945년 이전 뗏목에 관한 생활사를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 재구성할 수 있었다. 뗏목과 관련 있는 부분에서는 인제문화원에서 2002년에 발간한 『인제뗏목(증보판)』을 참조하였다.

## II. 인제군의 지리와 기후

### 1. 지리적 배경

산지가 많은 강원도는 남북으로 비스듬하게 뻗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으로 나누어져, 각각 독특한 기후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인제군은 우리나라 척추 역할을 하는 태백산맥의 정상을 중심으로 서쪽의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위도 상으로는 북위 37° 39' (상남면 상남3리) ~ 38° 30' (서화면 서화2리)이고, 경도 상으로는 동경 127° 58' (남면 수산리) ~ 128° 32' (기린면 진동2리)에 걸쳐 있으며 너비는 동서 51.5km, 남북 72.2km이거고 총 면적은 1,951.2km<sup>2</sup>로서 산림 면적이 1,555.51km<sup>2</sup> (79%), 농경 면적 84.63km<sup>2</sup>(4.3%), 잡종지 면적 311.06km<sup>2</sup>(16.7%)로서 산림 면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설악산(雪嶽山)(1708m) · 마등령(馬登嶺)(1327m) · 대승령(大勝嶺)(1210m) · 안산(鞍山)(1430m) · 한석산(寒石山)(1119m) · 가리봉(加里峰)(1518m) · 한계령(寒溪嶺)(1004m) · 점봉산(點鳳山)(1424m) · 가마봉(可馬峰)(1191m) · 향로봉(香爐峰)(1293m) · 주억봉(主億峰)(1443m) · 가칠봉(加七峰)(1240m) · 응봉산(應峰山)(1271m) · 방태산(芳台山)(1435m) · 칠절봉(七節峰)(1172m) · 개인산(開仁山) 등의 산이 우뚝 우뚝 솟아 있다. 해발 800m 이상의 봉우리가 인제군 안에 208개라고 『강원총람』에 기록되어 있다. 강원도 전체의 800m 이상의 고봉이 1000여 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무려 1/5이 인제군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바로 산림자원이 그만큼 풍부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인제군은 강원도의 중동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영서북부지역으로 우리나라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으며, 사면이 해발 1,000m 이상 되는 산들로 병풍같이 둘러싸운 산간지대이다. 북쪽으로는 해발 1,293m의 향로봉, 동쪽으로 해발 1,708m인 설악산 대청봉, 서쪽으로는 해발 1,316m인 대암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해발 1,563m인 오대산이 접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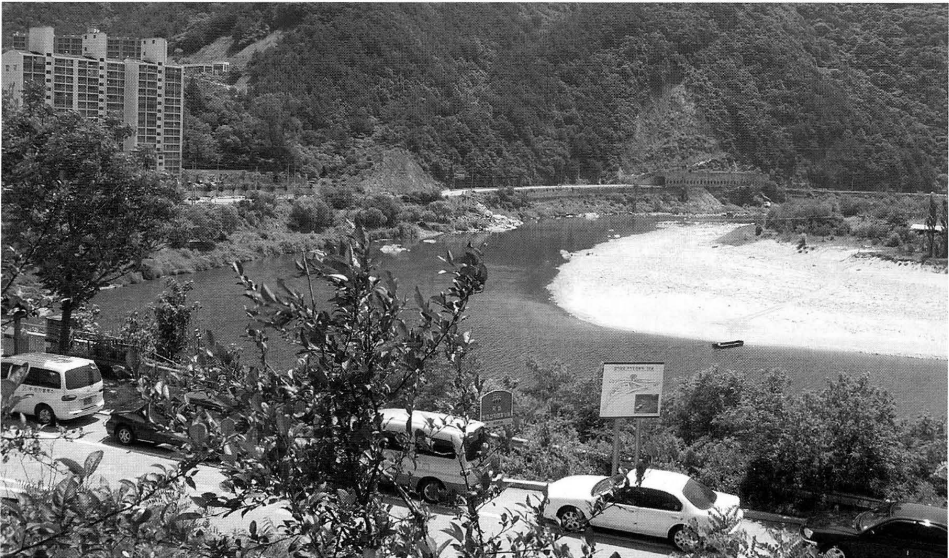
이러한 산들을 발원지로 하는 하천은 서면 북쪽 무산(巫山)(1320m)에서 발원하는 소양강과 북면 설악산에서 흘러오는 북천 상남면과 기린면을 흘러내리는 내린천이 인제읍에서 합류하여 인제 시가지 앞을 관류하면서 소양호로 유입된다. 또한 인제군은 영동과 영서의 제2관문인 한계령과 진부령에 접해 있어 동서교통의 요지이기도 하다.

인제의 하천으로는 산지사방의 높고 낮은 산골짜기에서 발원하여 인제읍 합강리까지 이르는 물줄기가

많은데 하폭(河幅) 2~5m가 78하천, 6~10m가 49하천 11m 이상의 것이 15하천 모두 142개의 하천이 있다. 그 중에서도 인제읍을 감돌아 나가는 하천이 바로 미륵천(彌勒川)인데, 미륵천은 오늘날 소양강이 시작하는 원류가 된다. 예전 합강정 앞에 돌미륵이 많이 서있었는데 이로부터 미륵천이란 이름이 유래한다. 지리적으로는 합강리에서부터 주연진(舟淵津)까지의 소양강 상류 8km를 미륵천이라 지칭한다. 이 물줄기는 원통에서 내려오는 원통천과 상남면에서 발원하여 기린면을 거쳐 흘러오는 내린천(內麟川)이 합강리에서 합수되면서 이루어진다. 원통천은 서화면에서 흐르는 서화천과 한계리에서 흘러오는 한계천이 합수되면서 만들어지는데, 넓은 의미로 이들 하천을 합하여 인북천(麟北川) 혹은 서화천(瑞和川)이라 이름한다. 상남면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두 줄기인데, 이중 한줄기는 평창으로 흘러가고, 다른 한 줄기는 기린면으로 흘러간다. 이 물줄기가 바로 내린천이다.

뗏목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적심을 한 하천이 내린천과 서화천이다.

내린천은 평창군 도암면과 홍천군 내면의 경계를 이루는 오대산·계방산(桂芳山)·인제군 상남면 개인산·기린면 가칠봉·방태산 등에서 발원하여 상남면과 기린면을 거쳐 북쪽으로 흘러 합강리에서 원통천과 합수하는데 길이는 50km에 달한다. 내린천 물줄기를 따라 퇴적작용으로 마치 하상(河床)에 하나의 섬을 연상케 하는 서호(西湖)와 서1리의 광대버덩을 비롯하여 하남리 가산동 송림 그리고 방동약수와 청류정 등 절경을 이룬 계곡들이 산재해 있다.



- 합강리 합강머리 -

서화천은 민통선 북쪽의 금강산맥과 접경하고 있는 서화면 이포리(伊布里)에서 발원하여 북면 원통을 지나 인제읍 합강리에서 북천으로 유입되는 길이 36km의 하천이다. 이포리에서 발원한 이 물줄기는 동남쪽으로 흘러 장승리(長承里) 대평에 이르러 남쪽으로 꺾이어 황기 철미동, 송노령을 끼고 돌다 서희리(西希里)에서 흐르는 물과 합류하여 다시 가전리·후덕리·수곡리를 흘러내려 구십구곡천과 다시 합류하

는 등 여러 굽이를 지나면서 면소재지인 천도리를 지나 서흥리와 논장교, 사천교와 칠성령 기슭을 거쳐 북면 소재지인 원통리를 거쳐 합강리에서 내린천과 만나 북천을 지나 소양강으로 유입된다.

서화천과 내린천이 합류한다고 하여 합강이라 부르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소양강의 원로가 된다. 이곳에서 각 산골짜기의 하천에서 적심하여 물줄기를 타고 운반된 원목을 물 속에 모아 두거나 야적하였다가 뗏목을 만든다. 합강리에서부터 비롯하는 미륵천은 서남쪽으로 흘러가면서 남면 관대리·부평리·신월리·상수내리·하수내리를 지나, 양구군 남면 명부리·심포리·석현리·수인리·춘성군 북산면 대곡리·추전리·내평리, 신북면 유포리·천전리를 지나 춘천시 사우동을 사이에 끼고 금강산에서 발원하여 강원도의 북쪽 지방을 서남쪽으로 가로지르며 화천을 휘돌아 내려오는 북한강과 합류하여 춘천시를 가르고 의암리·강촌을 거쳐 가평의 동쪽을 지나 홍천군 남면 관천리(冠川里)에서 홍천을 거쳐 흘러오는 홍천강과 합류하여 청평·대성리·문호리를 지나 경기도 양서면 양수리에서 남한강의 큰 강줄기와 합류하여 팔당·덕소를 지나 서울의 들머리인 광나루에 닿고, 다시 독섬·용산·노량진·마포의 옛 나루터를 지나 인천 앞바다로 흘러들어 간다.<sup>2)</sup>

## 2. 기후의 특성

인제군은 높은 산과 깊은 계곡으로 형성된 지역이어서 기상의 특징은 완전히 산악기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북동기류 유입 시는 군의 동쪽 산맥 정상부근에 짙은 안개나 안개비등으로 교통에 지장을 주기도 하며 산을 찾는 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또한 여름철에는 계곡이 깊기 때문에 국지적인 집중호우도 가끔씩 발생하여 피해를 주기도 하며, 겨울철에는 산악지방에 큰 눈이 내리며 이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는 등 눈으로 인한 피해 또한 종종 발생한다.

인제 지역은 지리적으로 영서지방에, 예보구역상으로는 강원 영서북동내륙지역에 속하며, 북쪽으로 DMZ, 서쪽으로 양구군과 춘천시, 남쪽으로 홍천군과 접하고, 동쪽으로는 양양군과 인접하고 있다.

강원영서 북동내륙지방인 인제군은 최북방에 위치하면서 80%내외가 산지로 기상현상 역시 산악기후의 특성을 나타내면서 분지를 이루는 평지에서는 바람이 약하고 한·난의 차가 심하여 일교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인제 지방의 연평균기온은 9.8℃, 연평균 강수량은 1,091.6mm, 강수일수는 104일로 1/3정도이며, 눈이 내린 일수도 30일로 영서지방에서도 인제 지방은 지형특성에 의한 북동기류의 유입에 따라 눈이 내리고 있으며, 바람은 2.0m/s로 약한 편이다. 봄은 평균기온은 9.7℃이며, 주로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우박이 봄철에 편중된다. 여름은 평균기온은 22.0℃이며, 여름철 강수량이 655.3mm로 다우지역에 속하고, 계곡이 깊기 때문에 국지적인 집중호우도 가끔씩 발생하여 피해를 주기도 한다. 가을은 평균기온이 11.1℃이며,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서 안개가 가을철에 자주 발생한다. 겨울 평균기온은 -3.3℃이며, 주로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눈은 30일 정도로 춘천과 홍천에 비해 자주 내리며, 폭설로 인한 피해를 주기도 한다.

다음은 최근 인제군의 평균기온과 강수량을 보여주는 도표이다.

2) 인제문화원, 『인제뗏목』, 2002, pp.31~32.

〈 1975년 ~ 2005년 월 평균 기온 〉

단위 : (°C)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기온	-5.2	-2.7	3.2	10.4	15.5	19.8	23.1	23.1	17.8	11.2	4.3	-2.0	9.9
최고	0.9	3.6	9.8	17.8	22.8	26.3	28.2	28.6	24.3	18.7	10.6	3.7	16.3
최저	-11.0	-8.6	-2.7	3.2	8.8	14.4	19.1	19.1	13.1	5.4	-1.1	-7.3	4.4

〈 1975년 ~ 2005년 월별 평균 강수량 〉

단위 : 강수량(mm)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강수량	14.8	19.4	34.0	67.0	94.7	119.1	262.7	273.5	133.8	37.5	36.8	20.8	1114.1

다음은 뱃목과 관련있는 1945년 이전의 인제군의 기후를 보여주는 도표이다.<sup>3)</sup>

〈 월 평균 기온 〉

단위 : °C

연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1914	-7.4	-4.3	2.5	10.2	16.8	21.1	24.2	24.3	18.8	12.0	4.5	-2.7	10.0
1939~42	-6.3	-3.4	2.2	9.9	15.8	20.1	23.9	24.3	18.8	12.0	4.7	-2.6	10.0

〈 월별 평균 강수량 〉

단위 : mm

연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
1916	14.5	19.9	45.3	65.3	93.8	113.9	204.9	213.9	104.0	34.5	38.0	17.3	965.3
1939~42	-	-	37.7	64.1	172.5	107.5	144.4	118.4	47.2	89.8	44.1	17.5	843.2

3) 인제문화원, 『인제뱃목』, 2002, pp.32~33.



그림1 : 한강수계<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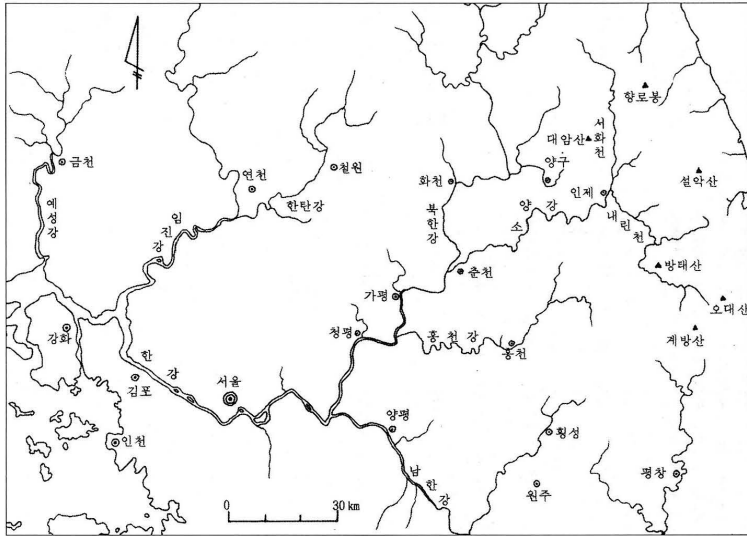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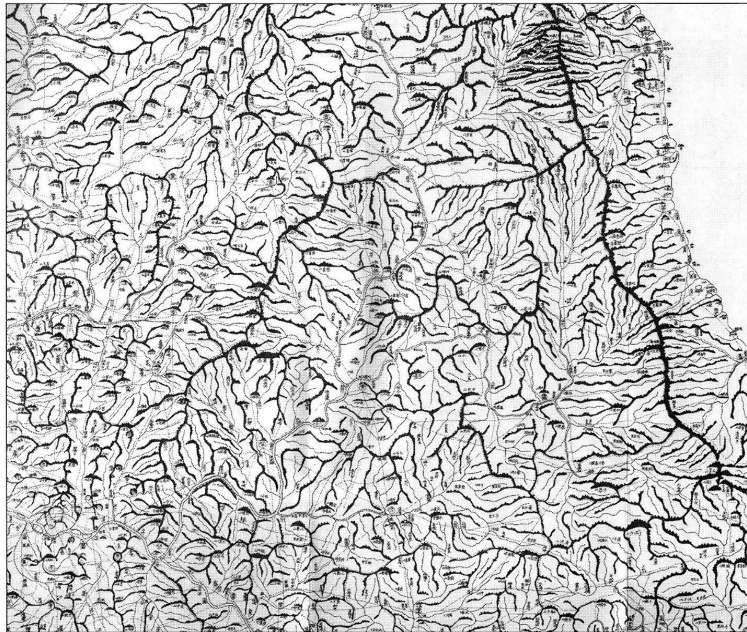


그림2 :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인제지역의 하천 흐름



4) 인제문화원, 『인제뗏목』, 1985, p.20. 이하 그림은 모두 이 책에서 인용했다.

### III. 인제 뗏목의 역사

#### 1. 뗏목의 역사

뗏목은 떼(群)와 목(木)의 복합어로 파악되는데, 박민일은 떼는 나무토막이나 풀 따위를 한데 엮어 물 위에 띄우는 구조물의 명칭이고, 뗏목은 통나무들을 한데 엮어 만든 구조물이라고 구별했다.<sup>5)</sup> 나무를 벌목하여 널쿨로 묶어 물에 띄우는 운반수단이다. 이를 이용하여 사람이 교통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물자를 수송도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뗏목 자체가 운반의 주요한 물자이자 운송수단이 되기도 한다. 나무를 운송하기 위해 뗏목의 형태를 만들어 수로로 운반하여 뗏목을 넘겨주면, 그게 바로 목재를 수송하는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사실 뗏목은 인류가 하천을 끼고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개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나와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아마도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기원전 4000년경의 토기에 새겨진 그림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구석기 시대에도 사람들은 뗏목을 만들어 사용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고인들의 뒹개들 같은 경우 인근 근방에서 구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근처에서 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물길을 이용하여 운반했으리라 생각되어진다.

이런 선사시대의 전통이 역사시대에도 이어져 내려왔음은 분명하다. 고대국가가 성립되고 각종 목조건물이 신축되었을 때 사용된 재목들은 물길로 이용하여 운반되었다면 뗏목은 그 주요한 운반수단이었음에 틀림없다.

원시적인 형태의 뗏목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남아 있다. 필리핀이나 태국 등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아직도 참대로 만든 떼배[竹筏船]가 널리 쓰이고 있으며, 남아메리카 서해안지역에서도 갈대다발을 묶은 풀뗏목이 사용되고 있다.<sup>6)</sup> 남아메리카 서해안 지역에서는 갈대 다발을 묶은 풀 뗏목이 있었으며, 이 집트는 파피루스(papyrus)로 만든 것, 중국에는 쇠가죽을 통째로 주머니 같이 만들어 나무를 엮어 밀

5) 박민일, 『아리랑정신사』, 강원대출판부, 2002, p.171.

6) 진용선, 『정선뗏목』, 정선문화원, 2001, p.12.

에 매달은 가죽 뗏목이 있었다. 특히 중국 양자강(陽子江)에서는 뗏목 위에 밭을 만들어 경작하고 닭·돼지를 사육하는 큰 것들도 있었다.<sup>7)</sup>

지금은 사라졌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근해와 남해 도서지역에서는 이층 뗏목도 사용되었다. 또 제주도에는 지금도 ‘테우’라고 하는 뗏목배가 사용되고 있다. 테우는 나무토막 여러 개를 나란히 펴놓고 묶은 원시적인 형태의 배로 오래 전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테우는 일본 쓰시마섬의 ‘오가리부네’라고 불리는 뗏목과 유사한 것으로 일본 학계에서는 이 뗏목이 원형이 한반도에서 왔다고 보고 있다.

영국 런던에서 발행된 화보 주간지인 [The Illustrated London News] 1887년 11월 26일자에 실린 거문도의 이층 뗏목은 당시 거문도에 주둔했던 영국 해병이 섬과 섬 사이를 오가는 신기한 모습의 뗏목을 보고 그린 그림이다. 이 뗏목에 대해 일본의 역사학자인 신지 니시무라는 1925년 그의 저서 『일본의 옛 뗏목(Ancient Raft of Japan)』에서 우리나라 뗏목의 우수성과 이층 뗏목의 독창성을 말하고 있다.<sup>8)</sup>

조선에는 다양한 종류의 해상 운반도구가 있으며, 이 중 뗏목선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층 뗏목은 주로 제주도 근해와 남해 도서 지역에서 제작되었는데, 부력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래된 통나무를 통째로 사용했다. 이층 구조로 된 갑판은 어부와 어구가 파도에 휩쓸리거나 젓지 않도록 독특하게 고안되었는데, 갑판에는 대나무를 돛자리처럼 바닥에 깔아 물이 잘 빠지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배려했다.<sup>9)</sup>

사실 삼국시대의 각 나라의 수도가 강이나 하천을 끼고 도읍하고 있음도 이를 반증한다고 하겠다. 평양이나, 신라, 공주, 부여 등이 모두 큰강을 끼고 건설되었으며, 이러한 전통은 고려시대의 개성이나, 조선시대의 한강도 다름이 아니다. 아마도 서울의 궁궐이나 일반 건축물에 사용된 재목은 대부분 남한강이나 북한강의 수계를 통하여 뗏목으로 운반되었을 것이며, 그 중에서도 부동, 궁궐과 같은 커다란 황장목들은 강원도 인제·평창·영월 등지에서 벌목하여 운송하였을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삼림이 울창하여 재목용으로 벌목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으나, 그러나 고려 초에 와서는 땀나무로 너무 많이 사용하여 산림이 황폐화되기 시작하자 이를 금하기도 하였다. 『고려사』현종 4년(1017년) 조를 보자.

禮云 伐一樹不以時非孝也 史云 松柏木之長也 近聞百姓斫伐松柏 多不以時 自今除公家所用違時 伐松者一切禁斷(역서에 이르기를 나무 한 그루를 벨 때라도 그 시기를 고르지 않으면 효를 다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하였다. 또 사기에 이르기를 소나무·잣나무는 모든 나무 중에서 으뜸이라고 하였다. 최근에 들려오기를 백성들이 소나무·잣나무를 벌목하는데 그 시기를 택하지 않는 자가 많다고 하니, 지금부터는 관청 용이 아니면 시기를 위반하여 소나무를 베는 자는 모두 엄단할 것이다.)

또 고려 현종 22년(1031년) 기록을 보면 “立春後 禁伐木(입춘 뒤에는 나무를 벌목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나무를 베는 시기도 과학적으로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벌목은 겨울에 하여 봄이 오면 그만두어야

7) 인제문화원, 『인제뗏목』, 2002, p.18.

8) 진용선, 『정선뗏목』, 정선문화원, 2001, p.13.

9) 백성현·이한우, 『파란 눈에 비친 하얀 조선』, 새날, 1999, p.156. 『정선뗏목』에서 재인용.

한다. 봄부터 여름에 베는 나무는 물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수축·팽창이 심하여 재목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고려 충숙왕 12년(1325년)의 기록을 보자.

山林川澤與民共利者也 近來權勢之家自占爲和 擅禁樵牧以爲民害 仰憲司 禁約違者治罪(산림·강·못은 백성이 같이 이용하는 것인데 최근에 권세 있는 집안이 독점하고 일반 나무꾼과 목동들의 입산 채취를 금하여 백성을 해롭게 하니 사법부에 명하여 이를 위반한 자는 죄를 물을 것이다.)

이는 삼림의 사유화가 현실적으로 용인되고 있었는데, 이를 금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산림보호정책은 조선조에 와서도 법으로 엄금되는데, 『경국대전』 형전(刑典) 금제조(禁制條)에 “私占柴場 杖八十(땔감 채취장을 사점하는 자는 곤장 80대)”라 하여 개인의 사유화를 엄금하였다. 벌목 또한 엄금하였다.

諸道禁山 禁犯犯斫者 重論 大松犯斫 十株以上一律論 九株以下減死定配(각 도 금산에서 금송을 베거나 큰 나무를 10그루 이상 벤 자는 사형, 9그루 이하를 벤 자는 사형은 면하게 하되 귀양을 보낸다.)

그러나 조선왕조가 성립되고 서울의 인구가 늘게 되자 각종 건축물의 자재와 땔감으로 나무가 많이 필요하자 경기·강원도의 소나무는 벌목을 허용하였으나, 다른 도는 여전히 벌목을 금하였다. 아래는 세종 21년(1439년)의 기록이다. 이로 미루어보아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는 건축자재로 벌목을 허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議政府啓 都城內 未造家者頗多 京畿江原松木斫伐勿禁之法 載在續典騰錄…(의정부에서 장계를 올리기를, 서울 안에 집을 짓지 못한 자가 많다. 경기·강원도의 소나무 벌채를 막지 못하는 법이 속전에 등록되어 있으니…)

조선조에 들어와서 뗏목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조선 세조 7년(1461년)에 간행한 『능엄경언해(楞嚴經諺解)』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에 보면 벌(筏)은 ‘뱃배’라고 읽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벌’이 바로 뗏목을 의미한다. 그 이후 성종 13년(1482년)에 간행된 『금강경삼가해(金剛經三家解)』와 중종 22년(1527년) 최세진(崔世珍)이 지은 『훈몽자회(訓蒙字會)』에도 ‘뱃배’라는 기록이 보인다.<sup>10)</sup> 이로 미루어보아 조선 초에도 뗏목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수로를 이용한 물자의 수송은 조선을 비롯하여 그 이전시대부터 주요한 운송수단이었음은 분명하다. 특히 목재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을 뗏목을 이용하여 운송하였을 것이다. 나라의 주요한 토목·건축사업에 강원도의 아름드리 나무, 즉 황장목이 사용되었음은 불문가지다.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에서 엿볼 수 있는 뗏목관련 부분들이다.

『태조실록』에 보면, 태조 4년 2월에 강원도의 삼림을 재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우기(雨期)를 기다려 떼로 엮어 수운으로 서울로 보냈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10) 박민일, 『아리랑 정신사』, 강원대출판부, 2002, p.172.

交州道斫木別監盧湘曰 斫材木萬餘後若於此時時刻盡輸 其弊甚鉅 願待雨作結 流下便 上從之<sup>11)</sup> (교주도 작목별감 노상이 아뢰기를, 벌채한 재목 1만여 개를 지금 곧 운반하려면 그 폐단이 매우 클 것입니다. 원하건대 비가 오기를 기다려 뗏목을 엮어 아래로 내려보내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임금에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태종실록』에도 태종 14년 본궁을 짓기 위하여 낭천(狼川)에 고용인(雇傭人)을 보내 나무 1천 그루를 베어 뗏목으로 묶어 물길을 따라 내려보냈고, 태종 18년에도 창덕궁을 수선하기 위해 원주·영월·인제 등지에서 나무를 베어 보냈다는 기록<sup>12)</sup>이 있다.

『세종실록』에 보면, 세종 9년에 춘천 등지에서 후궁에 쓸 목재를 벌채하였고, 세종 25년에도 임금이 춘천에서의 벌목 상황을 감찰하게 하였다. 아마도 조선초기에 강원도에서 주로 벌목을 하여 궁궐이나 관아의 재목을 충당한 것으로 짐작한다. 당시 벌목한 나무는 남한강이나 북한강 수계를 통하여 운송되었을 터인데, 그때 뗏목을 만들어 목재를 수송하였다.

조선 중기로 들어와서도 빈번한 벌목과 운목을 위해 뗏목이 사용되었다. 벌목한 나무를 육지로 운송하는데 장정 100인의 힘이 든다. 성종 24년 기록을 보면, 강원도 깊은 골짜기에서 재목을 가져오기 위하여 아름드리 나무 한 개를 나르는데 100인의 힘을 써야 한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 뗏목을 이용하면 단지 몇 사람의 힘만으로 쉬이 운송을 할 수가 있으니 그 경제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관에 의한 공적인 필요로 강원도의 재목이 서울로 운송되기도 하지만, 사적으로 벌목을 하여 서울로 가져가 매매하기도 하였다. 세종 20년 기록을 보면, 강원도 백성이 언제나 농한기만 되면 목재를 벌채하여 뗏목을 만들어 강물의 흐름을 따라 내려와 서울의 강구(江口)에 이르러 매각하는데, 순전히 이를 업으로 삼는 이도 있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보아 목재상들도 상당히 활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라에서도 이를 엄금하였더니 이로 인한 백성들의 생활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그리하여 『성종실록』을 보면, 성종 6년 대사간 정괄과 조석문이 강원도의 토지가 메말라 백성들이 생활을 전적으로 재목을 판매하는데 의존하는데 이를 금지하여 백성들의 원성이 높다고 상소를 하였다. 이로 인해 한때 해제하기도 하였지만, 서울 도성 내에 인구가 늘고 각종 건축자재 및 뿔감으로 나무가 많이 쓰이게 자 산림이 황폐해지고 나라에서는 다시 도벌(盜伐)을 엄금하였다.

도벌을 엄금한 이유는 조선과도 관련이 깊다. 배를 만들 소나무는 국방에 요긴하기 때문이다. 세조 10년 병조에서 청원하기를, “兵曹請於諸道沿海郡縣 松木茂盛之處 禁民斫伐 以備造船 從之(병조에서 청원하기를 바다를 끼고 있는 군현에서 소나무가 무성한 곳은 백성들이 벌목하는 것을 금하여 조선에 대비하도록 하십시오. 왕이 이를 따랐다.)” 또 성종 7년의 기록에 보면, 소나무는 40년 이상을 키워야만 조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도벌을 금했다는 내용도 있다.

諸道觀察使曰 軍國之務 兵船爲重 造船之材 非四十五年之久 不可用也 禁伐松材爲此也 (각도의 관찰사들이 아뢰기를, 나라의 국방에 있어서 병선을 만드는 일이 가장 중합니다. 배를 만드는 나무는 사십 년이나 오십 년보다 오래지 못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벌목을 금해야 합니다.)

11) 인제문화원, 『조선왕조실록 인제편 초록』, 1998, p.10.

12) 인제문화원, 『조선왕조실록 인제편 초록』, 1998, p.16.

선조 26년(1593년)에는 전국에 봉산은 무려 625개소가 있었다. 이후 1808년에 나온 『만기요람』에는 전국에 60곳, 강원도에 43곳으로, 1864년에 나온 『대동지지』를 보면, 전국에 41곳, 그중 강원도에 32곳이 봉산으로 나타나는데, 강원도가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봉산으로 지정이 되어도 벌목이 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영조 28년(1753년)에 삼척, 강릉, 양양, 고성, 인제, 이 다섯 곳에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봉산에는 출입엄금을 지시한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서서 인구의 증가로 말미암아 목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산림은 다시 황폐하게 되었다. 이에 나라에서는 황장봉산을 지정하여 삼림을 보호하려 애썼다. 당시 황장봉산으로 지정된 곳은 강원도 북한강 수계에 총 7곳인데, 인제에 2곳, 낭천에 3곳, 홍천에 2곳 등이다. 이중 인제에 있는 것은 1곳이 발견되었는데 현재 한계리 안산 절터 근방에 있다.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 일본인들은 전쟁물자에 충당하기 위해 상당한 재목을 벌목했는데, 이 벌목은 남한강, 북한강 수계뿐만 아니라 압록강, 두만강 유역에서도 행해졌다. 1898년 조선왕조가 1896년 러시아에 넘긴 무산(茂山) 압록강 유역·울릉도 삼림채벌권이 1908년 1월 일본으로 넘어갔다. 일제는 울창했던 이 일대의 삼림을 벌채해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 주요 운송수단인 뗏목 또한 조사했다. 조선총독부가 1930년대에 펴낸 뗏목분포도에는 이들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남해안과 제주도, 울릉도 일대의 뗏목까지 자세히 기록해놓았다. 우리나라의 산림자원을 탈취하고 그 운송수단까지 조사했으니 일제의 경제적 수탈이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다.

1045년 조국이 광복되자 차츰 한강수계를 이용한 뗏목 운송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남한강, 북한강 수계에 건설되기 시작한 댐 때문이었다. 한강수계에 최초로 건설된 1943년의 청평댐 때문에 이미 1945년 조국 광복 이전부터 북한강 수계에서 뗏목의 운반은 춘천까지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던 것이 남과 북이 갈리면서 38선이 그어지자, 더욱 뗏목을 운반할 수 없었고, 차츰 경제개발로 인하여 도로망이 잘 정비되자 이제는 물길로 운송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그렇다고 오늘날 뗏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산간오지에는 하천을 건널 때 뗏목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뗏목배가 있으며, 속초시 청호동 갯배처럼 현대식으로 변모하여 관광명물로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예전에 뗏목이 담당했던 운송기능은 현대식 교통수단이 대체하면서 이미 그 실자리를 잃어버린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어쩌면 요즘의 뗏목은 레저도구로 전략해 래프팅의 보조수단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전처럼 주요 경제활동의 주체가 아니라 이제는 취미생활의 한 부분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것이다. 젊은이들의 도전정신은 최근에는 발해탐사선 띄우기로 뗏목을 만들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뗏목은 이처럼 최근에 도전과 모험의 상징으로 즐겨 사용되곤 한다.

## 2. 인제 지역 삼림의 최근 역사

인제 지역은 예로부터 아름답리 수목이 울창하여 서울의 주요건축물 자재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보니 도벌도 심하여 삼림이 훼손되자, 나라에서도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금표정책을 사용하였다. 황장목(黃腸木)에 대한 금표(禁標)를 설치하여 잡인들의 접근을 금하는 것이었다. 조선시대에 인제 지역에 설치된 금표는 두 곳이었다고 전해지지만, 아직까지 밝혀진 곳은 인제군 북면 한계리 안산 절터에 있는 1곳에 불과하다. 이곳에 ‘黃腸禁山 自西古溪漢 至東界二十里’라 새겨져 있는데 서쪽 한계리부터 동쪽 20리까

지 황장목으로 보호하고 있으니 입산을 금한다는 내용이다. 이 일대의 좋은 소나무는 궁중에서 필요로 할 때 용재(用材)로 쓸 것이므로 별목하거나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는 표시인 것이다.

인제 한계리의 금표는 원종에서 한계령으로 난 국도를 따라가다가 쇠리라는 민박촌 마을 북쪽의 안산(鞍山) 기슭을 1.2km 거슬러 올라가면 부서진 닭이 발에 쌓여 있는 절터가 있는 곳의 뒤쪽 측대에 새겨져 있다. 이 측대는 통일신라시대 말기나 고려시대 초기에 조성된 절의 것으로 자연석을 이용하여 정교하게 축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절터는 백담사의 전신인 운흥사지(雲興寺址)의 절터이다.<sup>13)</sup> 운흥사는 신라 원성왕 6년(790년) 창건하여 고려성종 3년(984년) 화재로 폐찰이 되었다 한다.

예전 강원대학교 인제뫾목 학술조사단이 이 일대를 탐사했을 당시에 지름 50cm 정도 되는 소나무가 몇 그루 하늘을 찌르듯이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예전의 황장목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짐작이 간다.

황장목으로 지정이 된 수목은 소나무인데, 현재 인제군에서 보호수(保護樹)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소나무로서 수령 300년 이상으로 추정하는 것이 남면 갑둔리에 1그루, 남면 신남리에 1그루, 북면 한계리에 2그루, 서화면 서화리에 1그루가 있다. 높이가 대략 20m에 달한다. 그밖에도 기린면 서리의 소나무는 높이 45m에 이르는 것도 있고, 수령이 100~200년 된 것은 인제를 덕적리, 북면 한계리와 원통리, 남면 부평리 등에서 아직도 많이 볼 수 있다.<sup>14)</sup> 이를 통하여 예전에 황장목이 얼마만한 크기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황장목은 궁궐이나 큰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도 쓰지만 왕족들의 관(楸)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 인제 지역의 소나무가 조선조에 임금이나 양반들의 관을 만드는 목재로도 이용되었다.

인제 지역은 오랜 역사동안 사람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았던 곳으로 일제 강점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북면 설악산·기린면(麒麟面)의 방태산·서화면의 향로봉·칠절봉·응봉산 따위의 높은 산이 우뚝 우뚝 솟은 태백산맥과 그 가지산맥인 동북쪽의 금강산맥, 동남쪽의 오대산맥 일대에는 원시림에 가까운 수목이 울창하였다.

인제군의 주요 수종은 소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갈참나무, 자작나무, 고로쇠나무, 단풍나무, 마가목 등이다.<sup>15)</sup> 현대에도 기린면 진동리(鎭東理) 일대에는 원시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우리나라 임업사(林業史) 연구에 없어서는 안될 주요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남한에서는 유일하게 원시림이 보존되어 있는 곳이 인제 지역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때엔 일제의 수탈정책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황폐화되었는데, 이는 대한제국이 산림채벌권을 러시아로, 일본으로 넘어주면서부터 비롯한다. 1896년 러시아가 먼저 무산(茂山) 압록강 유역·울릉도 삼림채벌권을 가져 갔고, 이후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면서 한국 전역에서 삼림채벌권을 강탈해갔다.

이 당시만 하여도 원시림이 많았으며 그 중에서도 압록강·두만강·함경북도·강원도 일대의 사람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곳이 많아 그야말로 울창한 숲을 이루어 아름드리 나무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남아 있었

13) 최병헌, 「인제의 禁·封山과 禁標에 관한 考察」, 『인제문화』16집, 2001, p.33.

14) 인제군, 『인제군지』, 1980, pp.535~6. 수령이 500년 이상이면 道나무로 지정이 되고, 300년이상이면 시군 차치단체에서 관리한다. 200년 이상이면 읍면나무이고, 100년 이상이면 마을나무로서 관리한다.

15) 인제군, 『인제군사』, 1996, p.444.

다. 이 때 압록강·두만강 일대의 나무는 잎갈나무·분비·가문비나무 등이 300년 이상의 수령이었으며 높이가 30m, 지름이 1m 정도가 대부분이었고, 내금강 일대인 인제·양구(楊口)·회양(淮陽)·김화(金化)에서는 거대한 소나무·잣나무·전나무 등이 뺨뺨이 들어차 있었는데 설악산·오대산의 것은 지름 1m, 높이가 20m에 달하는 것이 많았다.<sup>16)</sup>

1916년에 일본이 한국 삼림자원을 수탈하기 위하여 조사한 각 도별(道別) 임상별(林相別) 통계에 의하면 강원도가 큰 나무 지역 66.7만 정보, 어린 나무지역 96만 정보, 나무 없는 산 지역 27.8만 정보인데 이 통계에서 보면 함경남도가 큰 나무 지역이 145.8만 정보, 함경북도가 88만 정보, 평안북도 87.9만 정보로서 강원도가 넷째로 삼림이 많은 것으로 나왔다. 또 1909년 조사된 국유삼림 조사보고에 의하면 인제군 일대의 748정보가 국유림으로 되었는데 소나무가 대부분으로 총 재적(材積)이 47,900m<sup>3</sup>, 1정보당 제적 64m<sup>3</sup>이었고, 금강산 일대의 국유림은 삼림지역이 18,773정보, 총 재적 4,326,100m<sup>3</sup>, 1정보당 재적은 230m<sup>3</sup>로서 강원도의 삼림이 우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17)</sup>

이러한 삼림자원을 수탈하기 위하여 1910년 이후 영림창(營林廠)과 출장소·파출소를 전국 삼림지역에 설치할 때 인제군 인제면에도 출장소를 두어 6.9만 정보를 관할하였었다. 1924년에 전국 65개소를 삼림보호구역으로 설정할 때 인제·양구·화천·금강산 등이 모두 포함되어 보호구역이 된다.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전역의 삼림자원이 그들의 수탈대상이 되었을 때 인제 지역 일대의 수목들도 큰 피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일본이 당시 한국에 원래부터 붉은 산이 많았다고 선전을 하지만, 사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거대한 삼림자원이 황폐화되었다고 『인제뗏목』에서는 보고 있다.

이 때에 일본이 대동아전쟁을 하면서 공출이란 명목으로 하다 못해 숟가락, 젓가락까지 빼앗아 갔는데, 우리나라의 울창한 삼림을 가만 두었을 리가 만무하다. 이때 이들에게 나무를 쉽게 운송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바로 뗏목이다. 한강유역의 뗏목은 말할 것도 없고, 압록강, 두만강 유역의 나무도 뗏목을 이용하여 한곳에 모아 놓은 다음 차를 이용하여 운송하였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사림을 일본은 무참히 강탈해 간 것이다.

1945년 조국 광복 이후 인제 지역의 많은 삼림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다시 한 번 위기를 맞았다. 더구나 인제에서 서울까지 흐르는 강물이 1943년 청평댐, 1967년 의암댐, 1973년 소양댐이 건설됨으로 인하여 물길로 인한 수운(水運)이 끊어지게 되자 자연히 인제의 뗏목은 운반작업의 역할을 트럭과 기차에 빼앗기고 점차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었다.

16) 인제문화원, 『인제뗏목』2002, pp.24~25.

17) 지용하, 『한국임정사』(서울:명수사), 1964, pp.135~61. 『인제뗏목』p.25 재인용.



## IV. 인제뗏꾼의 생애

박해순은 강원도가 자랑하는 소리꾼이다. 그의 소리엔 삶의 애환이 깃들어 있다. 구수하면서도 처량한, 그러면서도 감칠맛 나는 그의 소리엔 삶의 온갖 감정이 진득하게 묻어난다. 80평생에 곱삭은 삶의 여정이 소리에 어울지면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이다. 뗏목을 만들던 추억과, 떼를 타고 여울을 건너던 그 숨가쁘던 시절과, 지금은 고인이 된 뗏꾼들의 초상이 하나둘씩 아리랑 가락 속에 녹아든다.

이제 강원도가 자랑하는 뗏꾼이자 소리꾼인 박해순의 일생을 조망해보기로 한다.

### 1. 뗏꾼 박해순(朴海順)

박해순은 1925년 1월 20일(양력)<sup>18)</sup> 인제군 남면 부평리 1064번지에서 출생하였다. 본관은 춘천 박씨이고 장본과 22대손이며 인제 토박이다. 그의 집안은 오래 전부터 인제군 남면 부평리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할아버지 대에 이르러 부평리를 떠나 인제읍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상업에 종사하였다. 조부 박성근(朴聖根)은 1944년에 별세하였는데, 슬하에 6남1녀를 두었고, 박해순의 부친인 박기동(朴基東)은 그 중 셋째였다.

당시 부평리는 호수가 약 120호나 되는 큰 마을이었고 강변에 있어서 물산(物産)이 상당히 풍부하였다. 주막도 강가에 있을 정도였으나 주민들의 대다수는 농업에 종사한 전형적인 강변 농촌마을이었다.

박기동은 1904년 생으로 남면 부평리로 장가를 들어, 원래 고향이자 처가가 있는 부평리에서 자리를 잡았다. 박해순의 모친 김용해(金龍海) 역시 남면 부평리 출신으로 1904년 생이다. 부모님은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부친은 농한기나 여름한철에는 뗏목도 타고, 겨울에는 목상도 하면서 생업을 영위하였다. 슬하에 2남3녀를 두었는데 박해순은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친 박기동은 63세의 일기로 별세하였고, 모친 김용해는 부친과 동갑으로 62세에 별세하였다.

18) 『인제뗏목』에는 1925년 1월 25일생으로 잘못 나와 있는데 이번엔 이를 1월 20일로 바로잡는다.

박해순이 기억하는 부친 박기동은 경험이 많은 뗏꾼이었다. 그러면서도 동네에서는 제일가는 소리꾼이었다고 한다. 가산은 넉넉하지 못해도 재주가 많았고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는 분이였다. 그의 소리도 부친으로부터 귀동냥으로 배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직접 부친으로부터 배우지는 않았지만 동네 어귀에 들어서면 부친이 주막에서 소리하는 모습을 곧잘 보곤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처남들과 같이 여름이면 뗏목도 타고, 또한 목상도 겸하는 사업가이기도 했다. 자식들에는 상당히 엄격했는데, 모친은 정반대로 상당히 자상하셨다.

박해순은 남면에서 관대리에 있는 보통학교를 다녔다. 당시 남면에는 면소재지인 관대리에만 보통학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6년제인 인제읍으로 학교를 보내기는 가장 형편이 감당하기 힘들었다. 남면 관내에 있는 남전리, 관대리, 대흥리, 신월리, 부평리, 어론리, 새재 등의 마을에서 보통은 한 10리 길을 걸어서 혹은 강을 건너서 그곳 학교를 다녔다. 당시 보통학교는 4년제였는데, 이 학교는 박해순이 살고 있는 부평리 강 건너 마을에 있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강을 건너다니며 뗏목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또 타보기도 했다.

당시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돌아오는 길에 뗏목을 타려고 강가에 옷을 벗어 책보와 같이 내려놓고 강 위로 올라가 지나가는 뗏목이 있으면 태워달라고 부탁하곤 했다. 안면이 있는 분들은 아이들이 귀여워서 곧잘 태워주곤 했었는데, 사실 뗏목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 자녀들이나 노약자들은 절대 타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떤 뗏꾼들은 아이들이 태워달라면 태워주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면 아이들은 “돼지우리 틀어라”라고 소리치곤 했다.<sup>19)</sup> 돼지우리란 여울에 뗏목이 부딪치는 현상이 마치 돼지우리 같다는 점에서 만들어진 말이었다. 그렇게 운행하다가 돼지우리처럼 여울에 부딪치라는 일종의 가벼운 저주(咀呪)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뗏꾼들도 화를 벌럭 내는 것이 다반사였다. 그러나 뗏꾼들이 육지로 올라올 수는 없는 일이었다. 더구나 아이들이니까 돌아와서도 뭐라 하지는 못했다. 어떤 뗏사공들은 그런 말을 듣기 싫기 때문에 뗏목을 태워달라면 무조건 태워주는 뗏꾼들도 있었다.

그렇게 4년제 보통학교를 졸업한 박해순은 인제읍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으로 편입을 해 그곳에서 5~6학년을 마쳐 마쳤다. 이때에 그는 합강리 합강정 앞에서 물두영상곳을 하는 것을 보았다.

합강리 합수머리는 내린천과 인북천 물이 합수되는 곳이다. 그곳에 물이 빙글빙글 도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잘못 빠져들면 쉬이 생명을 다치곤 했다. 그래서 해마다 무당을 불러 그곳에서 물두영상곳을 했다. 이른바 물귀신을 위로하는 자리였다. 당시 박수무당과 같이 하는 것을 보았는데, 암무당이 고깔을 쓰고 춤을 추면서 “마늘쇠야” 하고 부르면, 박수무당이 장고를 치면서 “예이” 하고 대답을 한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물두영상곳을 하는데, 이 곳의 백미는 무당이 몸에 천을 칭칭 감고 물로 향해 들어가면서 마치 물귀신에 씌어 물로 허우적거리며 들어가는 것을 연기하는 데에 있었다. 물두영상곳은 1년에 한번 가을 추수를 마친 다음에 주로 했다.

물두영상곳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원혼을 위로하는 곳이라면 용왕을 위하는 용왕제도 1년에 한번 씩 지냈었다. 당시 용왕제는 대목상이던 우모리가 모든 경비를 대었고 다른 목상들도 같이 참가하였던 것으로 박해순은 기억한다. 우모리는 본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당시 일본식 이름인 모리를 사용하던 대목상이었다. 이 용왕제가 바로 강치성이었는데, 무당이 치성을 드리고 뗏목 위에 올라가 한바탕 신명풀이를 하는 것을 보았다.

19) 정선뗏목에서도 이와 같은 소리를 한다. 정선문화원장인 배선기도 어린 시절 “돼지우리 제라”고 하면서 놀았다고 증언한다. 배선기, 「남한강 따라 천리 길」, 『도원문화』 4호, 2001, p.62.

인제읍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박해순은 중학교로 진학할 수가 없었다. 당시 인제에 중학교가 없었기 때문이었고, 춘천에 있는 중학교로 가기에는 집안 형편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공부에 관심이 있는 동네 아이들이 여럿이 모여 한문 훈장을 모셔놓고 공부를 했다. 당시 배웠던 책은 『동몽선습』, 『명심보감』, 『소학』, 『무제시(無題詩)』, 『통감절요』 등이었다. 이렇게 7년 간 한문을 배우면서 틈틈이 부친을 도와 뗏목을 탔다.

뗏목이 출발하는 합강머리에 예전에 돌미륵이 여러 개가 있었다. 그러던 것이 하나둘씩 점차 물 속에 들어가더니 끝내는 모든 돌미륵이 사라져버렸다. 그 전에 화춘이 어미라는 무당이 있었는데, 이 무당의 꿈에 돌미륵이 신몽을 했었다. 그래서 돌미륵을 건져내었다고 한다.<sup>20)</sup>

합강머리에 흘러 들어오는 두 줄기 물은 내린천 물이고 인북천 물이다. 기린천이 암물이고 인북천이 솟물이다. 그래서 장마가 잦을 적에 인북천 물이 많으면 한번 장마가 또 진다는 말이 있다. 인북천 물이 많고 내린천 물이 좀 적다 하면은 그 물이 적기 전에 또 내밀어서 장마가 거듭 진다는 얘기가. 또 다른 설명도 있다. 『유적·지명·전설』에 따르면<sup>21)</sup> 합류지점에서 건너편 만호대(萬戶臺) 기슭 강변을 지나는 내린천 물 빛깔이 흐리고 인북천 물보다 맑으면 홍수가 나고 반대쪽인 인북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맑으면 풍년을 기약한다고 한다.

뗏목은 당시 상당히 위험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고소득이 보장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박해순은 뗏목을 타긴 했어도 공가(임금)를 만져본 적이 없다. 당시 외삼촌들이나 손용인처럼 동네 어른들과 함께 뗏목을 탔기 때문에 공가는 고스란히 부친이 받아갔고, 더구나 춘천까지 갔었던 뗏목은 부친이 직접 목상을 했던 뗏목이었으므로 공가는 언감생심이었다고 한다.

공가(노임)는 쌀 한 말 가격이 1원5전하던 시절인데, 춘천과 인제간 공가가 광목 한 통을 사고도 남은 5~6원이었던 것으로 짐작한다. 춘천에서 서울간 공가는 30~35원으로 상당히 후한 편이었다. 서울에 한 번 갔다오면 그 해의 농사 비용은 모두 충당할 수 있었다.

그 당시 공가는 앞사공이나 뒷사공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 박해순이 뗏목을 타기 이전에는 아마도 앞사공이나 뒷사공의 공가가 차이는 있었을 지도 모른다. 다음은 인제 출신이지만 정선에 정착하여 뗏목으로 한평생으로 보낸 송문옥의 진술이다.

그 전에는요 앞사공이 고전을 더 먹었지요마는 요 중간에 와서는 더 안 먹구 똑같이 갈라 먹었습니다. 앞사공이 길은 잘 알고 전부 가주지마는 심부름은 뒷사공 그 높이 말짱 해요. 뭘 심부름이든지 그 높이 말짱 하지요. 갖다 댈 대도 뒷사공이 버릇술도 가져가서 내다 매야 되고 힘이야 실지 더 들죠. 나이 더 많은 사람이 뒷사공으로 탈 수도 있지요. 그래도 불가부득 그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일을 시키지요. 그렇게 하게 돼 있지요.<sup>22)</sup>

정선의 뗏목과 같이 인제의 뗏목도 그러했다. 앞사공이 물말기를 보아서 뗏목의 진로를 잘 인도해야

20) 돌미륵에 관한 전설은 후에 기술하겠지만 손천유의 진술이나, 현지 돌미륵에 적혀 있는 설명과는 다른 것이다. 인제문화원에서 발간한 『유적·지명·전설』에 나오는 설명(p.57과 p.304)과도 좀 다르다. 그러나 이 또한 가치 있는 전설이라고 생각하여 기록을 한다.

21) 인제문화원, 『유적·지명·전설』, 2003, p.303.

22) 신경란 편, 『대라, 틀어라, 박아라!』, 뿌리깊은 나무, 1992, p.70.

하기에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긴 했지만, 뒷사공도 앞사공이 물말기를 잘못 보는 경우에는 오히려 뒷사공이 벼랑에 부딪치거나 다치는 경우가 더 많아 위험하기는 매한가지였다. 물말기란 물의 흐름이다. 물이 걸보기에는 모두 편편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 속에 물의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다. 그 높은 골을 타고 가야 빨리 갈 수 있고 강변으로 밀려나지 않는다.

뗏목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벌목을 해야 했다. 벌목은 주로 겨울에 한다. 겨울에 벌목하여 강가에 아적한 후 우기(雨期)에 맞추어 적심을 하고, 그렇게 떠내려온 나무를 건져내어 인제읍 합강리에서 뗏목을 만드는데, 때로는 남면 부평리에서도 뗏목을 만들기도 하였다. 뗏목을 만드는 이는 사공으로 선발이 된 사람이 직접 만든다. 박해순도 사공인 외삼촌을 도와 같이 뗏목을 만들고 또 뗏목도 타보았다.

뗏목은 주로 여름장마가 지고 난 다음에 출발했다. 비가 많이 와 소양강 물이 불어나야 뗏목을 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갯때기’라고 해서 이른 봄철에도 뗏목을 운행하기도 한다. 박해순은 다행히 물이 많을 때 뗏목을 타고 다녔지만, 뗏꾼들 중에는 늦가을철 물이 줄었을 때도 떠나는 때를 본 적이 있다고 한다. 이런 뗏목을 ‘막사리’ 때라고 한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기술하겠지만 새끼목상들이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실어 나르는 경우에 종종 발생한다.

박해순은 17세부터 뗏목을 탔는데, 처음 뗏목을 탔 때는 큰외삼촌이 앞사공을 하고 박해순은 뒷사공을 했다. 당시에는 춘천까지 가는 골안뗏였다. 한 번 뗏목을 타본 박해순은 그 다음에 작은외삼촌하고 같이 또 한 번 뗏목을 탔다. 이번에도 춘천까지 가는 골안뗏였다.

뗏꾼이 되는 일도 만만한 일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워낙에 고임금이었으므로 너도나도 서로 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어려웠던 시절이라 나무는 큰돈이 되는 일이었으므로 뗏꾼으로 들어와서는 뗏목을 훔쳐 팔아버리는 경우도 발생했다. 그래서 목상들이 여간해서는 새로운 사람에게 사공 일을 믿고 맡기지 않았다. 다행히 박해순은 손용인이나 외삼촌들이 앞사공을 했기 때문에 아무 어려움 없이 뒷사공을 할 수 있었다.

나무 중에 가장 큰 나무는 부동이고, 그 다음은 궁궐이다. 이런 나무들은 굵기가 서까래보다도 더 굵다. 보통 한 동가리를 만들 때 일반 재목은 30개 정도를 엮어서 앞동가리를 만들지만, 부동이나 궁궐 같은 경우는 20개 정도만 엮어도 앞동가리가 만들어진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갈수록 나무 수가 줄어드는 형태로 뗏목을 엮는데, 부동이나 궁궐 같은 경우는 앞동가리가 20개이므로 두 번째 동가리는 18개, 세 번째 동가리는 16개 하는 식으로 줄어든다. 부동이나 궁궐보다 작은 나무를 연목, 화목, 이렇게 부른다.

나무를 벌목을 할 때에는 산신제를 우선 지내고 그 후에 근처의 나무 한 대를 베어 내는데, 그때 “어명(御命)이요”라고 소리를 지른다. 물론 같이 있던 동료들도 같이 소리를 치는데, 그렇게 해야만 지골을 입지 않는다고 한다. 지골이란 나무의 귀신으로서 옛날부터 큰 나무를 베면 나무가 넘어가자마자 나무를 베는 사람도 죽살한다는 속신(俗信)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춘천까지 가는 1바닥(5동가리) 뗏목을 골안뗏라 하고, 춘천에서 서울로 가는 3바닥 뗏목은 보통 아랫강뗏이라고 불렀다. 아랫강뗏은 바닥 3개를 이어 붙여 가기 때문에 보통 세때기라고도 부르는데, 앞사공은 2명, 뒷사공은 1명이 탄다.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많이 타는 것이다. 박해순은 1943년 청평댐이 생겨나기 전 해에 서울로 한 번 가본 적이 있다. 이때 큰외삼촌과 손용인이 앞사공을 하였고 박해순은 뒷사공을 했다. 이때가 박해순이 18살 때 일이다.

떼가 한 번에 출발할 때 스무 바닥이나 함께 출발한 적도 있다. 보통 뗏목과 뗏목 사이에는 10여 분 정도 시차를 두고 출발시키는데, 동시에 떠날 때도 있다. 그러나 속도는 제각각이어서 먼저 가는 뗏목도 있

고 조금 늦게 가는 뗏목도 있다. 물말기를 잘 타느냐 못 타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다. 그래도 뗏목끼리 부딪치는 사고는 거의 없다. 혹 떼를 타고 가다보면 여울에 걸려 떼가 부서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급히 나무를 주워 모아 다시 뗏목을 엮는데 이때 근처를 지나가던 뗏목이 있으면 같이 도와주곤 한다.

뗏목 위에 화목이나 웅기를 싣는 적도 많았다. 이럴 경우 목상은 대체로 간섭을 하지 않는데, 혹 목상이 자기의 화목을 자기의 뗏목 위에 실어 나르는 경우도 있었다. 박해순이 살고 있던 남면 부평리에는 웅기점이 있었다. 그래서 웅기를 실어 나가는 것도 여러 번 보았는데, 웅기를 실으면 뗏목이 반쯤은 물속에 들어간다고 한다. 웅기를 세는 단위는 '자래'다. 몇 십 자래씩 싣고 가면서도 웅기 하나 깨트리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 박해순은 자기 아버지의 뗏목을 운행할 때 화목을 실어 가기도 했었다.

비록 몇 번에 지나지 않지만, 박해순은 손용인과 외삼촌들이 뗏목 위에서 흥얼거리던 소리를 절대 잊지 않았다. 박해순의 총기는 남다른 데가 있어서 운율과 같이 들려오는 소리는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어먹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그분들이 주로 불렀던 소리가 바로 뗏목아리랑이었다.

아령아령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령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우수나 경칩에 물 풀리니  
합강정 뗏목이 떠내려 오네

창랑에 뗏목을 띄워 놓으니  
아리랑타령이 절로 난다

도지거리 갈보야 술 거르게  
보매기 여울에 떼 내려가네

뗏목의 서방이 좋다더니  
포아리 신연강이 하직일세 (이하 생략)

이 소리는 동네 주막에서도 곧잘 들었다고 한다. 동네의 이름난 소리꾼인 아버지가 흥이 날 때면 부르곤 했다. 박해순의 아버지는 뗏목아리랑 뿐만 아니라 강원도아리랑, 어랑타령, 정선아리랑, 청춘가, 수심가, 경기민요, 서도잡가 등 못하는 소리가 없었다고 한다. 박해순의 음악적 재질은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바가 크다.

1943년 청평댐이 들어서면서부터 춘천에서 서울로 가는 물길은 완전히 끊겨버렸다. 이후 박해순은 1944년경까지 춘천으로 가는 뗏목을 여러 번 타보았다. 그때마다 당신 집안에 장사가 났다고 그렇게 좋아하였던 조부가 이 해에 사망한다. 박해순은 당시 나이는 어렸어도 용력은 남들보다 뛰어났고 더구나 장남으로서 책임감도 갖추었기 때문에 조부는 그렇게 총애했는데, 그렇게 그 해에 조부를 떠나보내게 되었다.

박해순은 20살 되던 해에 같은 마을에 살던 동갑내기 처녀 경주 이씨 이장생(李長生)과 결혼을 했다. 그 후로는 농사일을 하면서 뗏목 일은 하지 않았다. 위험한 일이라 신혼의 박해순이 뗏목을 할 마음이 없

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차에 1945년 조국 광복을 맞이하였다.

당시 1945년 조국광복은 인제군을 남과 북으로 완전히 갈라놓아 버렸다. 38선이 바로 인제군을 지났기 때문이었다. 남과 북으로 갈린 마을에서는 저마다 마을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대한청년단을 조직하여 자체적으로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 청년 박해순도 대한청년단에 가입하여 감찰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당시 인제읍은 이북이었고 남면 부평리는 이남이었다. 그런데 1946년 5월에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물줄기를 따라 북에서 뗏목에 4동가리가 묶여진 뗏목이 내려온 것이었다. 보통 뗏목 1바닥은 5동가리여 야만 되는데, 이것은 4동가리에 불과하지만 앞그레, 뒷그레까지도 모두 갖추어진 것이었다. 그래서 동네의 젊은이들 셋이서 이 뗏목을 가지고 춘천으로 가서 팔아보자고 하였다. 그러나 부평리 아래로도 물줄기를 따라 이남이었다가 이북이었다가를 반복해야만 했기에 뗏목을 운송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남면 부평리로 내려온 뗏목을 당시 박해순, 박덕근, 이성준, 이렇게 세 명의 혈기방장한 젊은이들이 밤을 이용하여 춘천으로 끌고 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어디쯤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곧바로 북한 보안대에 잡혔다. 보안대는 이남의 경찰에 해당하는 집단이었다. 당시 셋이서 뗏목을 끌고 내려갈 적에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저마다 참나무로 나무방망이를 하나씩 만들어 갖고 뗏목을 땀었다. 북한사람이 덤비면 그것으로 대적하려고 하였다.

물이 깊은 곳에서는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물이 깊으니 북한 사람도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물이 얇은 여울목에선 문제가 달랐다. 북한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라 떼거지로 덤벼드니까 할 수 없이 뗏목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강가로 기어 나왔는데 하필이면 그곳도 이북 땅이었다. 그래서 급히 인근 산 속으로 피신하면서 날이 밝으면 내려가려고 산에서 밤을 지새우기로 하였다.

문제는 그 다음날 해가 밝으면서 발생했다. 셋이서 아침 9시경이나 되었을까 총을 맨 북한 보안대 두 명에게 발각 당한 것이었다. 북한 보안대원들이 날이 밝기가 무섭게 산 속으로 이들을 찾으러 나온 것이었다. 이들 세 명은 보안대원들에게 사정 얘기를 했으나, 보안대원들은 이들 젊은이 셋에게서 남한 사정을 염탐하려고 보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세 명이 서로 눈치를 맞추면서 이들을 해치우기로 하였다.

당시 담배는 지금처럼 갑담배가 아니고 봉지담배였다. 그래서 박해순이 담배를 피우는 척하면 박해순과 이성준 두 명이 한 사람을 당해내기로 하고, 나머지 보안대 한 명은 박덕근이 혼자 감당해내기로 약조하였다. 그렇게 약조를 하고 보안대원들에게 끌려서 하산을 하다가 강변에 이르렀을 때 마침 그곳에 인가가 한 곳 있었다. 셋이서 그곳에 들어가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맹탕을 치다가 뱃땀을 붙이면서 신호를 했다. 그곳에서 보안대원 둘을 해치우고 그들 총을 빼앗아 산으로 도망을 쳤다. 그 산을 넘어오니 바로 신남(남면)이었다. 지금의 신남 휴게소가 있는 곳이었다. 그곳 지서에 북한 보안대원에게서 빼앗은 총 두 자루를 건네주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 해 겨울에 박해순은 경찰에 투신한다. 당시 박해순의 나이 22살 때였다.

1946년 12월 6일에 첫 발령을 받았는데, 첫 부임지가 인제경찰서 신남지서였다. 당시 인제읍은 미수복지구역서 오늘날 흥천군 두촌면에 인제경찰서가 자리했었다. 그렇게 한 1년을 근무하다가 1947년 8월에 철도경찰로 진출되었다. 철도경찰이란 공비가 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철도에 타고 다니면서 기차를 보호하는 경찰을 말한다. 당시 철도경찰 역시 치안국 소속이었다.

철도경찰로 처음 부임한 곳은 대구대(隊) 소속 경주지대였다. 당시 대구대는 대구뿐만 아니라 경주, 영

천, 울산 등지를 모두 관할하고 있었다. 박해순은 이곳 경주지대에 근무할 당시 한국전쟁을 맞이했다. 그리고 떨어져 있던 아내와 가족들을 경주에서 다시 상봉을 했다. 박해순은 이렇게 철도경찰로 근무를 하다가 한국전쟁이 휴전할 무렵에 인제경찰서로 다시금 복귀를 했다. 이렇게 경찰 생활을 11년을 봉직했으나 당시의 어지러운 정치 현실에 염증을 느끼고 뜻한 바 있어 사표를 내고 나왔다. 그 후 사업을 시작하면서 틈틈이 인제의 문화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관내 단위조합장을 6년 봉직하고, 다시 축협 조합장을 6년 봉직하면서 차츰 인제군의 문화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공부할 요량으로 인제문화원 일을 보기 시작했다. 1996년 문화원 이사를 시작으로 인제문화원 원장으로 3년간 재임하고 2000년에 후임 방효정 원장에게 인계하였다.

박해순이 자신이 그전에 즐겨 불렀던 소리가 바로 뗏목아리랑이란 것을 알게 된 것은 강원대학교 학술 조사단을 만났을 때였다. 당시 박해순은 인제문화원 이사로서 1985년경 강원대학교 최승순, 박민일, 최복규 교수와 같이 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그분들이 “뗏목아리랑을 아냐?”고 물기에 모른다고 했다. 그런데 그분들이 들려주는 소리는 춘천에 있는 이태순의 뗏목소리라고 하였지만, 가만히 들어보니 예전에 아버지나 외삼촌들이 즐겨 부르던 소리였다. 다만 가사에 뗏목이 들어가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내가 할 줄 안다고 교수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다면 한 번 해 보라 하기에 즉시 불러본 적이 있었다.

이를 인연으로 1985년 제3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인제뗏목》으로 참가하여 우승을 한 후 강원도대표로서 그 해 강릉에서 열리는 제2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인제 뗏목군 소리》란 이름으로 참가할 수 있었다. 이때 소리는 박해순이 직접 지도하고 소리를 하였다. 당시 혼자서 소리를 할 수가 없어서 인제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뗏목아리랑을 비롯한 인제의 소리를 지도한 바 있다. 박해순은 또 숲가마 등치는 소리, 같이남박소리 등 전통소리를 보유하고 있어서 인제군이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할 때마다 여러 소리를 지도하였다. 그 후로도 출공 인제군의 뗏목소리를 전승시키기 위하여 인제문화원에서 후학들에게 인제의 소리를 지도하면서 지역문화에 한없는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북면 월학리에 뗏목연구소를 개소했다.

슬하에 2남2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서울에 살고 있고, 인제읍에는 장녀와 같이 있다. 차남과 차녀는 현재 울산에 거주하고 있다.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공로로 1989년에는 강원도문화상(전통예술부문)을 수상하였고, 1995년에는 제13회 인제군민대상도 수상하였다. 그 외 1988년에는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감사패도 받았고, 이듬해엔 동아일보로부터 또한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도 감사패 및 수상을 하였다.

## 2. 적심꾼 방범수(方範守)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적심꾼 방범수(方範守)는 영월군 수주면 운항리에서 1919년 10월 10일(음력)에 출생했다. 온양 방씨로서 3형제 중의 장남이었다. 방범수는 20세 되던 해에 인제군으로 이사를 왔다. 그 전까지 살던 영월과 비교하면 인제는 살기가 한결 나았다. 당시 일제강점기 때 영월은 공출이 무척이나 심하였다. 관에서 일정량을 강제로 할당을 했는데, 그 량이 너무 많아 할당량을 맞추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19살 되던 겨울에 아버지와 함께 기린면에 올 일이 있었는데, 와보니 공출이 상대적으로 적어 살만하다고 느껴졌다. 할당량은 관에서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내고싶은 만큼만 적어내면 되었

다. 그래서 부모님이 인제군 기린면으로 이사를 오기로 결정했고, 이듬해 방범수가 20살 되던 해에 드디어 인제군 기린면으로 이사를 왔다. 그렇게 방범수의 인제군 삶이 시작되었다.

방범수의 인제군 삶은 도전과 개척의 삶이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인제군으로 이사오자마자 이듬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3형제 중의 장남이었던 그가 실질적으로 가장 노릇을 해야한 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두 동생들 나이는 11살과 9살이었다. 지금 그 동생들은 서울과 원주에 살고 있다.

그때부터 방범수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했다. 당시 산판이나 적심은 상당히 고임금을 보장해주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20살부터 적심을 시작했고 25살부터는 산판일도 직접 뛰어들어 하기 시작했다. 그의 삶을 적심과 산판 두 부분으로 나누어 아래에 기술한다.

### 1) 적심

그가 처음 적심을 한 것은 이기용과 김용갑이 목상을 할 때였다. 다행히 두 분은 기린면 분들로서 평소부터 안면이 있던 터였다. 그러나 그 후부터는 외지 사람들이 목상으로 많이 찾아왔다. 지금 그분들 이름은 기억하지 못한다.

적심이란 내린천 물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나무가 강변에 걸리면 물을 타고 흐르도록 떠내려보내는 주는 일을 말한다. 주로 상남면에서부터 시작하여 내린천 물줄기를 이용하여 나무가 떠내려오는데, 이 나무를 합강까지 보내주면 되는 것이었다. 당시 김매는 일당이 10전이고, 조금 힘든 일 같으면 15전을 받던 때였는데, 적심을 하면 평균 40전, 50전을 받았고 더구나 쌀밥에 참까지도 먹었으니 상당히 고임금이라 할 수 있었다.

일당이 아니라 유하(流下)로 도급을 받아 일을 할 때도 있었다. 유하란 일정 구간의 적심을 책임지는 이른바 도급제와 비슷한 것이었다. 유하로 할 경우 물의 흐름이 좋기만 하다면 평균 일당이 70~80전까지도 올라 갈 수가 있었다. 그러나 물이 적으면 오히려 평균일당이 감소할 수도 있었다. 방범수는 유하의 3단계 구간 중 2단계 구간에서 주로 적심을 했다. 상남면에서 흘러오는 나무를 현리 앞 배소까지 맡아하는 팀들이 1구간이라면, 배소에서부터 하답까지 맡아 하는 팀들이 2구간이었다. 3구간은 하답에서부터 합강리 거무세기까지 맡아 하였다. 1구간은 주로 상남면 사람들이 맡아서 하였고, 기린면 사람들은 2구간을 주로 맡았고, 3구간은 인제읍 사람들이 주로 맡았다.

공가(노임)는 선불로 주지 않는다. 물론 필요하면 다소간 얼마를 준다. 일이 다 끝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목상이 계산을 하여 준다. 때로는 일당을 때먹고 도망치는 목상도 있다. 물론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인제군에 발붙이기 힘들지만 그런 사람이 간혹 있었다. 짚신은 목상이 대주는 경우가 많은데, 혹 짚신 값을 공가에서 제외하면 공가가 그만큼 비싸진다.

적심은 지렛대 하나만 가지고 한다. 지렛대는 물푸레나무로 만든다. 보통 네 자 길이다. 물에 빠질 때도 있기에 해염을 칠 줄 알아야 적심을 한다. 적심은 주로 6월부터 했다. 장마철은 적심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다. 물의 흐름이 빨라 쉬이 나무를 찾아 떠내려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물이 불어나 암초에 걸린 나무를 데미 떨 때에는 위험하기도 했다. 적심을 하는 이들은 필수적으로 해염을 잘 쳐야만 했다.

사실 적심을 하는 계절은 농사철하고 겹치므로 어떤 때는 농사일이 급하면 적심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일당의 차이가 심하므로 어떤 때는 품파는 사람을 써서 농사를 짓게 하면서 본인은 적심



을 하러 갈 때도 있었다. 그러나 품파는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으므로 농사가 한창일 때는 아무리 많은 돈을 쥐도 적심을 못할 때도 있었다. 보통 아이집을 매고 여유가 있어야 적심을 시작한다.

적심은 물론 계속 내려가면 8~9월까지도 할 수 있다. 적심을 할 적에는 보통 5~6명이 한 조를 이루는데 많을 때는 10명이 한 조를 이루기도 했다. 강 양쪽으로 갈라서서 하는데, 물이 깊은 소에는 직접 헤엄쳐 들어가기도 했다. 하천 중간 곳곳에 암초가 많았다. 그래서 나무가 걸리면 그 위에 또 나무가 걸리고 해서 마치 모양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 일행 중에서 반장이 들어가 그 더미를 풀어헤친다. 적심꾼들은 적심을 하러 나가기 전에 반장을 뽑는다. 이른바 ‘오야가다’이다. 철떡꾼이라 부르기도 했지만, 잘 사용하는 말은 아니었다. 나무가 많이 쌓이면 ‘데미를 푼다’고 하여 적심꾼 여럿이 참여를 했다.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평상시 갖고 다니던 지렛대 하나만 갖고 들어가 그 일을 했다. 방법수도 여러 번 데미를 풀러 들어가곤 했다.

적심을 하러 나갈 때 특별한 금기사항은 없다. 워낙에 없이 살던 때라 가리고 뒹고 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적심을 나가면 하루에 밥 3끼, 찜 2끼가 나온다. 찜은 오늘날과 같은 그런 찜을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저 목을 축이라고 나오는 막걸리 한 사발과 김치가 전부다. 어려웠던 시절이라 그것만해도 대단한 참이었다. 밥도 쌀밥을 먹는다. 평상시에 잘 먹어보지 못하는 쌀밥이지만, 이때만큼은 쌀밥을 먹을 수 있다.

복(服)지기가 있다. 적심꾼들의 옷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인데, 굶은 일을 도맡아 했다. 보통 1명을 두는데, 주로 나이가 많거나 헤엄을 잘 치지 못하는 분들이 했다. 또한 복지기는 적심꾼들이 먹을 쌀을 짊어지고 다닌다. 평상시 오늘은 어디에서 점심을 먹고 아침을 먹고 미리 예약을 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때로는 예약이 안될 경우 즉시 현장에서 밥해줄 집을 물색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적심꾼들의 집에서 해먹는 경우가 많다. 그들 집에 특별히 수고비를 주지는 않는다. 다만 밥을 해주는 집안 가솔들과 적심꾼들이 모두 같이 한끼 끼니를 떼울 수가 있으므로 그것으로 수고비를 충당하는 셈이다. 더욱이 평상시 조밥이나 옥수수밥을 먹다가 쌀밥을 먹을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 밥해주는 집들이 고마워하기도 한다. 물론 나올 적에 쌀을 조금 덜어 주는 경우도 있다. 반찬은 특별한 것이 없다. 보통 김치면 된다. 이런 일들은 모두 복지기가 해야 한다. 대동아전쟁이 한창일 때는 쌀밥 대신 보리밥에 콩을 넣어 먹기도 했다.

여러 날을 일하다보면 힘들기도 하여 적심을 하는 이들이 저마다 추렴을 하여 돼지를 잡기도 한다. 당시에는 돼지껍질도 주요 공출 품목이었다. 그래서 돼지를 잡으려면 관에 신고를 해야 했다. 당시 작은 돼지 한 마리 가격은 3원에서 5원 정도였다. 그렇게 하루를 돼지고기를 먹고 남은 고기는 각자 나누어 집에 갖고 갔다. 물론 돼지를 잡아먹은 집에도 일정량을 나눠주었다. 반찬은 김치가 전부였다. 요즘에야 과일 이 흔하지만 그때는 과일이란 것을 구경도 하지 못했다.

옷은 당시 주로 삼베옷을 입었다. 신발은 짚신인데, 적심신이라고 따로 있었다. 좀 물렁하게 신발을 삼았는데 개인별로 구입해서 사용했다. 1족에 30전이니, 1족을 구입하여 나눠 쓰기도 했다. 1켄레에 3전 꼴이다. 물 속에 들어가 일을 하므로 혹시 신발을 안 신고 일을 하지 않나 오해할 수도 있지만, 신발은 반드시 신었다. 왜냐하면 물 속의 돌들이 미끄럽고, 강가에 자갈이 많아 한여름 띄약벌에서 일을 하다보면 돌들이 화로처럼 뜨겁게 달아 있기 때문이었다. 워낙에 비싼 값이라 적심꾼들 중에는 자기가 직접 신발을 삼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많았다. 이 짚신도 복지기가 갖고 다닌다.

적심을 나가면 단체생활을 한다. 하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침 6시경이면 벌써 일터로 나가는데 그전에 아침을 해먹는다. 해가 저야 일이 끝난다.

적심을 하러 나가면 적심꾼들은 보통 팬티 한 장만 걸치고 일을 한다. 사람들도 많지 않던 시절이어서

초보자들은 팬티마저도 벗어 던지고 맨몸으로 일을 할 적이 많다. 어차피 하는 일이 물 속으로 들어가 나무를 하친 복판으로 끌어내는 일이므로 팬티마저도 벗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은 그 당시 팬티 자체가 없었기에 맨몸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가 합강정 근처에 가면 근처에 여자들이 나와 있다가 훌쩍 벗은 몸을 보고는 키득거린다. 사내들이 부끄러워 불알을 움켜쥐고 있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럴 경우 그 여자들이 더 짓궂게 말을 한다. “물가 좇은 개좇인데 흔들면 어머니?” 대개 그런 아줌마들은 술을 파는 아줌마들이었다.

배소에서 합강리까지는 70리 길이다. 이 길을 적심을 하면서 가자면 보통 20일은 걸린다. 강은 꾸불꾸불하므로 사실 70리가 더 된다. 갈보가 있는 주막은 없으나, 선술집은 많았다. 5전짜리 술 한 사발, 10전 짜리 술 한 사발, 이렇게 사발로 술을 팔았다. 물론 안주는 김치이며 술을 마시면 안주는 공짜였다. 그런 대포집들이 하추리에 두서너 집, 하답에 서너 집이 있었다. 그 외 일을 하다가 술을 먹고 싶으면 복지기에게 말을 한다. 그러면 복지기가 막걸리를 통자로 사갖고 온다.

당시 술을 파는 아줌마들은 나이가 30살~40살 정도 되었는데, 합강리에 가면 볼 수 있었다. 20대 아가씨는 없었다. 집에서 술을 파는 주모가 있었고, 술을 갖고 다니면서 파는 들병장수도 있었다. 들병장수는 갈보라고 부르고, 술집아줌마는 주모라고 불렀다. 나이가 든 여자들은 얇은 하늘색 치마에 반호장 하얀 저고리를 주로 입었고, 젊은 여자들은 분홍치마 노랑저고리를 입었다. 당시 나이 든 적심꾼들이 있어서 30~40대 아줌마들이 많았다. 사실 적심을 할 때는 바쁘니까 들병장수와 노닥거릴 시간은 없었다. 그러나 밤에는 주막에서 노닥거리기도 할 수 있었다. 이때 이들이 주로 불렀던 소리는 정선아리랑, 노랫가락, 창부타령, 수심가, 난봉가, 청춘가 등이었다. 때론 경기민요도 했으나 그러나 서도소리나 유행가는 하지 않았다.

당시 같이 적심을 하던 분은 대부분 마을주민들로 전갑운(방법수보다 1살 아래) 김동수(방법수보다 몇 살 아래) 등이 있고, 이중 오야가다는 김동수의 형으로 나이는 방법수보다 서너 살 많았다. 모두 기린면 서리에 있는 마을에 살았는데 방법수는 응짓말에 살았고 김동수는 양짓말에 살았고, 전갑운은 골말에 살았다. 이들은 노름은 거의 하지 않았다.

적심을 하다보면 기린천 곳곳에 암초 덩어리가 있다. 이를 촛돌이라고 불렀다. 1945년경이 이를 깨트리려고 공사를 하던 것을 보았으나 조국 광복이 되자 공사가 중단된 것을 보았다.

혹 적심을 하다보면 강물에 흘러가던 나무를 민가에서 주워 가는 경우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궁궐이나 부동철 커다란 나무는 사용을 하자면 남의 눈에 쉽게 띄이므로 잘 하지는 않지만, 작은 나무들은 간혹 민가에서 사용하기 위해 갖고 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감시하기 위해 특별히 목상이 사람을 고용하지는 않았다. 적심꾼들이 적심을 하면서 강물을 훑어 내려가다 보면 자연스레 발견이 된다. 만약이 발견이 되면 큰일이 발생하기에 사실 그렇게 민가에서 나무를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목상들은 적심꾼들과 동행을 하지는 않았다.

## 2) 산판

방법수는 25살 무렵부터 겨울이면 산판을 했다. 산판은 초겨울부터 시작하여 이듬해 2월까지 주로 한다. 벌목을 여름에 하면 나무에 물이 올라 있어서 나중에 재목으로 사용을 하여도 쉬이 뒤틀린다. 그래서 나무에 물기가 다 빠져버린 겨울이 되어 날씨가 추워져야만 벌목을 할 수 있었다. 산판도 땃목처럼 1945

년 조국광복이 될 무렵까지 성행했다.

방법수가 일했을 당시 목상들 중에서 이기용, 김봉갑 등 동네 사람들은 기억을 했으나, 외지 목상들은 기억을 하지 못했다. 이기용은 기린면에서 가장 크게 목상을 했는데, 나중에는 기린면장까지 지냈다고 한다. 이기용의 5형제 중 4형제가 목상을 했다고 하여, 그 후손들을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김봉갑도 기린면 사람으로 이기용보다 는 두 살 정도 어렸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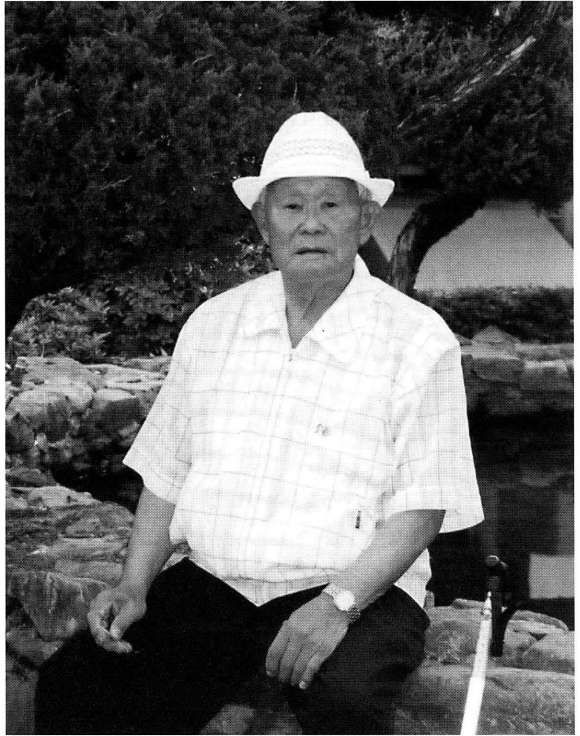
산판을 하러 갈 적에 부정을 탄다고 하여 특별히 조심하는 것은 없었다. 음식도 귀한 시절이라 가려먹는다는 사치에 불과했다. 하루 세 끼 먹기도 힘든 시절이었다. 산판은 적심과는 달리 하루 세 끼 식사를 저마다 제각기 해결을 했다. 아침과 저녁은 집에 가서 먹고, 점심은 도시락으로 해결을 했다. 도시락이 야 조밥이나 옥수수밥에 반찬으로 는 김치가 전부였다. 제각기 식사를 해결하므로 적심처럼 목상이 주는 참은 없었다.

일반적으로 산판은 인부들이 목상을 찾아가 도급을 받는 경우와 목상이 도급을 주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방법수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같이 목상을 찾아가 도급을 받아 일을 많이 했는데, 당시 일당은 70전~80전이 보통이었다. 산 하나를 산판 해주는 대가로 얼마를 요구하는데, 그것을 일당으로 계산해보면 보통 70~80전 정도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악산(惡山)을 만날 경우는 그보다 못나올 때도 있었고, 간혹 쉬운 산이 나오면 더 나올 수도 있었다. 도급을 받아 일을 할 경우 보통 7~8명이 한 팀을 이룬다. 일 하는 시간은 아침 해 뜰 적에 나가서 해가 질 무렵까지 일을 했다.

산판은 인제읍 상남면에서 주로 했는데, 인제읍 기린면에서는 방동리, 서리 뒷산에서도 간혹 했다. 수종은 주로 소나무였으며, 길이는 22자 길이로 잘라 낸다. 아래와 위에 도끼로 구멍을 내어놓는데, 이렇게 구멍을 내어놓으면 운목(運木)하기도 편리하고 뗏목을 엮을 때도 유용하다.

산판을 하는 동안에 목상은 잘 찾아오지 않는다. 산판꾼들이 목상을 보는 경우는 처음에 산신제를 올릴 때뿐이다. 목상이 주과포를 갖추고 돼지도 잡아 술을 한 잔 부어놓고 큰 나무에다가 절을 한다. 이때 사용한 돼지를 목상은 산판꾼들에게 나눠 먹는 경우가 많다.

산판을 할 때에는 두 명씩 짝을 지어 올라간다. 한 명은 톱질꾼인데, 톱질꾼은 톱 쓰는 줄과 톱을 훑치



적심꾼 방법수

기(주루먹 같은 것)에 넣어 갖고 올라간다. 다른 한 명은 도끼, 갓칼(나무껍데기 베는 칼)을 갖고 올라간다. 이렇게 두 명이 한 팀을 이뤄 벌목을 한다.

벌목하는 나무는 관에서 허가한 나무만 벌목을 해야 한다. 보통 검(儉) 자가 한자로 찍혀있다. 벌목한 나무를 운반할 때 목도를 했다. 앞에서 둘이 목도를 하면서 나무를 질질 끌고 하산하는데, 나무가 제법 큰 것은 4목도로 했다. 또 통길을 만들어 운반도 하고, 심지어는 그냥 산 아래로 굴리기도 하였다. 이렇게 목도를 하는 것은 가을이나 봄이 올 무렵이고, 눈이 한창 쌓인 겨울에는 소를 이용하여 하산을 했다. 소로 끌 적에는 쇠로 만든 고리를 장만한다. 당시 이 쇠고리줄 가격이 쌀 한 말이었다고 한다. 이 줄을 이용하여 벌목한 나무와 소를 연결한다. 물론 소에도 썰레 비슷하게 쇠고리줄을 연결할 장치를 한다.

방범수는 24살에 양양군 서림리 출신 김규옥(1927년생)과 결혼을 해 슬하에 3남1녀를 두었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과 경기도에 살고 있다. 2005년 2월에 자식들이 있는 경기도로 이사를 왔다. 지금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1702번지에 살고 있다. 인제에 있을 적에는 논 열 마지기에 밭 2천 평에 옥수수과 감자 콩들을 재배했고, 고추나 배추 등은 집에서 먹을 만큼만 재배를 해 자급자족을 했다.

### 3. 손천유(孫天有)와 천유송(川流送) 공사

손천유는 1924년 양구에서 출생하였다. 본래 선향은 인제군 기린면이었으나 할아버지가 양구로 잠시 가 있었을 때 태어났다. 그러나 손천유가 7살이 되던 해에 다시 기린면 서리로 이사를 왔다. 이후 한국전쟁이 휴전되면서 원통이 수복되자 1955년경에 원통으로 이사를 와 현재까지 살고 있다. 그동안 인제군 향교 전교를 역임했고 슬하에 3남2녀를 두었다. 천유송 공사는 손천유가 젊었을 적, 그러니까 1945년 광복이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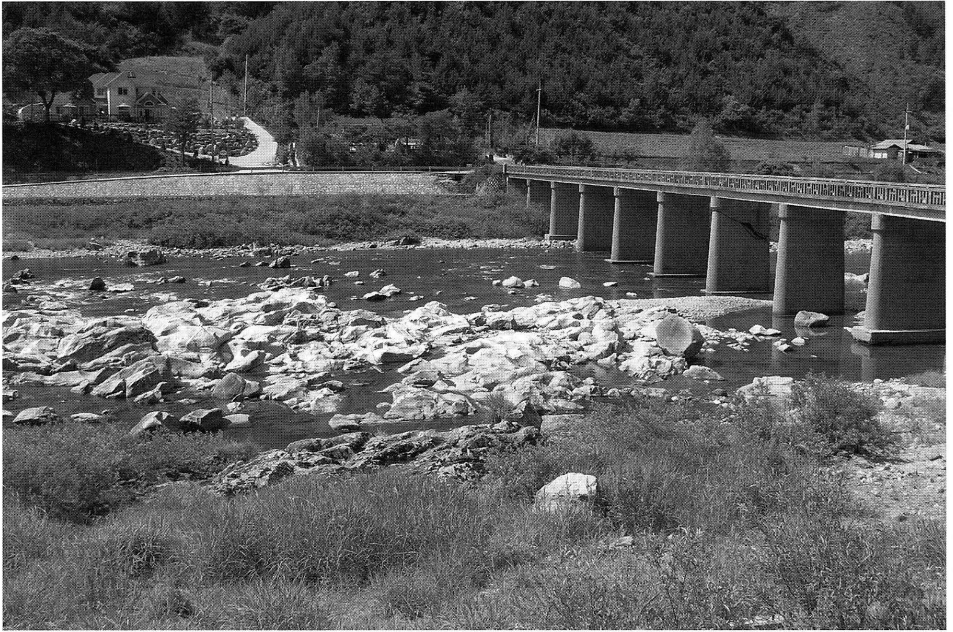
#### 1) 천유송 공사

내린천은 흥천군 내면이 발원지다. 흥천군 내면은 행정구역이 자주 바뀌었다. 한때는 인제군이었다가 또 흥천군에 속했다가 이런 식으로 몇 번이나 변경된 끝에 지금은 흥천군에 속하게 되었다. 내면에서 흐르는 물이 기린면을 통해서 인제로 가기 때문에 앞의 두 글자를 따 내린천이라 부른다. 내린천은 위낙에 물이 맑아 쓰가리, 눈치, 어름치, 메기, 모래무지, 꺾지, 쉬리 등 없는 고기가 없다. 열목어도 상남면에 가면 지금도 볼 수가 있다. 이렇듯 물고기가 많으니 수달도 많다.

내린천으로 올라가다 보면 서리 근방에 다리가 나온다. 물론 그 다리는 최근에 세워진 다리다. 1945년경 지금의 그 다리가 있는 곳에서 암초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었다. 암초가 많아 적심을 할 적에 나무가 많이 걸리므로 암초를 폭발시켜 없애는 일을 한 것이었다. 이런 암초를 동네분들은 촛돌이라 불렀다. 손천유가 살았던 이 근방에 유독 촛돌이 많았었다.

1945년경에 일본인이 한국사람 인부를 8명 데리고 이곳에 왔다. 한국인 인부 8명 중 1명은 베림질을 하는 사람이었다. 나머지 7명은 폭발전문 일꾼들이었다. 촛돌에 구멍을 파고 그 속에 다이너마이트를 넣

고 폭발시켜 쪼들음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 손천유와 동네사람 1명은 이들이 쪼들에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징, 망치 등이 무디어지면 수거하여 베림질 하는 곳으로 갖고 오고, 다시 베림질 하여 갖다주는 잡부 역할을 했었다. 동네분은 오해수 부친인데, 당시 그분은 연세가 지긋했었던 걸로 기억한다.



천유송 공사현장

베림질 하는 장소는 지금 간이정류장 있는 곳 뒷산에 장소를 마련해놓았다. 바로 그 옆에 산에서 흘러 나오는 물줄기도 있어서 베림질을 하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이렇게 강속에 있는 쪼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천유송(川流送) 공사라 불렀다. 냇물에 흘려서 보낸다는 뜻이다. 당시 이 일은 한 달여를 하다가 8.15 조국광복이 되는 바람에 중단했는데, 그래서 이름조차 아는 분들이 드물다.

당시 일본인 소장이 자전거를 한 대 갖고 왔었다. 그 자전거가 읍내와 교통하는 강력한 운송수단이였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손천유는 다음과 같이 전해준다.

… 낮이 되었는데, 그 소장이 가서 막걸리를 한 통 사오라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가니까 항복했다고, 일본놈이 항복했어, 어찌구 하더라구. 수근수근거리더라구. 그래서 술을 사 갖고 와서 그런 소리를 했지. 그랬더니, 나 “이거 빠가야로” 그러더라구. 그릴 리 없다 이거지. 일본이 절대 항복을 안 한다 이거지. 가 보라고 그랬더니,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더니, 갔다오더니, (일을) 하지 마라 그러더라구. 당시 식당 같은 것이 있을 리가 없었다. 보통 민가에다가 쌀을 갖다주고 밥을 해달라고 하면 쌀로

계산을 했는데, 1인당 하루에 6두(斗)씩으로 계산을 했다. 그렇게 계산한 6두에는 일반적으로 반찬 등 부식대도 포함이 되었다. 당시 일하던 사람들은 먹기도 많이 먹었다. 그래서 민가에서 밥을 해주어도 그렇게 많이 남지는 못했을 것이다.

## 2) 기타

이곳 서리를 지나가는 도로는 당시에 돌로 깔려 있었다. 그러나 이 도로를 통하여 나무를 실어내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해도 관에서 이 도로를 그냥 썩히지 만은 않았다. 장마가 지거나 해서 풀이 무성해지면 동네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도로에 풀이 자라는 것을 제거했다. 이렇게 큰 도로가 돌로 깔렸으므로 이 길로 목상들이 지나가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가 있었다. 기린면에서 유명한 목상으로는 이기용이 있다. 그 밑에 동생 이홍준, 이용봉, 이종혁 등 5형제 중에서 4형제가 모두 목상을 했다. 이기용처럼 유명한 목상 외에도 심영재라는 기린면 서리 출신 목상도 있었다. 그리고 아주 큰 대목상들은 서사라고 하여 새끼목상들을 주로 보냈었는데, 이들도 수시로 볼 수 있었다. 이기용이나 심영재 같은 분들은 당시에 기와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 후대는 지금은 알 수 없다. 옛말에 나무 그루터기가 썩으면 나무를 벤 자도 썩는다는 말이 있다고 한다.

목상과 관련이 있는 전설도 있다.<sup>23)</sup> 지금 합강리 합강정 뒤에 보면 돌미륵이 있는데, 어느 목상이 꿈을 꾸었는데 합강리 앞 냇가에 빠져 있는 돌미륵을 건져달라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깨어난 그 목상이 사람들을 동원하여 물 속을 뒤져보니 돌미륵이 하나 나왔다고 한다. 그 돌미륵을 지금 합강정 바로 앞길에다가 세워놓았는데,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이 그 곳에 토치카를 세우느라고 돌미륵을 물 속에 다시 집어넣어 버렸다. 그걸 다시 찾아내어 지금은 합강정 정자 뒤에 세워놓았다. 그 후에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나돌았는데, 그 돌미륵의 코를 베어먹으면 아이 못 낳는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다는 소문이었다. 그래서 돌미륵의 코를 베어 가는 옷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다. 지금 그 돌미륵을 살펴보면 코부분이 뭉개져 있음을 알 수 있다.

20대에 산판에도 쫓아 다녔기 때문에 그분들 얼굴은 대강 기억을 한다. 산판을 하러 가면 나무를 벤



이한길과 손천유

23) 인제문화원에서 편찬한 『유적·지명·전설』을 보면 방명천이란 목상이 친구 김성천에게 부탁하여 꺼낸 석주를 가공하여 만든 것으로 나와 있다.

그루티기에는 앉지 마라고 한다. 동티 입는다고 하는데 나무귀신이 쓰이면 오래 살지 못한다는 말이 있었다. 그리고 산판을 할 때 가장 큰 나무는 아무래도 신령스럽다 하여 꺼리는 바가 있었다. 보통 이럴 경우 “어명이오” 하고 소리를 치는데, 예를 들어 논둑 같은 데 큰 나무가 있어서 베고 싶을 경우에도 직접 나무를 베지 않고 관에 부탁을 하여 베도록 한다. 그래서 관에서 나와 어명으로 벨 경우 동티가 덜 난다는 믿음에서 비롯한 것이다.

당시 산판을 할 때 보면 목상과 계약을 하는데, 계약 내용은 재(일본말로 사이)당 얼마로 계약을 했다. 한 재라 하면 열두 자 길이에 사방 1치정도 되는 길이를 말한다. 이렇게 나무를 벌목을 해서 강가까지 운반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계약을 했다.

재목 중에 가장 굵은 것을 부동이라 했다. 부동보다 약간 작은 것을 궁궐이라 했다. 부동이든 궁궐이든 모두 엄청난 크기였다. 보통 4자, 9자, 12자 크기로 자르는데, 12자보다도 훨씬 커야만 궁궐이라 부동이라 그랬다. 또 일본말로 로꾸라 부르는 톱이 있는데 그것으로 철로목이라 하여 네모지게 자른 재목도 있었다.

사실 손천유의 조부 손치명도 유명한 뗏꾼이었다. 지금 살아 계신다면 142세는 되었을 것이다. 손천유의 부친은 농사도 지었지만 산판도 많이 했다. 손천유 역시 산판도 해보았으나 적심은 하지 않았다.

손천유는 적심을 하지는 않았지만 마을이 기린천변에 위치한 관계로 적심하는 이들을 수시로 볼 수가 있었다. 적심이란 강가에 붙어 있는 나무나 촛돌에 걸려 있는 나무를 끄집어내어 잘 흘러가게 만드는 일을 하는 이들이었다. 이들이 신는 짚신은 다른 짚신과는 달리 대강 만들었는데 그런데도 가격은 똑같은 값을 받았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만든 신발에 비하면 비싼 편이라 할 수 있다.<sup>24)</sup> 적심을 하는 이들을 뒤탈며 굶은 일을 하는 이들을 복지기라 불렀다. 적심을 하는 사람은 옷을 벗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 옷을 보관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들을 복지기라 불렀다.

합강리엔 주막도 많았다. 뗏목을 묶어 타고 가는 사람을 뗏사공이라 그러는데, 그들은 사실 아주 위험한 직업이다. 나무를 매어 뗏목으로 만들어 타고 가다가, 급류나 돌이라도 걸려서 뗏목이 뒤집히기라도 하면 위험하니 뗏꾼들은 술을 아주 많이 먹었다.

합강리엔 주막도 많았지만 들병장수도 많았다. 당시 집에서 만들어 파는 밀주는 단속이 워낙에 엄했기에, 대부분 양조장에서 만든 술을 갖다가 팔았다. 당시 매월마다 단속이 나왔던 것으로 손천유는 기억을 했다.

인제에는 “인제가면 인제오나 원통해서 못살겠네”라는 말이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가네는 사실 가내고개가 전성되어 생겨난 말이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병으로 동원된 6개 읍면 주민들이 가내고개를 넘어 인제읍으로 모였다. 그래서 인제로 가내고개만 넘어가면 소식이 없다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한다. 그 가내고개는 지금의 군축령이다. 예전 3군단이 있던 길을 확장하면서 군대가 만들었다고 하여 군축령이라 이름이 붙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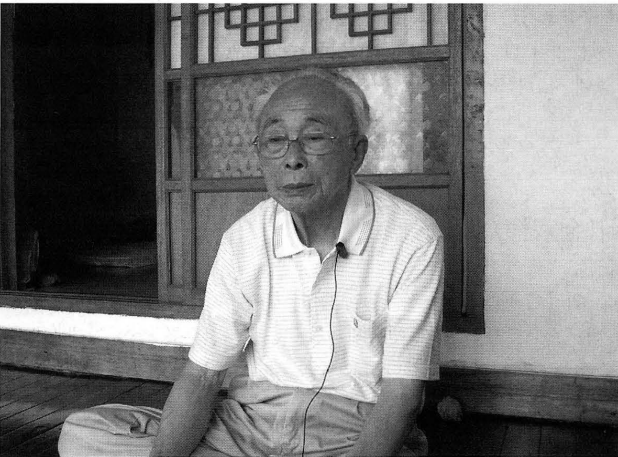
24) 앞에서 언급한 방법수의 의견과는 상이한 부분이나 두 분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모두 채록한 대로 기재했다.

#### 4. 매목(賣木)과 김춘봉(金春鳳)

1910년 12월 30일생인 김춘봉도 인제 토박이다. 조부 때 충청도에서 인제읍에 정착한 이래 졸곧 인제에 살고 있다. 그는 22살에 영림서 산하 산림보호국에서 산림간수로 근무했는데 당시 첫 근무지가 원통이었다. 원통에서 산림간수로, 또 산림주사보로 근무하다가 인제읍 남동리 조림사업소에서 2년을 근무한 다음 철원으로 가 그곳에서 1945년까지 근무를 하다가 조국이 광복이 되고 38선이 그어지자 월남하여 기린면에 살다가 인제읍이 수복이 된 후 이곳에 정착하였다.

김춘봉이 처음 원통에서 근무를 할 적인 1920년 초중반 무렵에도 인제 합강리에서는 떼가 많이 나갔다. 당시 합강리에 흘러온 나무는 대체로 내린천 쪽에서 적심해 온 나무였다. 인북천 쪽에서는 나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다. 설령 인북천쪽에서 나무가 적심을 했다면 그것은 원통에서 흘러온 나무였을 것이라 짐작한다. 당시 합강리에는 강변에 주막이 두 개 정도 있었다. 주막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는데, 이른바 갈보가 있는 그런 술집은 아니었다.

당시 목상들도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큰목상들은 사유림은 상대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대목상들은 주로 함경도 쪽에서 많이 매목(賣木)을 했는데, 인제 쪽에서도 대목상은 원통이나 한계리 쪽에서 주로 매목을 했다. 매목이란 산림간수가 산에 나가 이 나무는 베어도 좋다고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도 인제군의 산림현황을 보면 국유림이 사유림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인제군 관내의 국유림은 11.4만ha이고, 사유림은 3.8만ha에 불과하다.<sup>25)</sup> 사유림은 시군 자치단체의 산림과(계)에서 담당하고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담당을 한다.



김춘봉 옹

대목상들은 국유림을 불하를 받으면 매목 신청을 한다. 그러면 산림보호구 직원인 산림간수가 나가 도장을 찍는다. 도장을 찍기 위해서 나무 밑둥을 일정 부분 깎아낸 다음 그곳에 쇠도장을 찍는데, 나무마다 일일이 모두 도장을 찍고 각 나무마다 몇 재가 나오는지 일일이 기록을 한다. 그래서 목상이 할당받은 만큼만 계산하여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다. 베어야 할 나무를 선택하는 것도 산림간수가 선택을 한다. 대부분 목상이 동행할 경우가 많은데 목상이 해달라고 하여도 산림간수가 판단하여 그 나

25) 인제군, 『麟蹄郡史』, 1996, p.444.



무는 베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 벨 수가 없었다. 그러나 대체로 좋은 재목들을 골라서 매목을 해준다.

이때 찍는 도장에는 산(山)이라고 한자로 각인되어 있다. 산판을 하는 분들은 이 '산' 자가 붙은 나무만 벌목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벌목한 나무가 산 아래로 하산하여 쌓여 있으면 이때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여 검(檢)자를 찍는다. '산' 과 '검' 두 글자가 찍히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한다.

산에서 가장 조심할 점은 뒀니 해도 불이다. 산불이 나면 그야말로 황폐화가 된다. 그 다음으로 엄중히 감시한 것은 도벌이다. 당시에는 건물들이 대부분 목조건물이었으므로 벌목을 해 집을 짓는 재목으로 많이 사용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인지라 산에서 조금씩 도벌하는 것은 대부분 눈감아주곤 했다. 그밖에 집에서 연료로 쓰는 화목용으로 도벌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당시엔 연료라곤 화목뿐이었으므로 잔나무를 벌목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런 경우도 심하지만 않으면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았다.

김춘봉이 원통에서 6년간 근무할 적에 국유림 불하를 받아 산판한 적은 한 번에 불과했다. 백담사 근처에서 벌목을 했는데 벌목한 나무를 한 군데에다가 모아놓고, 골짜기에다가 일종의 저수지를 만든다. 골짜기가 딱 차게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골짜기에 딱 차면 그때에 골짜기를 막았던 나무를 치운다. 그러면 그 물살에 나무가 떠내려가는데, 그 나무를 용대리에서 건져낸 다음 차로 운반했다.

당시 국유림을 불하받은 대목상이 누군지 기억은 못했지만 아마도 함경도 대목상이었다고 김춘봉은 추측했다. 대목상은 워낙에 크게 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많았다. 대목상의 일을 대신 봐주는 새끼목상도 있었다.

김춘봉은 1930년대에 원통에서 근무를 했다. 1940년대의 경우는 북면 용대리에 살고 있는 최정기(80세)의 증언을 참조하면, 1940년대부터 1945년경까지 심할 정도로 벌목을 했었다고 한다. 백담사에서 물을 막아놓았다가 터트리는 방법으로 나무를 하루로 내려보내면 용대리에 와이어로 줄을 쳐놓고 걸리는 나무들을 강가로 건져내어 차로 실어 수송을 했는데, 차로 미처 못할 경우에는 합강리까지 적심도 많이 했었다. 다시 차로 실어 가는 방향은 서울이나 간성이 많았다. 철로목들은 거의 간성으로 향했다. 당시의 목상들은 대부분이 일본인들이었다. 동네 사람들도 소규모로 했던 분들이 있었다.

## 5. 심흥규(沈興奎)와 김종식(金宗植)

인제군에서는 인제 뗏목을 전승하기 위하여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인제 뗏목의 전통을 계승시키고 있는데, 심흥규와 김종식은 해운용인과 박해순으로부터 인제 뗏목에 관한 것들을 전수를 받아 인제 뗏목에 관한 튼튼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제 이 두 분에 관하여 간단히 기술해본다.

### 1) 심흥규(沈興奎)

심흥규는 기린면 원대리 출신으로 1936년 7월 15일(음력) 태어나서 한 번도 이곳을 벗어나지 않고 줄곧 이곳에 살아왔다. 본관은 청송으로 아주 오래 적부터 이곳에 살고 있는 토박이인데, 워낙에 손재주가 많아 무엇이든지 한 번 보면 그대로 따라하는 재주를 지녔다. 그래서 나무를 깎아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데 남들보다도 훨씬 작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훌륭한 물건들을 쉽게 만들어내곤 했다. 함지, 곰방대, 지

개, 벌통, 단장(지팡이) 등 그의 손을 거쳐가기만 하면 훌륭한 민속예술품이 되었다.

5~6년 전에 손용인이라는 분이 인제읍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 존장을 대하는 마음으로 몇 번 놀러온 손용인에게 올 때마다 정겹게 대하고 또 단장(지팡이)를 만들어 선물을 했다. 그랬더니 하루는 손용인이 뗏목을 만들어보지 않겠느냐며 관심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재주를 높이 샀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해서 인제의 뗏목에 관해 배우기 시작했다. 워낙에 손재주가 좋은지라 한 번을 본 것은 곧장 따라하기 때문에 남들보다도 훨씬 수월하게 뗏목을 배울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 후로 2002년에 인제의 뗏목을 재연할 때도 같이 출연을 했다.

그렇게 인제의 뗏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던 손용인은 2003년에 돌아가셨다. 그분으로부터 뗏목 아리랑도 배웠다. 한 번 들어보니 본래부터 알고 있던 강원도아리랑 가락과 비슷했다. 그래서 이 소리 역시 쉬이 배울 수 있었다. 산에서 나물을 할 때 부르면 나물 뜯는 소리가 되고, 논밭에서 일 할 때 부르면 논밭소리가 되는 것이 강원도아리랑이다. 뗏목에서 부르면 그게 당연히 뗏목아리랑이 될 것이다. 그렇게 심홍규는 인제의 뗏목을 만들고 뗏목아리랑을 배웠다.

지금 그는 논 3천평 농사를 짓고 있는데, 부업으로 토봉도 하고 있다. 슬하에 8남매를 두었다. 70년을 살면서 엿장사도 해 본적이 있고, 술과 담배만 제외하고는 안해 본 일이 없을 정도로 온갖 일들을 섭렵했다. 그래서 그런지 뗏목아리랑, 강원도아리랑 뿐만 아니라 장타령, 정선아리랑, 청춘가, 수심가, 회다지, 어랑타령, 경기민요 등 못하는 소리가 없다.

## 2) 김종식(金宗植)

김종식(金宗植)은 올해로 61세가 되었다. 처음 살던 곳은 오늘날의 인제군 상남면인데, 60년 전만 해도 그곳은 행정구역 상 홍천군 내면에 속했던 지역이었다. 1954년 10월에 인제읍이 수복된 후 이사를 왔다. 지금 인제읍에서 놀부슈퍼를 운영하고 있다.

선친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인지 예전부터 우리의 소리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다. 그러다가 인제문화원에서 소리를 배울 수 있다는 소식에 인제문화원 문을 두드리면서부터 박해순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분으로부터 뗏목아리랑을 배웠다. 김종식도 워낙에 음악에 재질이 있어 못하는 소리가 없었다.

우수나 경침에 물 풀리니  
합강정 뗏목이 떠내려가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창랑에 배를 띄워놓으니  
아리랑 타령이 처량도 하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요즘 실제 뗏목을 운행할 수는 없지만 본인도 모르게 뗏목아리랑을 부를 때면 당시 뗏목을 상상하면서 부르면 한결 감흥이 인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뗏목은 아니더라도 김종식은 작은 뗏목을 타본 경험이 있다.

군대를 가기 전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인제읍의 에너지원은 대부분이 화목이었다. 화목은 주로 내린천 주변 산에서 벌목을 해서 충당했는데, 김종식이 주로 벌목을 했던 마을은 인제읍 고사리 근방이었다. 그



심흥규(왼쪽)와 김종식(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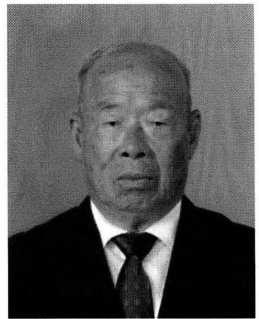
당시 리어카도 없었던 시절이라 산에서 벌목을 한 잔 나무들을 내린천에서부터 뗏목을 엮어 함강리까지 갖고 왔었다. 그렇게 해서 함강리로 갖고 온 화목들을 해체하여 말린 후 연료로 사용했었는데, 68년도 9월에 군(軍) 제대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니 그 사이에 리어카가 보급이 되어 더 이상 뗏목을 만들지 않아도 되었다고 한다.

또 인제의 뗏목에도 관심이 많아 손용인, 박해순 등으로부터 뗏목 만드는 법을 배웠다. 또 그 분에게서 여울, 덕두원, 주막 등 당시의 일화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 6. 손용인(孫龍仁)과 뗏꾼들

— 故 손용인 —

인제의 뗏목은 예로부터 유명한 것이었다. 인제읍에는 언제나 유명한 뗏꾼들이 배출되었다. 그러나 본고가 집필되는 동안에 생존해 계시는 분들은 드물었다. 아래에는 인제에서 유명했던 분들의 프로필을 소개하고자 한다. 손용인, 임일남, 김계근 등은 전업 뗏꾼들이었다. 물론 집에서 농사도 간혹 짓지만, 떼를 타는 시간이 훨씬 많았다. 이들에 대한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글을 찾기가 힘들었다. 여러 서적들을 조사하던 중 김열규의 『아리랑, 역사여, 겨레여, 소리에』에 마침 故손용인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글이 있어 그 전문을 싣는다.<sup>26)</sup>



손용인 응

26) 김열규, 『아리랑, 역사여, 겨레여, 소리에』, 조선일보사, 1987, pp.296~306.

## 1) 손옹인과 뗏목판의 노래

우수나 경침에 물 풀리고  
합강정 뗏목이 떠내려간다

내린천과 인북천이 만나는 곳을 ‘합강’ 또는 ‘합강머리’ 라고들 한다. 합수라고 해도 다를 거야 없지만, 지방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부르고 있다.

지방 사람들은 인북천을 솟물이라 하고 내린천을 암물이라고 하나, 천하 제일, 강산 제일의 암수 두 물이 어우러져 북한강을 낳은 것인가. 사람들은 장마 뒤 큰물이 질라치면 두 물의 기세를 살핀다. 암수 두 물 어느 쪽 기세가 센가에 따라 각기 그 골짜기 안에 대풍이 든다고들 그들은 생각했다. 하지만 내린천이 인북천 물살을 밀어낼 지경이면 인제 아랫녘 일대가 흥해진다고들 걱정을 했더니... 물도 ‘여필종부’, 지아비를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고 옛사람들은 믿은 것이다.

손옹인 옹은 이제 합강의 뗏사공으로서 젊음의 시절을 보냈다. 열아홉 살 먹던 해, 첫 떼를 뒀다. 떼의 뿔꼬리에 달라붙다시피, 그것도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안골을 탄 것뿐이지만, 어땀은 시작은 시작이었다. 그것이 손 노인의 뗏사공의 첫 진수식이자 인생의 진수식이 되었다. 그 이전에는 온전히 따로 구실 받아서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손 노인의 물살이는 그의 나이 서른 두 살 먹던 해에 끝이 났다. 끝내고 싶어서 끝낸 것은 결코 아니었다. 해방되고서부터 남북이 분단되면서 인제와 춘천 사이의 소양강 또한 분단된 탓이다. 인제는 6.25까지 줄곧 북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떼를 띄울 수가 없었다. 세월 탓에 그야말로 본의 아니게 뗏사공을 그만두고 물살이에 하직을 고했다. 손노인은 지금도 그것이 불만스럽다. “무슨 놈의 세월이 떼를 앗아갔느냐 말이다. 차라리 강물이 마를 일이지.” 손 노인은 그렇게 말하면서 강바닥에 침을 뱉었다.

그는 뗏목을 자그마치 이백 팔십 여섯이나 뒀다. 열아홉부터 서른 두 살까지니까 그러저럭 십삼 년의 세월동안 줄잡아 셈을 해도 한 해 평균 스무 번을 더 내리지도 않을 거라고 했다.

인제 강물은 겨울이면 배가 잔뜩 부른 쌀가마니 세 개를 겹친 물의 두께로 얼음이 언다. 음력 2월이면 풀리긴 하지만, 정말이지 군데군데 빙산이 험악하게 으스대고 있을 때다. 그 얼음덩이 사이를 헤집고 비로소 ‘갯떼기’를 한다. 그 해의 첫 뗏목이 진수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늦가을 다시 강바닥을 얼음이 뒤덮기 시작할 무렵에 ‘막서리’를 한다. 한 해의 마지막 진수인 셈이다. 그렇게 치면 손 노인은 갯떼기부터 막서리까지 도합 스물 두 번씩이나 뗏목을 타고 한 해를 보내기를 열세 번씩이나 되풀이했던 것이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창랑에 뗏목을 띄워놓으니  
아리랑 타령이 처량도 하네

스스로 말하기를 이마에 사갯밥 붙이고 타고 내려간 그 험한 물살이듯 주름진 얼굴은 나이를 모르는 듯 표현했다. 넓게 벌어진 턱과 우뚝한 광대뼈가 콧등 언저리에서 입술 가장자리로 흘러내린 깊은 주름과

어우러져서 무척 강직한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손 노인은 그 얼굴 표정에 별로 변화를 주지 않고 노래했다. 이른바 「강원도아리랑」의 장단이었다. 태백산맥 이쪽저쪽의 영동영서지방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자진아리랑」의 가락이었다. 강릉시 변두리, 학산 마을의 농부들이

심어 주게 심어 주게  
원앙의 줄모를 심어주게

하며, 모심기하면서 부르는 가락 그래도 손 노인은 「뗏목아리랑」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흙의 노래, 들의 소리, 뗏목노래가 물의 소리, 강, 강, 강으로 바뀌어 불려지고 있는 것이다. 「아리랑」은 물과 흙, 강과 들을 가리지 않는다. 두 다리 진흙에 박고 허리 굽혀 모심던 손의 장단이 다르고, 두 가락이 뗏목아리랑에 버티고 ‘그레’ 짓는 팔뚝 장단이 다를 법도 하건만, 내쳐 아리랑은 같은 가락으로 불려지고 있다.

그러나 손 노인은 생각이 좀 달랐다. 「뗏목아리랑」과 「논매기아리랑」 사이에는 노랫말이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으나 가락은 서로 다르다고 했다. 「뗏목아리랑」은 「정선아리랑」보다는 좀 빠르고, 「강원도아리랑」보다는 좀 느리다면서 “암! 다르고 말고”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무려나 그는 줄곧 열세 해 동안 뗏목을 탔고 또 그때마다 「아리랑」을 불렀다. 「아리랑」장단으로 그레를 짓고 물살을 타고 포와리를 건너간 것이다. 뗏목과 소양강 물빛과 「아리랑」, 그 셋이 손 노인의 삶의 떼를 엮은 것이다.

십 년에 강산이 변한다더니  
소양강 변할 줄 어찌 알았나

뗏목의 생활이 좋다더니  
신식의 생활로 달라졌도다

이렇게 세월이 바뀌어 강물에서 떼가 끊기기까지 손 노인은 「아리랑」을 부르며 안골의 소양강과 박골의 북한강을 넘나들었다.

뗏목의 물길은 위험했다. 안골은 군데군데 포와리요 여울이었다. 포와리란 작은 폭포다. 거기 이는 물바래를 물사품이라고 했다. 그 아래 물이 소용돌이치고 있으면 쾌렁이라고도 했다. 언제 뗏사공 낚아챌지 모르는 호랑이 쾌렁이가 있었고 쥐젓여울도 있었다. 쥐젓같이 돌기가 심한 뽕죽바위들이 감춰진 여울을 그렇게 익살을 섞어서 불렀다. 그러기에 보통 위험한 게 아니었다. 목숨 걸고 사자밥 이마에 붙인 그런 꼴이었다. 포와리에서 내려쫓힌 뗏바닥에서는 뗏목 사이가 짜게지기 일쑤였다. 서툰 뗏사공이 그 틈에 곤두 박히면 목을 뺄 새도 없이 물귀신이 되곤 했다고 손 노인은 손을 저었다. 말하기조차 무섭다는 시늉이었다. 그러기에 뗏사공질은 건달네나 할 것이라고 했다. 자신도 한때는 하릴없는 건달이었노라고 하면서 씩 하니 웃고 그리고는 소주잔을 들이켰다.

앞사공 뒷사공 몸조심하게  
포와리 물소리가 솟아오르네

인제에서 춘천까지 소양강 안골의 물길 전체가 도시 위험지역이었다. 육지로 치면 지리발을 가는 거나 다름이 없었다. 앞의 그림이 일러주듯이 안골 전체가 여울로 뒤덮여 있었다.

함강머리를 뜨자마자 이내 맞닥뜨릴 앞여울이 첫 난관이었다. 그곳을 ‘첫들바우’ 라고도 했다. 뿐만 아니다. 그 뒤로 줄줄이 이어진 여울들, 요컨대, 안골 전체가 여울로 연주장이듯 엮여져 있었다. 송곳 같은 바위투성이의 ‘송곳여울’ 또는 ‘뿡의 여울’, 솟시습뿔마냥 뾰족바위가 솟아 있는 ‘사십이여울’, 바위들이 얽혀 있는 ‘두지아우여울’, 뗏목을 벌레잡듯 거미듯이 묶어맨다는 ‘거무여울’, 물고 텨비면 마냥 물고 늘어져 놓지 않기에 붙인 이름인 ‘개여울’, 뗏목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 텨비는 ‘망태여울’ 등이 뗏사공을 죽음으로 위협했다. 그런가 하면 물살이 유독 낮아서 뗏목 밑의 강바닥의 흙을 파고, 그리고도 모자라 끌고 밀고 하고서야 가까스로 빠져나가는 ‘마른여울’은 위험하지는 않으나 성가시기로는 으뜸이었다. 지금 청평댐 근처의 ‘고래이’는 얇은 여울로 특히 악명이 높았다. 뗏사공과 그 곳 주민들이 어울려서 강바닥을 파 헤집어 물길을 내지 않고는 때가 나아갈 수 없었다. 뗏사공들은 그 골치는 일에 샅을 치러야 했다. 또 ‘비투리’란 희한한 이름의 여울도 있었다. 거기 말려들면 물살이 뻥뻥이를 돌면서 뗏목을 비틀어서 짜개지게 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그러나 꼭 어둠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쾌팽이 포와리 다 지나니  
덕두원 씨쟁이가 날 반기네

도지거리 갈보야 술 거르게  
보매기 여울로 떼 내려가네

이만하게 꽤나 건들거리는 경우도 없지도 않았던 것이다. 이 지경이면 제법 호기를 피우고 건달이요 난봉이었다. 여울과 포와리만큼 줄줄이 엮어진 것은 아니었으나 안골과 밖골의 물줄기 따라 주막이며 색주가 덩성덩성 전을 벌리고 뗏사공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말로 흔히 주모라거나 색주라고들 한 여인네들을 뗏사공들은 굳이 ‘씨쟁이’라고들 했다. 지금의 양평군 양수리의 합수머리에 있던 주막집에 ‘석정(石貞)’이란 예쁜 주모가 있었던 게 원인이라고 손 노인은 설명했다.

그러나 ‘들병이’ 이기도 했던 이들은 그 처지가 ‘삭정(石貞)’(말라 시든 나무 가지) 같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 붙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썩은 신체의 술쟁이’ 그런 뜻이었을까. 아무튼 여울들의 지옥 아닌 수옥(水獄)을 빠져나온 뗏사공을 여인과 술이 기다려주었다.

씨쟁이들은 도지거리(춘천 상류), 덕두원(지금의 의암댐 근처)과 미음(지금의 양수리) 등지에 진치고 있다가는 떼에까지 올라왔다고 한다. 남편이나 기동서방이 저어주는 마상이를 타고는 떼까지 건너오곤 했다니까 사정은 그쪽도 꺾이나 딱했던 모양이다.

그러노라면 때아니게 뗏바닥 위에 술자리가 벌어지고 노래판과 춤판도 벌어지곤 했다고 한다.

놀다가 가요 자고 가요 잠자다 가요  
보름달이 지도록 놀다가 가요

놀다가 갈 마음은 간절한데  
서산 낙조에 해 떨어지네

이렇게 술잔이 오고가고 「아리랑」도 주고받았다. 「아리랑」의 대창(對唱)이 물살 따라 출렁이기도 했던 것이리라. 오늘날 인공적으로 재현된 「뗏목아리랑」이 유독 이 썩쟁이들과의 놀이를 강조하는 걸 보면 그런 대로 신명스런 한때로 뗏사공 가슴속에 간직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자니 공임을 술값, 몸값 그리고 노름에 탕진하는 경우인들 없지 않았다고 한다. 그럴 때 뗏사공과 그 집안 식구 사이엔 말없는 약조 같은 것이 있어서 그대로 웃지 못할 장면이 벌어지곤 했다.

어느 때 같으면 뗏목 타고 갔다가 혹은 춘천에서 혹은 서울에서 돌아오는 남편들은 꽤나 거드름을 피며 돌아왔다. 가령 춘천까지 안골만 타고 다녀올 때는 공가가 그 당시로는 쌀 두 가마 값은 실하게 되었다니까 상당한 목돈이었다. 광목 필이나 사서 등에 지고 거기다 검은 고무신짝 식구 수대로 사서 매달고는 흥청거리며 개선들을 했다.

하지만 썩쟁이들 술판에서 빈털터리가 되고서는 그럴 수가 없었다. 제주에서 돌아오는 배비장 꼴이라고 할 수밖에... 그럴 때면 야음을 이용해서 살그머니 동네 안으로 들어와서는 집에 다다라도 안방에는 들어가 자지 않았다고 한다. 아래채나 결채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엔 헛간에서 밤을 새우기 예사였다. 그러고는 밝은 날, 마누라들의 암묵의 양해를 얻고서야 안방으로 들어갔다니 무서운 엄 처시하(嚴妻侍下)였기 때문이기보다는 그만큼 자책하는 마음이 컸던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뗏바닥에서 술판이 벌어지는 때가 아니고는 「아리랑」은 아무 때나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포와 리와 여울들을 헤치고 갈 땀 노래 따위 할 겨를이 없었다. 아무리 '물말기'를 잘 타는 뗏사공이라도 노래 할 엄을 낼 수가 없었다. 어쩌다 가파른 고비를 넘기고 제법 수량이 넉넉하고 물살이 느릿한 곳을 만나야 「뗏목아리랑」을 부르곤 했다.

뗏목을 타고서 술잔을 드니  
만단의 시름이 다 풀어지네

뗏목을 타고서 하강을 하니  
광나루 건달이 손짓을 하네

이럴 때 뗏사공은 제법 한다 한 건달이요 풍류잡이었다. 실제로 손 노인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뗏사공의 물짓은 “건달 아니고는 못할 일”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때로는 목숨의 위협까지 도사린 위험부담, 사жат밥 노상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격의 위험스런 일은 돈벌이 작심하나만으로 견뎌낼 것은 아니었다. 아무래도 돈 탐 말고 흥이 남달라야 하고 신명도 출중해야 했던 것이다. 그것은 가장 좋은 건달기라고 할 만한 것이다.

조사자 일행이 뗏목을 재구성하고 손 노인에게 그것을 맡겼을 때, 일흔 세 살의 나이는 간데 온데 없었다. 실히디 실한 막노동의 일꾼 같았고 우람한 머슴의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그는 뗏바닥에 올라서자 짐짓 다리에 힘준 것도 아닌데 그것은 대지를 밟은 코끼리의 모습이었다.

‘강다리’라고 부르는 그레(노)받이에 옷이며 도시락이 든 보짐을 매다는 것을 예대로 재현해 보았다. 그러면서 이게 언제 수의(壽衣)가 되고 사жат밥이 될 지 알 수 없는 거라고 했다.

그 옛날 입춘 든 무렵에 하던 갯떼기이기나 하듯 그는 샅대로 떼를 강심으로 밀고 나갔다. 질푸른 합강 물이 밀려가는 떼를 따라 댐들이 물살을 일으켰다. 전체 다섯 토막으로 엮어진 한 바닥의 떼를 손 노인은 앞머리에 서서 능숙하게 저어 나갔다. 지난날, 서른 두 살 때 마지막 떼를 타고는 얼마 만인가. 자그마치 마흔 이태만의 그레질이었지만 전혀 서툰 기색이 없었다.

떼가 합강정 앞의 수심 깊은 곳에 다다르자 떼는 천천히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했다. 이제 시작할 본격적인 떼흘림(벌류·벌류)의 신호였다. 그러면서 손 사공은 유유히 노래를 불렀다. 그레 젓는 팔 장단 따라 그리고 강다리에 그레 쓸리는 소리 따라 「아리랑」은 강물 위에 퍼져 나갔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리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우수나 경칩에 물 풀리니  
합강정 뗏목이 떠내려 가네

졸동(첫 동가리), 앞부담(둘째), 허리동(셋째), 뒷부담(네째), 뒷동(끝) 등을 동세로 맨 아래줄이 이따금씩 빼격거렸다. 미양끼에 끼워 단단히 X자형으로 묶은 가줄도 꽤나 빠근해 보였다. 때마침 수십 마리의 갈가마귀 떼가 뗏목 위를 스쳐 하늘을 뒤덮고 손 노인의 「아리랑」을 삼켜 버렸다.

떼는 이제 완전히 여가리(물깃)를 떠나 있었다. 물 건너 산 쪽 구방으로 흐르는 물살을 타고 있었다. 금새 짝통(산 밑 언덕)으로 밀려갈 기세였다. 손 노인은 노래를 그쳤다. 팔이 날렵해지고 그레가 팔랑개비 돌듯 날쌌다. 첫 난관인 앞여들(여울)이 바로 눈앞에 와 있었다. 거칠고도 물 얇은 여울이었다. 손 노인은 뒤쪽의 가줄을 짹짹 풀었다. 거기 물살이 쏟아져 들고 그 탄력을 받아 떼는 앞으로 밀려 나갔다.

물깃에 선 우리들에겐 사뭇 위험해 보였다. “그만 가세요”라고 소리치고 손짓들을 했으나 손 노인은 막무가내였다. 뒷사공이 쓰러져 뗏바닥에 곤두박혔다가 일어나는 게 자못 안스러웠으나 손 노인은 으레 그러려니 하는 눈치였다. 떼는 허이연 포말을 일으키는 물살을 타고 또 다른 짝통 쪽을 향해 손살같이 내리닫는 것이었다.

“지금 탄대도 십 년은 더 탈 걸”, 떼에 오르기 전 손 노인이 한 말이 귀에 쟁쟁했다. “떼를 타면 언제 무엇이 제일 좋은가”라는 물음에 지체 없이 “떼 타는 것 그게 제일 좋은 걸, 떼만 탔다 하면 그걸로 만사 요즘 말로 오케이지 뭐” 이렇게 내뱉듯 말하고 꺾꺾대던 손 노인의 웃음소리가 쟁쟁했다. 떼는 이미 안보일 만큼 멀리 가고 없었다.



## 2) 인제의 뗏꾼들

손용인 이외에 그와 동시대의 뗏꾼들로 전하는 알려진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sup>27)</sup>

### \* 김계근(金桂根)

생년월일 : 1898년 7월 16일생(현재 88세)

본적 : 인제군 인제읍 상동 100번지

현주소 : 인제군 인제읍 상동 2리

경력 : 1918년(당시 20세)부터 1943년(당시 45세)까지 25년간 뗏목 운행

### \* 임일남(林一男)

생년월일 : 1912년 5월 10일생(현재 74세)

본적 : 인제군 인제읍 합강 2리 3반 297번지

현주소 : 인제군 인제읍 합강 2리 3반 297번지

경력 : 1930년(당시 18세)부터 1945년(당시 33세)까지 15년간 뗏목 운행

### \* 손용인(孫龍仁)

생년월일 : 1913년 10월 8일생(현재 73세)

본적 :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현주소 : 인제군 인제읍 상동 3리 6반

경력 : 1934년(당시 21세)부터 1945년(당시 32세)까지 11년간 뗏목 운행

### \* 심한호(沈漢浩)

생년월일 : 1920년 3월 16일생(현재 66세)

본적 : 인제군 인제읍 합강 2리 1반

현주소 : 인제군 인제읍 합강 2리 1반

경력 : 1934년(당시 14세)부터 1945년(당시 25세)까지 11년간 뗏목 운행, 주로 앞사공을 했음

### \* 송태익(宋泰益)

생년월일 : 1921년 3월 8일생(현재 65세)

본적 :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624번지

현주소 : 인제군 인제읍 합강 2리 3반

경력 : 1937년(당시 16세)부터 1945년(당시 24세)까지 8년간 뗏목 운행

27) 인제문화원, 『인제뗏목』, 2002, pp.15~16.

## V. 인제뗏목 제작과정

본 장은 처음 나무를 베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그 나무를 운반하여 강가에 야적한 다음 강물에 적심을 한 후 합강리에서 뗏목을 엮어서 춘천 혹은 서울까지 갖고 가는 과정을 시간적 순서에 의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 1. 목상

인제는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삼림이 울창한 지역이다. 인제군의 79%가 삼림면적으로 원시림이라 할 정도로 우거진 삼림을 자랑하는데, 수령 몇 백 년이 된 나무들이 가득하다. 이런 나무들은 나무 한 그루라도 함부로 벨 수 없는데 신령함이 깃들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다 못해 길가 혹은 논둑에 있는 오래된 고목일지라도 차마 베어내지 못하고 만약에 벨 경우에는 관에 고하여 관의 힘을 빌어 베려고 한다. 그만큼 오래된 나무에는 함부로 범접 못할 무엇인가가 있다고 믿는다. 우리 주변에서 쉬이 발견할 수 있는 서낭목이 그 대표적인 경우다. 서낭목에 손대면 동티를 입는다는 말을 자주 한다.

깊은 산에 가득한 오래된 나무도 마찬가지다. 이들 나무를 손댔 땀 어명(御命)을 동원한다. 나라의 임금에 하는 일이니 나무의 신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라는 일종의 교육지책인 것이다. 그래서 산림과 직원들과 같이 간다. 그들이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바로 관에서 나와 하는 일이니, 그게 바로 정말로 어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목상들이 벌목을 시작할 때 첫 나무를 찍어 내릴 때 어명을 동원하면서 벌목을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인제군도 삼림이 많으므로 당연히 목상들도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인제군에서 활동한 목상들을 한 번 추적해보았다. 그러나 당시의 기록을 찾기가 만만하지 않고, 증언해줄 만한 분들도 이미 별세한 지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는 없었으나, 그래도 몇 명 목상들의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다.

벌목은 주로 상남면과 기린면에서 행해졌다. 그래서 내린천 물줄기를 타고 적심을 하여 합강리에서 뗏

목을 만들어 춘천이나 서울로 가져갔다. 그래서 기린면이나 상남면에서 많은 목상이 나왔다. 이기용은 기린면에서 가장 유명한 목상이었다. 북3리 출신이었는데 후에는 현리로 이사를 갔었다. 그 5형제 중 4형제가 목상을 했었다. 이흥준이 둘째, 이용봉이 셋째, 이종혁이 넷째였다. 이기용은 나중에 목상을 그만둔 다음 기린면장까지 지냈었다. 당시 이기용의 집은 이 근방에서는 드물게 커다란 기와집을 짓고 살았었는데, 지금쯤 살아 있다면 100세는 넘었다. 당시 지역에서 대다수의 한국인 목상들은 사유림을 많이 했는데, 이기용은 국유림을 더 많이 한 몇 안 되는 목상 중의 하나였다.

기린면에서 목상들이 많이 나왔는데 김용갑도 그 중 하나다. 나이는 이기용보다 두 살 정도 어리다. 기린면 방동리에는 정덕만이라는 목상이 있었다. 주로 방동리 근처의 산에서 산판을 했는데, 방동리 근처의 하천은 소하천이어서 적심을 해 함강리까지 끌고 가, 거기서 뗏목을 만들어 나갔었다. 그는 한국전쟁 때 사망했다. 심영재라는 목상도 기린면 서리 출신이었다. 그는 대목상의 새끼목상 일도 겸해서 했었다.<sup>28)</sup>

상남면에는 장덕수, 한명대 등이 목상을 했다. 두 분 모두 살아 있다면 100세가 훨씬 넘었다. 장덕수의 후손은 지금도 상남면에 살고 있다.

서화면에도 최병용이라는 목상이 있었다. 그렇게 큰 목상은 아니었고, 살아 계신다면 104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당시에 커다란 기와집을 짓고 살았으니, 꽤 괜찮게 살았다고 할 것이다. 그분이 주로 산판을 한 장소는 양구와 인접하는 접경지에서 많이 했다.

북면에는 설악산 즐기어서 국유림이 대부분이다. 1930년대만 해도 함경도 목상이 많았다고 김춘봉은 증언하는데, 그 이후로는 일본인들이 목상을 많이 했다. 근처 사유림은 한국인들도 많이 했는데, 이희복, 김정기 등이 유명한 목상이었다. 이희복은 살아 있다면 90대 정도 되었고, 김정기 역시 살아 있다면 97세다.

故김정기는 1945년경까지 목상도 하고 직접 뗏목을 타기도 했던 뗏꾼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와중에 돌아가셨다. 목상들이라고 해서 모두 돈을 버는 것은 아니었다. 김정기 같은 경우 한 번은 직접 뗏목을 타고 춘천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당시 시일을 너무 지체하여 손해를 본 적도 있었다. 물만 좋으면 하루라도 갈 수 있는 춘천을 20여 일이나 걸려 갔었기 때문이었다.<sup>29)</sup> 그래서 김정기는 집에 돌아와 논 600평을 팔아 그 빚을 충당했다.

뗏꾼을 부리는 일도 만만한 일은 아니었다. 때로는 뗏꾼들이 뗏목을 팔아버리고 도망치는 일도 빈번하였다. 그래서 목상들은 뗏꾼을 거의 전속으로 데리고 갔다시피 했다. 뗏꾼들 중에서 몇몇 앞사공을 선택을 하면 앞사공이 알아서 뒷사공을 데리고 왔다. 뒷사공에 대해선 앞사공이 암묵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뒷사공을 하는 일도 웬만한 연줄이 없으면 하기 힘들었다.

남면에는 박기동이란 분이 목상을 했었다. 박해순의 선친이다. 예전 남면 부평리에서 직접 뗏목을 만들어 박해순과 외삼촌하고 같이 춘천까지 간 적이 있었다. 당시 뗏목 위에 화목도 적재했었다. 남면 부평리에는 옹기점도 있어 그곳에서 뗏목 위에 화목뿐만 아니라 옹기도 뗏목에 실어 나가기도 하였다.

인제읍에 유명한 대목상은 우모리라는 일본이름을 쓰는 사람이었다. 원래 우모리는 인제읍 사람은 아니지만 목상을 하기 위해 인제읍에 와 정착한 사람이었다. 노부지란 일인 목상도 대목상이었다. 그밖에 김영재, 김덕순 등은 심부름목상 흔히 말하는 거간꾼이기도 했다. 1945년 이후에는 강릉사람으로 한천

28) 박해순은 김영재라는 목상이 심부름목상을 했다고 전했다. 아마도 동일인물을 말한 것이 아닌가 싶다.

29) 구술자는 故김정기 목상의 아들인 김진현(71세, 북면 한계3리 거주)이다. 박해순 옹의 증언에 의하면 심할 경우 15일은 갔었다고 한다.

령, 춘천사람으로 이해영, 구봉수 등이 인제를 자주 찾은 목상이었다.

봄철부터 비가 오면 목상들은 병을 내어놓고 비의 양을 재었다. 병으로 하나 가득 넘치면 목상들은 뗏목을 내려보내기 시작한다. 이르면 얼음이 풀리기 시작하는 2월부터 뗏목을 내려보내기 시작하는데, 이런 때를 갯떼기라고 한다. 뗏목은 보통 8~9월이면 끝이 나는데, 왜냐하면 이후로는 물이 적어 때를 보내는데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0월 늦게도 내려보내는 때가 있다. 이 뗏목을 막사리라고 한다. 이럴 경우에 내려가는 뗏목은 보통 대목상의 일을 봐주는 새끼목상일 경우가 많다. 새끼목상이 여름 한철에 미리 가용한 돈 때문이다. 그래서 대목상에게 약조한 물량만큼은 연내로 보내야 하므로 무리를 해서라도 뗏목을 보내려고 했다.<sup>30)</sup>

## 2. 벌목(伐木)

예로부터 인제군의 소나무는 주요 벌목 대상이었다. 강원도의 소나무는 그 질이 특히 좋아 조선조 시대부터 서울로 많이 실려갔는데, 황장목이라 하여 아름답디 소나무를 주로 사용하였다. 일반인들의 사용을 금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금표를 세우기도 하였는데, 오늘날 인제군 북면 한계리에 금표가 존재한다. 그 외 강원도에서 황장금표(黃腸禁標)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원주시 구룡사(龜龍寺), 영월군 청령포 주변 두 곳뿐이다.

일제강점기 때도 일본인들이 철로목 등의 군사용으로 또한 많이들 벌목해 갔다. 인제군에서도 특히 북면 쪽에서 벌목한 것은 주로 철로목으로 만들어져서 간성 방향으로 차를 이용하여 수송하였다. 북면은 바로 설악산이 있는 곳으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굵은 소나무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목상은 벌목을 신청하기에 앞서 여러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해당 지역에 원하는 종류의 나무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일이다. 원하는 나무가 많은지, 적은지, 그 일대를 벌목을 해서 충분한 량의 재목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벌목한 나무를 갖고 내려오기에 적당한지 그 통로도 살펴보아야 하는데, 길이 너무 험든 곳에서 벌목을 하면 경제적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목상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높고 큰 산이 아니라 마을 주변의 야산에서 주로 벌목을 했다. 사실 높고 큰산은 바람이 많고 또 거세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자란 나무들은 대체로 곧게 자란 나무들이 드물다. 또한 설령 곧게 자랐다 할지라도 워낙에 바람이 거세기 때문에 수령(樹齡)보다 실제로는 작아 보인다. 더구나 높은 산에는 침엽수보다는 활엽수가 많기 때문에 높은 산으로 올라갈수록 목상들은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 그래서 길도 편리한 인근의 얇은 야산에서 주로 벌목을 한다.

벌목지를 결정하면 땅주인과의 협상을 거쳐 해당관청에 벌목 허가를 얻는다. 이때 국유림은 보통 영림서(오늘날의 산림청)이고, 사유림은 인제군 산림과(혹은 계)이다. 소정의 서류를 완비하여 허가를 얻으면 해당관청에서 관리가 나와 나무에다가 '검(檢) 자가 새겨진 도장을 찍어준다. 국유림 같은 경우 보통 2인의 관리들이 1팀을 이루어 나오는데, 한 명은 나무에 도장을 찍는 일을 맡고, 다른 한 명은 장부에 몇 재(일본말로 사이) 정도가 나오는지 기록을 맡는다. 이렇게 장부에 적힌 분량을 근거로 하여 세금을 매긴다.

30) 박해순의 구술에 의하면 김덕순이란 분이 막사리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 1) 산신제

별목이란 나무를 베는 작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목상이 어느 지역의 나무를 별목하겠다고 해당관청에서 허가를 얻으면 해당관청에서 관리가 나와 베어야 할 나무를 지정해준다. 이때 보통 목상이 같이 동행을 하는데, 대목상인 경우 같이 따라오는 사람들은 새끼목상을 비롯하여 산판하는 인부 등 상당히 많은 인원이 따라온다.

목상은 우선 자신이 별목을 한 산중턱에서 산신제를 올리기 좋은 나무 한 그루를 정해서 제사 준비를 한다. 산신제란 산을 지키는 산신에게 당신이 지키는 산의 나무를 베어 가겠으니 노여워하지 마라고 올리는 일종의 치성이다. 그러니까 산의 나무는 산신의 소유물이란 일종의 믿음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목상은 산신제를 올리기 전에 목욕재계를 하는데, 심할 경우 그 날 당일 계곡의 물에 목욕을 하기도 한다.

보통 별목은 늦가을에서 초봄 사이에 하는데, 그렇게 해야 뒤뜰리지 않는 재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봄이나 여름에 별목을 하면 나무에 물이 올라 파릇파릇해지면서 나무가 팽창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별목을 하면 별목 후에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재목이 못 쓰게 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비록 춥다 할지라도 별목은 추운 계절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인제뗏목』에는 이와는 다른 이유로 별목 시기가 고정되어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한다.

별목 시기는 목재 이용상의 필요, 지형, 기후, 운반방법, 시장상황, 인부조건(人夫條件) 등에 의하여 그 시기를 결정하나 인제의 경우는 별목 수송이 소나무 단일종인 데다가 운반도 뗏목으로 운목한다는 제한조건 때문에 그 시기도 고정되어 있다.

인제의 별목 시기는 음력 10월에서 시작하여 다음 해 2월까지가 상례로 되어 있어 뗏목으로 운목되는 소나무는 반드시 이 시기에 별목된다. 이같은 이유는 하산(下山) 작업과 운목 작업이 하나이고 들쭉는 때를 띄우는 시기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겨울철에 별목을 하면 적설기를 이용한 하산 작업이 쉬울 뿐 아니라, 하산된 운목을 때를 만드는 장소까지 운반하기 쉽기 때문이며 또 때를 연중(年中) 계속 띄우는 것이 아니고 겨울철에는 수량이 적어 띄울 수 없을 뿐 아니라 강이 얼어 띄우지 못하므로 해빙기(解氷期) 이후 강물이 불어야 때를 띄울 수 있기에 별목은 때 띄우는 기간에 맞추기 위하여 때 띄우기 전인 동절에 한다.<sup>31)</sup>

계곡의 그 추운 물에 목욕을 할 만큼 지극한 정성을 드리는 이유는 불문가지다. 이렇게 지극한 정성을 드리니 산신령이 이 정성을 헤아려 살피 별목하는 기간 동안에 아무 사고가 일어나지 말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나무는 대단히 무거운 물건으로서 그 밑에 깔리더라도 하는 날이면 사고가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인제읍에서 현재 제재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시화(1928년생)는 예전 별목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차가운 계곡 물에 목욕재계를 했다고 전한다. 물론 음식도 가려먹는데 개고기 같은 경우는 먹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게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서 목상은 자기가 준비해 간 재물을 산을 향하여 진설을 한다. 보통 주과포가 준비되는데, 돼지를 한 마리 잡을 경우도 있다. 돼지는 보통 수컷을 사용했다. 잘 차리는 사람은 떡도 해가고, 그 외 다른 음식도 준비해 간다. 이렇게 돼지를 잡아 올리던 풍습도 20~30년 전부터는 간소

31) 인제문화원, 『인제뗏목』, 2002, p.37.

화되어 잘 잡지 않는다. 대신 돼지머리로 대체하는데 최근에는 돼지머리조차도 생략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산신령에게 제를 올리는 것이므로 따로 신위가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장례식 때 올리는 산신제를 좀더 풍성히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목상은 진설이 끝나면 집사의 도움을 받아 현작을 한 후 그 자리에서 축원을 올린다. 집사는 같이 간 사람 중에서 그런 대로 깨끗한 사람이 한다. 때로는 집사 없이 목상이 직접 술잔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축원은 마음속으로 빌기도 하지만, 때로는 암송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내용은 아무 날 아무개가 이곳(○○산) 산신령에게 축원을 올리는데, 금번 산(山) 일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내용이 다. 그 내용은 목상의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산신제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벌목을 한다. 벌목은 제사를 올린 나무에서는 잘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가리지 않는 사람도 있으나 대체로 제사를 올린 나무는 벌목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있다.

## 2) 벌목

산신제를 마치면 제단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소나무를 한 그루 베어 넘긴다. 이때 주의할 점은 톱을 쓰지 아니하고 도끼로 벤다는 것이다. 이 일을 하는 이는 일행 중에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 일을 맡는다. 나무가 크고 작고 상관없이 벌목하는 사람이 나무를 향하여 “어명(御命)이요” 라고 외치는데,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큰 나무에는 신령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왕의 명령으로 할 수 없이 베어야 하니 이해해 달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소리치는 것이다.

큰 나무에는 지골이 있어서 해를 입는다. 이런 말이 있다. 그래서 큰 나무를, 특히 밤나무를 벌목하면 나무가 넘어가자마자 나무를 벤 사람도 지골을 입어 죽는다고 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명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같이 갔던 사람들도 모두 따라 소리치는데, 이렇게 해야 지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명에는 귀신이라도 어찌 할 수 없다는 속신(俗信)이 여기에 녹아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주 큰 나무가 아닌 한 이렇게 잘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처음 한 그루를 베면 그 다음 산신제를 올린 제물로 배불리 먹고 나서 그리고 일을 한다. 대체로 목상은 그 날 산신제에 사용한 음식을 그 날 온 일꾼들에게 모두 먹이는 것이 관례다.

벌목을 하는 일을 흔히들 산판한다고 말을 한다. 이 일을 하는 이들을 산판꾼이라고도 부르는데, 워낙에 고임금을 주기 때문에 겨울에 이 일만 전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으나, 대부분은 농사가 끝나면 산판일에 뛰어든다. 대체로 동네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나 그림에도 불구하고 톱을 짜서 그 일을 따내는 경우도 많다. 적심꾼 방법수는 농번기엔 농사를 짓고 아이짐(초벌 김매기)을 매고 나면 적심을 하고, 추수해놓고 초겨울부터는 산판을 했다. 그가 산판을 할 때는 동네에 오야지(반장)이 있어서 그가 목상과 직접 담판을 지어 일을 따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게 해서 그 톱은 맡은 지역 벌목을 하는 것이다. 『인제 뗏목』에 보면 인제와 같이 뗏목으로 운목을 할 정도의 큰 삼림이 있는 지방에는 산판꾼이라는 벌목을 전업으로 하는 작업 인부가 따로 있어서, 그들이 삼림을 벌목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체로 동네 주민들이 산판에 참여하였다.

나무를 베는 방법에는 간벌이 있고 택벌이 있다. 택벌은 좀 큰 나무를 택해서 하는 것이고 간벌은 수령 30년 미만의 나무를 베어내는 것이다. 흔히들 속아낸다고 표현을 한다. 삭벌이란 것도 있다. 삭벌은 개별

이라고도 하는데, 수령은 50년 이상 되었지만, 구불구불하여 쓸모가 적은 나무를 베어 내는 것을 삭별이라고 한다. 일종의 수종 개량을 겸해서 하는 것이다.

인제의 뗏목을 필요한 나무는 일정 규격이 되어야 뗏목을 매기에 용이하다. 흔히 이렇게 규격에 맞게 다듬어 놓은 재목을 가재목이라 한다. 『인제뗏목』에 보면 가재목의 크기를 규정하였다고 적혀 있다. 그 대목을 인용해본다.

이때 떼의 길이와 나무의 크기는 함수 관계를 갖게 된다. 즉 떼에서 쓰는 나무의 길이는 20척이고 그 나무의 말구(末口) 직경은 5촌(寸) 이상이라야 한다. 말구에 맞추기 위하여 길이가 들쭉날쭉 하면 떼를 짤 수가 없고 길이를 맞추어 말구 직경의 크기가 일정치 이상이 아니면 용재로서는 결격이었을 뿐 아니라 떼 짤 때도 불편하여 인제의 떼로 운반되는 나무는 길이 20척, 말구 직경 5촌 이상이라는 것이 거의 철칙이다. 이러한 전제가 붙어 있으므로 나무의 크기는 목측으로 이 조건이 구비되었다고 여겨질 때 비로소 벌목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떼로 운반되는 용재는 수령에 관계없이 그 크기에 있어서 제한조건이 충족되어야 벌목한다. 벌목을 한 뒤에 20척으로 나무의 길이를 재어 그 길이대로 끊을 때에는 목측으로 어렵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쓰고 있는 톱의 길이를 정확하게 기억하였다가 그 톱으로 베어 놓은 나무의 길이를 재어 20척이 되도록 끊는다.<sup>32)</sup>

이상에서 보면 20척, 즉 20척라고 되어 있으나, 본고에서 조사한 바로는 22자였다고도 한다. 위에서 기술한 적심꾼이자 산판꾼 방법수의 진술을 보면,

산판은 인제읍 상남면에서 주로 했는데, 인제읍 기린면에서는 방동리, 서리 뒷산에서도 간혹 했다. 수종은 주로 소나무였으며, 길이는 22자 길이로 잘라 낸다. 아래와 위에 도끼로 구멍을 내어놓는데, 이렇게 구멍을 내어놓으면 운목(運木)하기도 편리하고 뗏목을 엮을 때도 유용하다. (‘적심꾼 방법수’의 항목 중에서)

인부들이 일 하는 시간은 아침 해 뜰 적에 나가서 해가 질 무렵까지다. 인부들이 먹는 음식을 목상이 대주지는 않는다. 이미 임금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부들은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갖고 온다. 이른바 도시락이다. 그렇게 점심은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저녁은 집에 가서 먹는다. 적심과 달리 참도 없다. 어차피 자기 돈으로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먹는 식사는 옥수수밥이나 조밥에 감자가 전부였다. 적심하는 이들처럼 쌀밥은 꿈에도 꿔보지 못할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산판은 인부들이 목상을 찾아가 도급을 받는 경우와 목상이 도급을 주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방법수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같이 목상을 찾아가 도급을 받아 일을 많이 했는데, 당시 일당은 70전~80전이 보통이었다. 산 하나를 산판해 주는 대가로 얼마를 요구하는데, 그것을 일당으로 계산해보면 보통 70전~80전 정도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악산(惡山)을 만날 경우는 그보다 못나올 때도 있었고, 간혹 쉬운 산이 나오면 더 나올 수도 있었다. 도급을 받아 일을 할 경우 보통 7~8명이 한 팀을 이룬다.

벌목을 하는 방향은 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벌목을 한다.

32) 인제문화원, 『인제뗏목』, 2002, pp.3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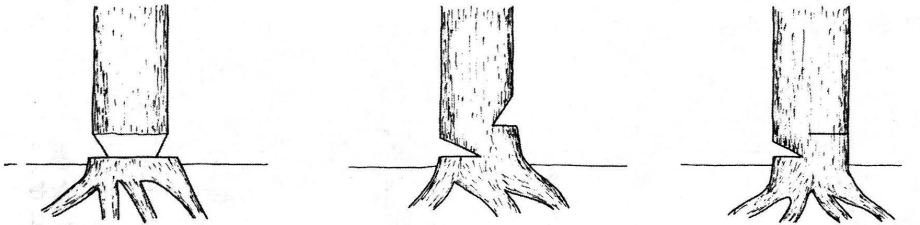
## 3) 벌목 도구

산판을 할 때에는 두 명씩 짝을 지어 올라간다. 한 명은 톱질꾼인데, 톱질꾼은 톱 쓰는 줄과 톱을 흘치기(주루먹 같은 것)에 넣어 갖고 올라간다. 다른 한 명은 도끼, 갓갈(나무껍데기 베는 칼)을 갖고 올라간다. 이렇게 두 명이 한 팀을 이뤄 벌목을 한다.

다음은 인제 뗏목에서 벌목의 도구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다.

톱과 도끼를 사용하는데 톱은 ‘끓침’ 또는 ‘저도’ 라고도 한다. 톱에는 폭이 넓은 톱과 폭이 좁은 톱이 있고 벌목용은 폭이 좁은 것을 쓴다. 톱은 날이 서지 않으면 나무가 잘 끊어지지 않으므로 톱의 날을 세우기 위하여 강철로 된 날 세우기 기구인 ‘줄’을 가지고 다닌다. 톱이 잘 들지 않으면 벌목 작업을 중단하고 줄로 톱날을 세워 다시 작업한다.<sup>33)</sup>

벌목 방법은 톱과 도끼를 사용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톱만 쓰거나 혹은 도끼만을 쓰기도 한다.



①도끼에 의한 벌목

②도끼에 의한 벌목

③ 톱과 도끼에 의한 벌목

그림 3 : 벌목 방법

벌목은 할 때 주의할 점은 나무가 어느 방향으로 쓰러지나 하는 것이다. 보통은 산아래 쪽을 향하여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을 언제나 잘 숙지해야만 한다.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들 중의 하나는 가지가 많은 쪽이다.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나무 밑동을 수평으로 베었을 경우 나무 가지가 많은, 즉 중량이 많이 나가는 방향으로 쓰러지는 것은 불문가지다. 다음은 『인제 뗏목』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다.

반드시 양쪽, 즉 정반대 방향에서 해 들어가며 이때 나무를 넘기려는 방향에서 먼저 벌목 작업을 하는데 이 방향에서의 벌목은 나무의 직경 정도까지 끊되 끊는 부위는 가장 낮은 곳을 끊는다. 이것은 톱으로 끊던 도끼로 끊던지 같다. 가장 낮은 곳을 먼저 반쯤 끊어 놓고 다음에 그 정반대 방향에서 벌목 작업을 하되 반드시 먼저 끊어 놓은 부위보다 높은 부위를 끊는다.

33) 인제문화원, 『인제뗏목』, 2002, p.39.



이렇게 끊으면 나무가 넘어질 때 높이 끊는 쪽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낮게 끊은 쪽으로 넘어지게 된다. 선후 벌목의 벌목 부위 수평차이는 나무의 수세(樹勢), 지표면과의 수직성에 따라 수평의 차이, 간격을 결정한다.

즉 나무가 넘어려는 곳으로 약간 기울러 있다던가 그쪽 수세가 강하여 나무의 중량이 그쪽에 있다던가 할 때에는 먼저 끊은 부위와 나중에 끊은 부위의 수평 차이를 작게 하여도 쉽게 넘어려는 방향으로 넘어간다. 지표와 수세가 수직으로 되어 있거나 전자와 반대로 되어 있을 때에는 두 곳 벌목의 수평차를 많이 두어야 한다.<sup>34)</sup>

톱으로 나무를 베는 것하고 도끼를 나무를 베어넘기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나무의 손실율이다. 도끼질이 서툴다면 나무의 손실율은 그만큼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도끼질과 토질을 적절히 섞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한 쪽으로는 톱질을 해서 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쪽은 도끼질을 해서 나무를 베어낸 다음 나무가 쓰러질 방향을 예측하여 그 다음은 힘으로 밀어젖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적은 힘으로 나무를 베어낼 수가 있어 경제적이다.

나무가 넘어가면 톱이나 도끼로 가지치기를 한다. 가지치기를 해야 통길을 이용하던, 소를 끌고 가던 하여튼 하산을 하는데 용이하다. 재목으로 사용할 부분을 제외한 곳은 화목으로 사용하기에 적당하므로 따로 화목용으로 남겨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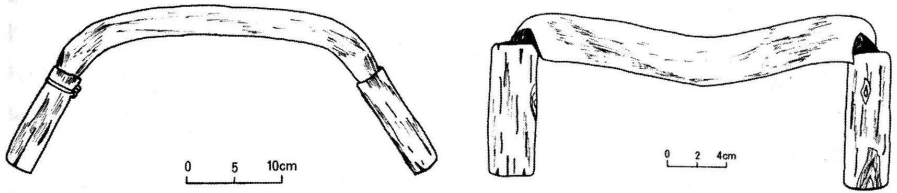


그림 4 : 꺾질벗기는 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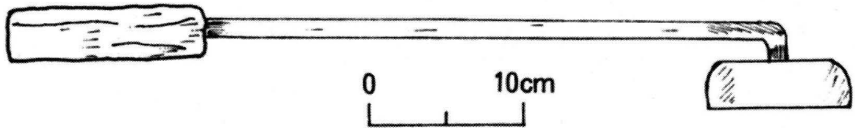


그림 5 : 인방망이

34) 인제문화원, 『인제뗏목』, 2002, p.40.

#### 4) 표지(標識)

별목한 뒤에는 별목한 나무가 어느 목상의 것인지지를 표시해야 한다. 그것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는 인방망이가 있다. 각자 자기만의 독특한 표지를 한 방망이인데, 이 방망이로 나무에 때려서 자기 것임을 표시한다. 일종의 낙인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 행정관청의 관리들이 나무 밑동을 벗겨내고 '검(檢) 자 도장을 찍은 곳에 인방망이로 도장을 찍는데, 한 군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여러 곳에 인방망이로 도장을 찍을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적심을 하는 중에 재목을 분실하면 찾기가 요원하다. 그래서 목상은 분실한 재목을 찾기 위해 따로 사람을 고용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적심하는 이들에게 재목을 찾는 일까지 같이 맡기곤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이나 궁궐 같이 커다란 재목들은 쉬이 훑히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그런 나무는 사용하려면 톱질이나 대패질을 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이미 소문이 나서 목상들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커다란 나무를 훑히기는 쉽지 않다. 뱃목으로 엮어 내려가다가 분실한 재목도 매한가지이지만, 그래도 인방망이를 찍어 놓으면 혹시라도 찾아내기가 한결 수월하다.

보통 인방망이는 쇠막대 끝에 직경 3~5cm 내외의 쇠로 양각된 도장으로 전체 길이는 30~40cm 정도이나, 작은 것은 10~15cm 정도 되는 것도 있다. 인방망이는 인제군 관내에서는 만드는 곳이 없어 대체로 외지에서 주문해 갖고 왔던 것 같다. 개인이 사용하는 인방망이에 사용된 글자를 보면, 인(人), 복(福), 국(國) 자 등이 사용되었다. 이중 국(國)자는 대체로 국유림을 벌목할 때 사용했다. 나무에 찍을 때는 검은 칠을 한 곳에 문질러서 사용했는데, 물길에 떠내려가도 잘 지워지지 않았다.

### 3. 운목

운목이란 벌목한 나무를 집목장(集木場), 즉 산밭이나 강가로 운반하는 과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나무를 짊어지고 하기에는 나무가 너무 크므로, 이를 운반하기 위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목도다. 목도는 둘 혹은 넷이서 목도줄을 짊어지고 나무를 갖고 내려오는 방법인데, 이 방법 외에도 소를 이용하거나 통길을 만들어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간혹 가다가 그냥 산 위에서 아래로 나무를 굴리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나, 이런 것은 만약에 아래에 사람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짓이라 할 것이다.

#### 1) 통길을 이용하는 방법<sup>35)</sup>

별목한 나무를 산록까지 내려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통길'을 이용하고 있다. 통길은 산곡(山谷)에 만든다. 경사도는 나무가 충분히 미끄러져 내려갈만 하여야 하되 산곡의 굴곡이 심하면 미끄러지던 나무가 그 활강세 때문에 통길에서 벗어나거나 내려가지 못하고 막힐 수 있으므로 통길의 지세는 우선 이러한 조

35) 인제문화원, 『인제뱃목』, 2002, pp.42~46.

건들을 감안한 뒤에 목재 활강에 알맞은 곳에 만든다.

통길은 목재로 둥근 관을 반으로 자른 모양으로 산꼭을 따라 만든다. 통길의 폭은 나무가 흘러내릴 수 있을 정도이면 되고 길이는 벌목 작업장에 따라 산정의 나무도 이것을 이용할 수 있을 거리인 산정 가까이까지 올라간다.

제작 방법은 맨 밑에 나무가 미끄러져 내리지 않게 가로 부목(數木)을 대고 가운데 가는 나무를 계곡 따라 길이로 놓으며 가장자리에는 가운데 놓은 나무보다 굵은 나무를 놓는다. 이렇게 되면 계곡 자체가 우묵한데다가 가운데 가는 나무를 놓고 가장자리에 굵은 나무를 놓았으므로 그 가운데 공간은 둥글게 되고 활강시키는 나무가 튕겨 나오지 않고 잘 미끄러지게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곡을 따라 세로로만 짜가는 것이 아니고 도중 여러 곳에 통길나무가 튕겨지지 않게 가로의 부목을 설치한다. 계곡을 따라 세로로 놓은 나무의 길이가 꼭 같으면 튕겨 나오기 쉬우므로 길고 짧은 나무를 섞어서 짜이도록 한다.

통길은 목조활로(木造滑路)라고도 하는 것으로 삼림이 커서 작업이 여러 해 걸리면 상설 통길을 만들기도 하나 인제의 경우는 상설 통길은 없고 목재의 운반 기일이 짧으므로 임시 통길이 전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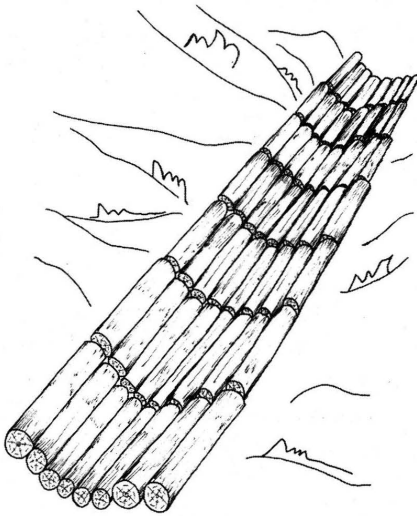


그림6 : 통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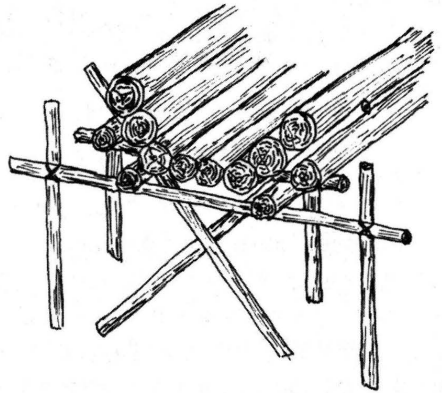


그림7 : 잔교의 구조

통길을 통하여 삼림 내의 목재를 다 하산시키고 나면 맨 위쪽에서부터 이 통길에 사용하였던 나무를 풀어 차례로 통길을 통하여 내려보내고 나면 통길은 저절로 없어지고 목재의 하산은 다 끝난다. 통길은 원목을 사용하여 만드는데 나무가 미끄러져 내리는 부분, 즉 바닥을 크기가 같은 원목으로 평면을 만들고 그 가장자리에 바닥 원목보다 훨씬 큰 원목으로 활강시키는 나무가 튕겨지지 못하게 테를 짜는 방식과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반원형의 것이 있다.

인제에서 쓰인 통길은 이 반원형 통길이다. 반원형의 통길은 반원형의 중심 부위에 직경이 가장 작은 원목을 놓고 그것을 기점으로 좌우에 꼭 같은 직경의 나무를 놓되 중심에서 양쪽 밖으로 나갈수록 나무의 직경은 점점 커가야 하고 양쪽 맨 끝의 테는 미끄러져 내리는 나무가 튕겨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직경이 두드러지게 큰 것으로 짠다.

이런 방식으로 평지에 그대로 배열하여도 원목의 굽기 때문에 저절로 가운데 반원형의 공간이 생기지만 지세가 계곡일 때는 지세 자체가 이미 반원형으로 되어진 곳이 많으므로 그러한 지세에서 이런 식으로 통길을 짜면 활강시키는 나무가 밖으로 튕겨지지 아니하고 반원형의 가장 낮은 중심부를 따라 잘 활강하여 내려간다.

통길은 지형에 따라 땅에 깔아서 만들기도 하고 잔교(棧橋)로 만들기도 하나, 인제에서의 통길은 거의가 땅에 원목을 깔아서 만들고 잔교는 만들지 아니한다. 이것은 잔교 구성이 땅에 까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작업이 복잡하며 내구성도 적은 탓이다.

그러나 지형이 파였다던가 바위가 있거나 봉과 봉 사이를 운목해야 할 형편으로 잔교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은 그 지형에 따라 군데군데 잔교를 만들기도 한다. 잔교는 다리를 만드는 원리와 같은 것으로 밑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위에 원반형의 잔교를 짠다

통길의 구배(句配)와 경사도는 활강시킬 목재의 크기, 활로면의 상태 등을 감안하여 활강시키려는 목재가 도중에 구배가 약하다던가 경사가 약하여 걸리는 일이 없을 정도로 취하고 지형에 따라 통길의 군데군데에 중간 토장(中間土場)이라는 것도 만든다.

이 중간 토장이라는 것은 지형상 정상에서 산록까지 한번에 나무를 활강시킬 수 없을 때 도중에 산정에서 내려오는 원목이 모일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 중간 토장은 주로 구배와 경사도의 문제 때문에 필요하며 이곳에 와서 머문 목재를 다시 다음 통길에 넣어 활강시킨다. 그러나 인제의 삼림 통길에는 이 중간 토장이 거의 없다. 통길의 마지막 종점을 토장이라 하여 통길을 통하여 내려온 나무를 여기에 쌓았다가 다음 운반 수단에 의하여 운목한다.

## 2) 소를 이용한 운목

토장에 쌓아 놓은 나무를 운목하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지금과 같이 육로가 발달하였을 때에는 토장까지 화물 자동차가 와서 운목을 하는 육로가 없는 곳에서는 떼로 운목했다. 인제에서 떼를 매어 띄우는 곳은 수량관계로 함강정(合江亭) 및 합강(合江)에서 떼를 매었으므로 함강 떼 엮는 곳까지 운목하여야 한다.

합강까지의 운목도 '적심'이라 하여 원목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물에 띄워 떼 매는 집목장(集木場)까지 운목하는 과정이 있고 이에 앞서 토장에서 적심을 할 강물까지 운목하는 과정이 또 있다. 이 중 후자, 즉 토장에서 적심을 할 강변까지의 운목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소가 끌어 운목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목도에 의한 방법이다.

소를 이용하여 운목을 하는 방법은 우선 소가 원목을 끌 수 있게 길을 대충 고르게 하는 작업을 한다. 노면이 파인 데는 흙으로 메우고 울퉁불퉁한 데는 깎아 내리며 굴곡이 심하여 나무가 걸릴만한 지형은 나무가 걸리지 않도록 굴곡을 평탄하게 다지는 작업을 한다.

다음은 나무를 소가 끌 수 있게 원목에 구멍을 뚫는다. 원목 밑동강쪽 절단부의 가장 가까운 곳에 도끼

로 구멍을 뚫어 소가 끄는 밧줄을 쫄 수 있게 만든다. 구멍의 크기는 밧줄을 쫄 수 있을 정도면 된다. 불필요하게 크게 뚫으면 밧줄을 꿰기는 쉬우나 원목의 손상이 크기 때문에 밧줄이 들어갈 정도가 한계이다.

밧줄은 사서 쓰는 것이 아니고 칩줄을 꼬아 쓴다. 인제 지방의 칩에는 ‘드렁칩’ 과 ‘버딩칩’ 의 두 종류가 있으나 원목에 꿰어 소가 운목할 때 쓰는 칩은 드렁칩을 많이 이용한다. 즉 이 드렁칩의 칩줄을 여러 개 베어 이것을 하나로 합하여 칩밧줄을 만들고 나무에 꿰어 그 줄의 양쪽 끝을 소의 어깨에 매어 운목한다. 이 때에 구멍을 뚫는 것을 ‘코뚫이’ 를 한다고 말한다.

칩줄 외에 피나무 껍질로도 줄을 만들고 소가죽도 일부 이용하며 느릅나무 순으로 탱개를 틀어 사용하였다. 원목을 땅에 길이로 뉘어 놓고 그 한 끝을 소가 끌어 적심을 할 수 있는 수량(水量)이 되는 강변까지 끌고 간다. 끌고 가는 과정에서 나무가 걸려 갈 수 없게 되면 사람이 지렛대와 같은 나무로 튕겨 준다.<sup>36)</sup>

그러나 적심꾼 방법수가 들려주는 내용은 이것과 사뭇 달랐다. 다음은 적심꾼 방법수가 진술한 내용이다.

이렇게 목도를 하는 것은 가을이나 봄이 올 무렵이고, 눈이 한창 쌓인 겨울에는 소를 이용하여 하산을 했다. 소로 끌 적에는 쇠로 만든 고리를 장만한다. 당시 이 쇠고리줄 가격이 쌀 한 말이었다고 한다. 이 줄을 이용하여 특별한 나무와 소를 연결한다. 물론 소에도 씨레 비슷하게 쇠고리줄을 연결할 장치를 한다.(본문 중에서)

### 3) 목도에 의한 운목<sup>37)</sup>

목도는 사람의 힘으로 운목하는 작업으로 여기에는 필요한 용구가 있다. 목도채는 길이 2m가 좀 넘고 굵기는 직경 15cm 정도의 가목이 아닌 둥근 나무다. 수종으로는 고로쇠나무, 소나무, 사시나무 등을 사용하였다.

목도채는 나무가 생긴 대로 원통으로 된 것도 있고 한가운데 밧줄을 거는 곳은 원통으로 되어 있으나 양쪽 끝의 사람이 메는 부분은 사람의 어깨에 맞도록 양쪽을 약간씩 깎은 것도 있다. 목도는 목도에 의하여 큰 중량을 운반하므로 목도채가 탄력성이 없는 나무면 부러지기 쉬우므로 고로쇠나무, 사시나무 등 탄력이 강한 목질의 나무를 사용한다.

목도줄은 목도끈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직경 5cm 내외의 밧줄로 길이는 두 겹으로 하여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원목에 걸러 그 원목이 땅에서 15cm 정도 들릴 길이면 된다. 키가 작은 사람과 큰 사람에 따라 목도줄의 길이를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목도줄로는 피나무 껍질이나 삼을 쓴다.

피나무 껍질은 산에서 살아 있는 피나무의 껍질을 벗겨 물에 담가 서 누굴누굴하게 한 뒤에 이를 하나씩 합하여 직경 5cm 정도 되게 만들어 쓴다. 이 피나무 껍질은 강하여 무거운 중량에 잘 견딘다. 삼을 말린 껍질을 인제에서는 ‘조락’ 이라고 하는데 피나무 껍질을 쓰지 아니하면 이 조락으로 목도줄을 만들기도 한다.

36) 인제문화원, 『인제뗏목』, 2002, pp.46~47.

37) 인제문화원, 『인제뗏목』, 2002, pp.47~51.

만드는 방법은 앞의 피나무 껍질 때와 같고 때로는 이 두 가지를 섞어 만들기도 한다.

목도질은 원목의 운목뿐 아니라 한두 사람의 힘으로 운반하기 힘든 것을 옮기는 데도 사용되었다. 목도질은 4목도·6목도·8목도가 있다. 운반하려는 원목의 크기, 중량에 따라 목도질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2목도도 있다.

2목도는 원목의 뒷끝을 땅에 닿게 하고 원목의 앞 끝에서 두 사람이 목도질을 하여 걸어가면 앞 끝은 땅에서 들렸으나 뒷 끝은 땅에 닿은 채 끌려서 운목이 된다. 4목도는 4명의 목도꾼이 2조로 나뉘어 하고, 6목도는 6명의 목도꾼이 3조로 나뉘어 하며, 8목도는 8명의 목도꾼이 4조로 나뉘어 하는 목도이다.

신장이 비슷한 사람끼리 한 조가 되며 6목도나 8목도의 경우는 키가 맞지 않으면 중량이 고루 실리게 목도줄로 조절을 한다. 조와 조의 간격은 등분하여 고르게 한다.

목도줄을 감고 목도채를 등에 올려놓으면 전 인원이 함께 일어서기 위하여 앞에서 선소리를 부른다. 그 선소리에 따라서 동시에 일어서고 선소리에 따라서 발을 맞추어 행진한다. 발이 맞지 않으면 운반물의 요동이 심하여 행진하기가 어렵다. 도중에서 쉬다던가 짐목장에 다 운반하여 원목을 내려놓을 때도 선소리 구령에 맞추어 일시에 앉는다. 다 옮기고 나면 목도줄과 목도채를 거두어 다시 간다.

목도질을 할 때는 반드시 목도소리를 한다. 목도소리는 앞 조가 부르고 나면 후미 조가 그대로 복창을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피로를 풀고 능률을 올리려는 일반 노동요와는 달리 걸음걸이를 맞추려는데 있다.

걸음걸이가 맞지 아니하면 운반하려는 원목이 흔들려 운반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몸을 다치기가 쉽다. 가사의 내용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나 '여차하니 여차' 하고 합창하는 후렴이 행진의 보조를 맞추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인제 땃목의 운목 목도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 \* 목도소리

이나마가 어디서왔나	여차하니 여차
방태산 제일봉에	여차하니 여차
낮이면은 일광을타고	여차하니 여차
밤이면은 이승을먹고	여차하니 여차
낙락장송 되었다가	여차하니 여차
만민간의 힘을빌어	여차하니 여차
인제합강에 나왔도다	여차하니 여차
이나마를 끌어다가	여차하니 여차
지역자로 집을짓고	여차하니 여차
한오백년 살고지고	여차하니 여차
가자가자 어서가자	여차하니 여차
고향찾아 어서가자	여차하니 여차
나귀등에 솔질하여	여차하니 여차
소고안장 지어타고	여차하니 여차
오작교건너 광한루가자	여차하니 여차
노류장화 인개유지	여차하니 여차
만첩청산 어디려나	여차하니 여차
다죽다죽 드린정어	여차하니 여차

어이하여 변할손가	여차하니 여차
도중한식 바쁜몸이	여차하니 여차
점심참이 늦어진다	여차하니 여차
날아가는 원앙새야	여차하니 여차
너와나와 짝을지어	여차하니 여차
노세노세 젊어노세	여차하니 여차
늙어지면 못노나니	여차하니 여차
마오마오 그리마오	여차하니 여차
사람팔시 하지마오	여차하니 여차
이팔청춘 소년들아	여차하니 여차
백발보고 웃지마라	여차하니 여차
먼데사람 듣기 좋게	여차하니 여차
곁에사람 보기 좋게	여차하니 여차
뜨물동이 호박씨날듯	여차하니 여차
빨랫줄에 제비놀듯	여차하니 여차
어화등실 잘도는다	여차하니 여차
창포밭에 불나비날듯	여차하니 여차
등실등실 잘도는다	여차하니 여차

후렴이 ‘여차하니 여차’로 되어 있기도 하고 ‘허영차 허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가사 없이 후렴만으로 부르기도 하나 목도노래는 선후가 있어 후창은 반드시 선창을 복창하게 되어 있다.

이 목도노래는 박진감도 있지만 애조 띤 4·4조의 가락에 목도꾼들의 흥취가 멋과 해학으로 담겨 있다. 4·4조의 매김소리가 나오고 후창으로 4·3조의 받는 소리가 ‘여차하니 여차’하고 뒤따랐다. 선창은 목도꾼 중에서 가장 힘세고 경험이 많은 왼쪽 선두가 불렀다고 한다.

이 목도노래의 가사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또는 목도꾼의 신명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틀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불렀던 것이다. 운반해야 하는 통나무의 무게나 운반 거리에 따라 목도노래의 길이는 길고 짧아질 수 있었다고 한다.

소나 목도로 집목장에 원목이 옮겨지면 그 옆에 있는 하천에 ‘적심’을 한다. 물론 적심은 물이 많은 하천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 4. 적심

### 1) 적심꾼

적심이란 하천 물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나무가 강변에 걸리면 물을 타고 흐르도록 떼내려보내는 주는 일을 말한다. 이렇게 적심을 하는 이유는 물줄기가 뗏목을 만들만큼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나

무를 하류로 운송하던 방법이었다. 인제에서 적심은 주로 내린천이나 인북천에서 많이들 했다. 내린천과 인북천이 합해지는 곳에 합강이 있다. 이곳에서 양 물줄기를 타고 내려온 뗏목을 합해 뗏목을 엮었다. 인북천은 서화에서 내려오는 서화천과 한계리에서 내려오는 한계천이 원통에서 합해서 원통천이 되어 합강까지 흐르는 물줄기다. 그런데 서화천 쪽에서는 그다지 적심이 많지는 않았던 듯싶다. 내린천 쪽도 상남면에서 내려오는 불줄기와 기린면 내 여러 작은 물줄기들이 합해 내린천을 이룬다.

당시 적심하는 경우 공가를 살펴보자. 내린천에서 적심을 했던 방법수의 경우, 당시 김매는 일당이 10전이고, 조금 힘든 일 같으면 15전을 받던 때였는데, 적심을 하면 평균 40전, 50전을 받았고 더구나 쌀밥에 참까지도 먹었으니 상당히 고임금이라 할 수 있었다. 물론 공가는 선불은 아니었다. 간혹 가불을 요구하면 목상이 이를 들어주기도 했다. 대체로 목상들이 임금을 때먹지는 않지만, 그래도 임금을 때먹고 도망치는 목상도 간혹 있었다.

적심을 하는 것도 날품팔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팀을 이뤄 도급을 받아 일을 많이 했다. 이를 유하(流下)로 일을 한다고 했다. 이럴 경우 물의 흐름이 좋기만 하면 일을 쉬어 끝낼 수 있으므로 상당히 유리하지만, 물이 나쁠 경우 시일이 많이 걸려 되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적심은 지렛대 하나만 가지고 한다. 지렛대는 물푸레나무로 만든다. 보통 네 자 길이다. 물에 빠질 때도 있기에 해염을 칠 줄 알아야 적심을 한다. 적심은 주로 6월부터 했다. 장마철은 적심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다. 물의 흐름이 빨라 쉬어 나무를 찾아 떠내려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물이 불어나 암초에 걸린 나무를 데미 떨 때에는 위험하기도 했다. 적심을 하는 이들은 필수적으로 해염을 잘 쳐야만 했다.

사실 적심을 하는 계절은 농사철하고 겹치므로 어떤 때는 농사일이 급하면 적심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일당의 차이가 심하므로 어떤 때는 품파는 사람을 써서 농사를 짓게 하면서 본인은 적심을 하러 갈 때도 있었다. 그러나 품파는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으므로 농사가 한창일 때는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적심을 못할 때도 있었다. 보통 아이집을 매고 여유가 있어야 적심을 시작한다.

적심한 원목이 유실되면 적심하던 사람들이 하류로 내려가 유실된 원목을 찾는다. 이 작업을 '거둠'이라 한다. 이 거둠을 할 때에는 '인방망이'의 표지에 의하여 원목의 소유자를 식별한다. 자기 팀의 원목이 아니면 거두지 않는다. 이를 위해 특별히 사람을 따로 고용하지는 않는다. 보통 적심하는 이들이 강변을 훑어 내려가면서 이를 유심히 살펴보면 모두가 나온다. 실제로는 적심을 하고 있는 원목을 훑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왜냐하면 걸렸을 경우 그 뒤탈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적심한 원목의 수와 합강에서 걷어올린다 원목의 수가 맞아야 하고 적심이 끝났는데 합강에서 걷어올린 원목의 수가 적심 때의 수보다 적으면 적심꾼은 다시금 강변을 오르내리며 후시라도 발견하지 못한 나무가 있나 살펴본다. 이 와중에 후시 일반 민가에서 가져가지는 않았나 살펴보기도 한다.

적심은 물만 계속 내려가면 8~9월까지도 할 수 있다. 적심을 할 적에는 보통 5~6명이 한 조를 이루는데 많을 때는 10명이 한 조를 이루기도 했다. 강 양쪽으로 갈라서서 하는데, 물이 깊은 소에는 직접 헤엄쳐 들어가기도 했다. 하천 중간 곳곳에 암초가 많았다. 그래서 나무가 걸리면 그 위에 또 나무가 걸리고 해서 마치 모양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 일행 중에서 반장이 들어가 그 더미를 풀어헤친다. 적심꾼들은 적심을 하러 나가기 전에 반장을 뽑는다. 이른바 '오야가다'이다. 철떡꾼이라 부르기도 했지만, 잘 사용하는 말은 아니었다. 나무가 많이 쌓이면 '데미를 푼다'고 하여 적심꾼 여럿이 참여를 했다.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평상시 갖고 다니던 지렛대 하나만 갖고 들어가 그 일을 했다. 데미를 푸는 것을 데미를 떨었다라고도 한다.



원목이 더미가 생기면 운목이 불가능하므로 이것을 와해시켜 원목이 떠내려가도록 하는 작업을 해야 하고 이 작업을 ‘데미떨이’ 또는 ‘데미치기’ 라고 한다.(중략)

이 데미떨이를 하는 사람을 ‘철떡꾼’이라고 부른다. 철떡꾼은 지렛대 하나를 들고 이 지렛대로 데미를 친다. 데미는 육지에서 칠 때도 있고 물 속에서 칠 때도 있으며 때로는 원목 위에 올라가서 칠 때도 있다. 데미를 쳐서 나무가 제대로 흘러가게 하는 작업을 ‘제미치기’라고도 한다. 데미떨이를 하여 원목이 무너져 내리면 철떡꾼은 나무보다 한 발자국 앞서 피신하여 안전을 도모한다.<sup>38)</sup>

적심을 하러 나갈 때 특별한 금기사항은 없다. 워낙에 없이 살던 때라 가리고 뭐고 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적심을 나가면 단체생활을 한다. 하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침 6시경이면 벌써 일터로 나가는데 그전에 아침을 해먹는다. 해가 저야 일이 끝난다.

적심을 하러 나가면 적심꾼들은 보통 팬티 한 장만 걸치고 일을 한다. 사람들도 많지 않던 시절이어서 초보자들은 팬티마저도 벗어 던지고 맨몸으로 일을 할 적이 많다. 어차피 하는 일이 물 속으로 들어가 나무를 하천 복판으로 끌어내는 일이므로 팬티마저도 벗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은 그 당시 팬티 자체가 없었기에 맨몸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가 합강정 근처에 가면 근처에 여자들이 나와 있다가 훌쩍 벗은 몸을 보고는 키득거린다. 사내들이 부끄러워 불알을 움켜쥐고 있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럴 경우 그 여자들이 더 짓궂게 말을 한다. “물가 쫓은 개쫓인데 흔들면 어머니?” 대개 그런 아줌마들은 술을 파는 아줌마들이었다.

놀이 좋기는 합강정이요  
 넘기 좋기는 거니고개라<sup>39)</sup>

인제에 전하는 합강정 소리다. 합강정에 오면 정자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이 좋기에 좋다는 뜻이 표현된 노랫말이다.

배소에서 합강리까지는 70리 길이다. 이 길을 적심을 하면서 가자면 보통 20일은 걸린다. 강통은 꾸불꾸불하므로 사실 70리가 더 된다. 갈보가 있는 주막은 없으나, 선술집은 많았다. 5전짜리 술 한 사발, 10전짜리 술 한 사발, 이렇게 사발로 술을 팔았다. 물론 안주는 김치이며 술은 마시면 안주는 공짜였다. 그런 대폿집들이 하추리에 두서너 집, 하답에 서너 집이 있었다.

## 2) 복(服)지기

복(服)지기는 적심꾼들의 뒤를 봐주는 사람이다. 보통 적심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많거나 혜엄이 자신이 없는 사람이 복지기를 한다. 적심하는 사람들은 보통 팀을 이루어 움직이는데, 한 팀은 7~10명이 보통이다.

적심하는 이들은 적심을 할 때 입는 옷과 당일 일이 끝나고 난 후 갈아입을 옷을 보통 같이 갖고 다닌

38) 인제문화원, 『인제뗏목』, 2002, p.53.

39) 인제군, 『인제군지』, 1980, p.412.

다. 이들 옷을 간수하는 것이 복지기가 해야 할 일이다.

그 다음 일은 적심하는 사람들의 신발을 관리하는 일이다. 물가 자갈밭이나, 혹은 물속에서 일을 하므로 적심하는 이들의 짚신은 쉬이 떨어진다. 더구나 그들의 적심신은 일반 짚신보다도 부드러워야 하므로 더욱 쉬이 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목상은 아예 적심용 신발을 죽(1죽은 10결레)으로 구입하여 복지기에게 맡기기도 한다. 그러면 복지기가 이 신발을 갖고 다니면서 적심하는 이들의 짚신이 헤어지면 즉시 갖다 주어야 한다. 목상이 적심용 신발을 구해 주지 않을 경우는 적심꾼들이 자기 비용으로 신발을 마련해야 한다.

복지기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아무래도 삼시 세 끼 끼니를 해결해주는 일이다. 아침, 점심, 저녁을 해결 민가를 구해놓고, 그들에게 밥을 해 먹이는 일이다. 보통 점심을 먹는 집하고, 저녁과 아침을 먹는 집은 다른 집이다. 왜냐하면 적심을 하면서 강 하류로 차츰 이동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류로 이동하는 과정에 곳곳에 밥을 해줄 집을 물색해야 한다. 당시에 전문적으로 밥을 해 파는 식당도 없던 시절이라 주로 민가를 이용하는데, 복지기가 적심꾼들을 위해 계약을 할 때는 쌀밥을 하여 먹이되, 밥을 해주는 집안 식구들도 푸짐히 먹게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 물론 밀반찬으로는 김치 하나면 된다. 그렇게 쌍방 간에 합의가 되면 그 집은 적심꾼들에게 밥을 해주고, 그 집 식구들도 모처럼 쌀밥을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당시 일반 민가들이 먹을 수 있는 밥은 옥수수밥이나 조밥, 감자밥이 전부였다. 그런데 쌀밥을 해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사치였다. 그래서 보통 민가에서는 당연히 밥을 해주고 선호했다.

잠자리를 구하는 일도 복지기의 몫이다. 보통 저녁을 먹은 집에서 잠을 청하므로 이것은 큰 문제는 없다. 저녁 일과가 끝난 후 적심을 했던 분들이 술을 요구할 때가 있다. 그러면 술을 구해주는 것도 복지기의 일이다. 이렇게 먹는 술값은 공가에서 계산한다. 술은 새참으로 한낮 중에도 두 번 정도 제공이 된다. 대낮에 참으로 제공이 되는 술은 목상이 제공하는 것으로, 보통 한 번 참에 막걸리 한 사발씩을 제공한다.

적심을 여러 날 하다보면 지쳐 기운이 빠진다. 그러면 적심을 했던 사람들이 모여 하루는 돼지를 잡아 영양을 보충한다. 이때 돼지를 잡고, 또 잡은 돼지의 껍질을 면에 공출품목으로 제공하는 이런 귀찮은 뒷치닥거리를 복지기가 모두 해야 한다. 당시 작은 돼지 한 마리 가격은 3원에서 5원 정도였다. 돼지는 적심꾼들이 추렴을 해서 먹었다.

## 5. 뗏목 만들기

원목을 물에 띄워 적심을 하면 원목은 수세를 따라 하류로 흘러간다. 내린천이든 인북천이든 양 강물 줄기를 따라 하류로 흘러온 나무는 합강리 합강에서 집목하는 이들에게 모여진다. 집목하는 분들은 갈고리를 가지고 떠내려오는 나무를 하나둘씩 모아 놓는다.

이 나무를 대상으로 곧바로 뗏목을 엮는 작업에 들어간다. 작업은 강가에서도 하지만 물속에 들어가서도 일을 할 수 있다. 어차피 떠내려갈 뗏목이므로 물에서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 정도로 썩을 것을 걱정한 필요는 없다. 또한 물의 부력을 이용하여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다음은 뗏목을 엮는 방법이다. 『인제뗏목』에서 전문을 인용했다.<sup>40)</sup>

강물이 불고 시기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면 강 옆에 쌓아 두었던 통나무의 껍질을 깨끗이 벗겨 목도 방법을 이용, 합강리 우소로 운반하여 물에 띄운 상태로 뗏목을 엮기 시작한다. 뗏목을 엮을 때에는 모든 작업이 물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부들은 물 위에 떠 있는 통나무를 모아 들이는 사람과 뗏목을 잘 엮는 기술자로 나뉘어 작업이 진행된다

뗏목을 엮는 방법에서는 지방과 하천의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칠낭쿨이나 쇠줄로 묶거나 구멍을 뚫어 바늘귀를 꿰는 것과 같이 꿰어 묶거나 또는 쇠고리를 박고 여기에 나무널쿨이나 밧줄을 꿰어 연결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인제 지역에서 옛날부터 사용되었던 것만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일단 우소에 모인 통나무는 산판에서 가지치기를 하면서 길이 20자로 끊어낸 것의 양쪽 끝에 구멍을 뚫는다. 구멍을 뚫을 때에는 도끼와 끌을 이용하여 칠끈이 관통할 수 있도록 맞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구멍은 물론 통나무의 굵기에 따라 크고 작아지는데 큰 통나무는 구멍이 크고 작은 통나무는 구멍도 작은 편이다. 지름이 60~90cm, 길이가 600cm 정도 되는 것을 엮은 것을 부동뎨, 지름 12~15cm, 길이 360~390cm의 통나무를 엮은 것을 가재목뎨, 통나무를 네모 기둥으로 제제한 나무를 묶는 것은 편목뎨, 그보다 더 가는 것을 엮은 화목뎨, 서까래뎨가 있는데 엮는 방법은 모두 같다.<sup>41)</sup>

궁궐뎨의 경우는 지름이 커서 몇 개 묶지 못하나 부동뎨의 경우 맨 앞에 엮는 통나무의 숫자는 25~35 개를 한 묶음으로 하는데 너비는 5~9m, 길이 6m 정도 된다. 제일 앞에 엮은 한 묶음을 '앞동가리' 라고 부르며 그 뒤로 4동가리를 더 붙여 뎨 한 바닥이 완성된다.

뗏목은 언제나 5동가리를 연결하여 한 바닥으로 만들어 띄우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 동가리부터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동가리라고 부르는데,<sup>42)</sup> 둘째 동가리부터 다섯째 동가리까지 뒤로 가면서 각각 앞의 동가리보다 2~3개씩 통나무를 줄여서 묶어가기 때문에 전체의 모양은 역류선형(逆流線型)이 된다.

각 동가리의 통나무는 둘째 33개 정도, 셋째 31개 정도, 넷째 29개 정도, 다섯째 27개 정도로 묶는데 그 수는 강물의 양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그래서 한 바닥을 엮어 완성하면 150~200개의 통나무가 묶이는데 요즈음의 짐차로 2차분은 충분히 된다.

앞동가리의 앞머리를 묶을 때에는 통나무의 뿌리쪽이 앞으로 가고 위쪽이 뒤로 가게 늘어 놓고 이미 뚫어 놓은 통나무의 구멍에 칠끈을 꿰어 묶는데 통나무가 흠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위에 '등테'를 대고 한 구멍에서 다음 구멍으로 칠끈을 동여매는 사이 등테에 한번씩 말아 묶은 후 옆의 통나무 구멍에 꿰기 때문에 아주 든든하다

이 때에 쓰는 침은 오래된 드렁침을 물에 충분히 불렀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질기다. 등테는 '등테

40) 인제문화원, 『인제뗏목』, 2002, pp.54~61.

41) 『인제뗏목』에 실린 크기로 보는 재목의 순서는 궁궐, 부동인데, 이는 박민일의 책 『아리랑 정신사』(p.183)에서도 발견이 된다. 그러나 박해순의 구술로는 부동이 가장 큰 나무며, 궁궐은 그 다음이라 한다. 부동, 궁궐의 순서는 『강원의 전통민속예술』(p.162)에서도 엇보인다.

정선뗏목의 크기는 궁궐, 연목, 화목, 편목, 굴피뎨로 나눈다. 배선기, 『남한강 따라 천리 길』, 『도원문화』 4호, 2001, p.59.

42) 이를 손용인 응은 졸동, 앞부담, 허리동, 뒷부담, 뒷동이라 불렀던 것 같다.

김열규, 『아리랑, 역사여, 겨레여, 소리여』, 조선일보사, 1987, p.303.

가지' 라고도 하는데 잘 부러지지 않는 튼튼한 참나무를 이용하는데 굵기는 약 6~7cm이며 길이는 앞머리를 모두 묶을 수 있도록 5~9m가 되는 것을 쓴다.

이러한 등테는 각 동가리의 앞머리와 뒤쪽을 묶을 때 모두 사용하며 드렁침을 꼬아서 만든 굵은 침끈으로 앞머리의 등테 오른쪽 끝과 통나무를 한데 묶고 또 그 끈을 늘려 뒤등테 왼쪽 끝과 그 곳의 통나무 끝을 한데 묶은 후 다시 앞머리 왼쪽 끝과 뒤쪽의 오른쪽 끝을 X자형으로 엮어 각 동가리가 더욱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다. 이 X형으로 묶은 줄을 '가줄' 이라고 한다.

첫 동가리부터 다섯째 동가리를 한 바닥으로 묶을 때에도 드렁침을 이용하여 앞동가리의 양쪽 끝과 뒷동가리의 앞쪽 양끝을 단단히 붙잡아 매어둔다.

그러나 맨 앞동가리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묶는데 이는 앞동가리의 앞사공이 운전할 때 그 방향을 자유롭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한 바닥의 뗏목이 묶여지면 앞동가리의 앞머리 가운데에 Y자형의 '강다리' 를 엮어 세우는데 이것을 배의 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레' 를 올려 놓고 뗏목운전을 하기 위한 받침대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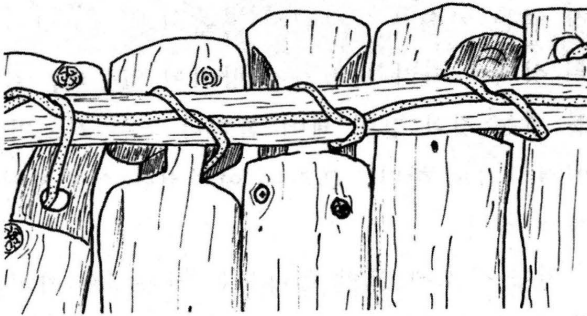


그림8 : 뗏목 엮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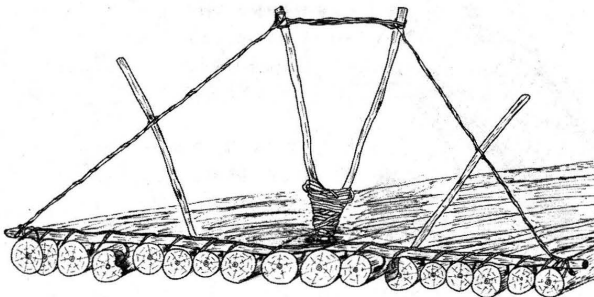


그림 9 : 앞동가리와 강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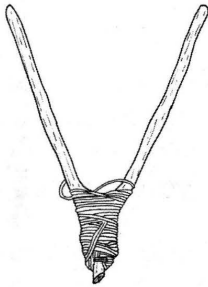


그림 10 : 강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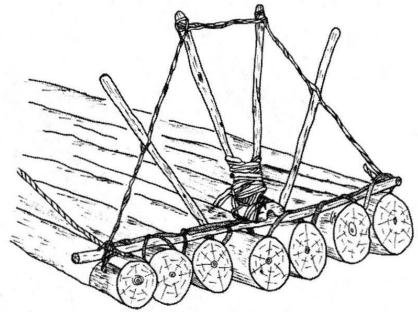


그림 11 : 다섯째동가리와 강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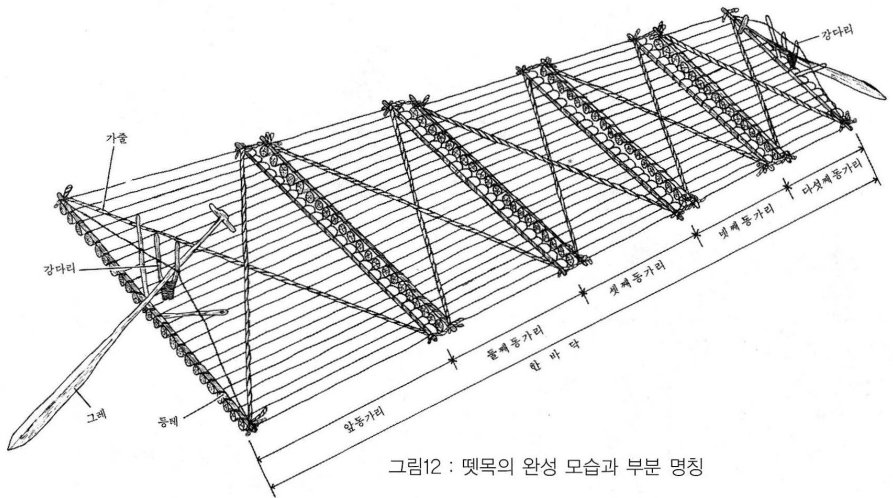


그림 12 : 멧목의 완성 모습과 부분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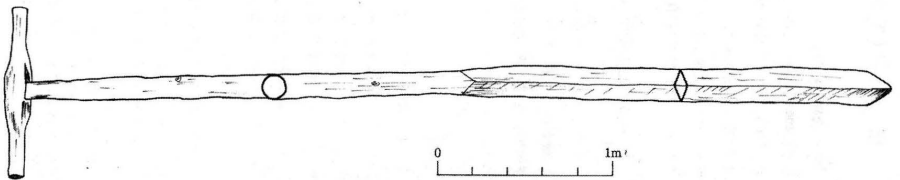


그림 13 : 그레

강다리의 위치는 등테에서 조금 뒤쪽에 구멍을 파서 그 밑을 박고 고정시키고 그 옆에 버팀 나무를 세워 만든다. 이와 같은 강다리는 다섯째 동가리의 꼬리쪽 가운데에도 똑같은 형식으로 설치하는데 이는 앞사공의 운전을 뒷사공이 돕기도 하고 운행을 순조롭게 하려고 만든 것이다.

이 앞과 뒤 강다리에 올려놓고 방향을 잡아 줄 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그레' 라고 하는데 지름 10~15cm 되는 단단한 소나무를 깎아 만들며 그 한쪽에는 T자형의 손잡이를 매달아 놓고 물 속에 들어가는 쪽은 납작하게 깎아 물을 세차게 밀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레의 길이는 뗏목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5~7m 정도가 된다.

이렇게 하면 뗏목 한 바닥이 완성되는데 2~3사람의 기술자가 한 바닥을 엮는 기간은 2~3일 걸린다고 하며 뗏목이 합강에서 한창일 때에는 100~150바닥이 한꺼번에 엮어졌다는 경험자들의 말로 보아 그 장관을 상상할 수 있겠다. 뗏목은 통나무만 운반하지 않고 인제 지방에서 구워진 옹기나 서울 사람들이 사용할 뿔나무를 실어다 주기도 하는데 이것을 텀으로 신는다 하여 '웃침치기' 라고 한다.

뗏목이 강 위에 떠내려갈 때 앞과 뒤에 설치한 그레는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방향을 잡아 주는 키의 역할을 한다. 물론 강물의 흐르는 속도에 맞기는 것이지만 물길을 찾고 강을 낀 양쪽의 강변이 암벽·모래·돌판·계곡의 차이, 수심의 깊고 얇음, 느리거나 깊은 여울, 소용돌이·암초의 있고 없음을 파악하여 뗏목의 방향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앞·뒷사공은 실사이 없이 운전을 한다. 뗏목을 조립할 때 잊지 않아야 될 것으로 사대가 있다. 이것은 중간에 뗏목이 강 밑바닥에 닿았을 때 밀어내는 작업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제 합강에서 춘천까지 운행하는 뗏사공을 '골안뗏사공' 이라 하며 이들은 춘천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사공이며, 그대로 춘천에서 정박하였다가 서울까지 계속 내려가는 뗏사공이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춘천에서 서울까지만을 운행하는 뗏사공을 '아래뗏사공' 이라 이름하기도 한다.

인제에서 조립된 다섯 동가리 한 바닥 뗏목은 춘천에 와서는 북한강과 소양강이 합류하여 강물의 폭이 넓어지고 수심이 깊어졌음을 이용하여 세 바닥을 다시 묶어 하나의 뗏목으로 합쳐 묶어 서울까지 내려간다.

이 때 앞에 다섯 동가리짜리 2바닥을 묶고 그 뒤에 1바닥을 꼬리같이 붙여 완성한다. 이 큰 뗏목에는 앞사공이 2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1명이 운행할 수도 있으며 뒷사공은 그대로 1명이었다. 춘천에서 서울까지는 강물이 넓고 깊으나 위험한 여울이 없어 큰 뗏목이 유유히 떠내려 갈 수 있다.

## 6. 벌류

### 1) 강치성(江致誠)

뗏목은 그 크기에 따라 부동, 궁궐, 편목, 연목, 화목으로 구분한다. 부동이나 궁궐은 아름답리 나무로 이른바 황장목을 의미한다. 보통 22자 길이로 엮어지는데, 25~30개를 묶어서 한 동가리를 만든다. 이런 동가리 다섯 개를 합해야 하나의 바닥이 된다. 그러니까 뗏사공은 뗏목 한 바닥을 운행하는 셈이 된다.

뗏목은 합강정 앞 합강머리에서 엮는다. 합강머리는 예로부터 이름난 곳이었다. 조선시대 이용규(李應

奎)<sup>43)</sup>는 이곳의 아름다움을 명사백석합강두(明沙白石合江頭)라 표현할 만큼 아름다운 곳이었다.

明沙白石合江頭 두 줄기 강 머리에 모래 맑은 곳  
 笠樣高亭半橫樓 삿갓같은 정자가 우뚝히 섰다  
 萬戶臺空春一夢 만호대 비어 있어 춘몽과 같고  
 中央檀古月千秋 낡은 단 한가운데 달만 비치네  
 飛霞孤鷺雁端沒 안개속에 백로는 날며 잠기고  
 短簾長茄日下遊 풍악소리 즐기며 하루를 논다  
 望裏山川皆勝狀 보이는 산수마다 승경이기에  
 麟城從此檀名休 여기가 인제성의 명승이로세<sup>44)</sup>

뗏목이 완성되면 우선 강치성을 올린다. 강치성을 물고사라고도 부른다. 이번 뗏목 길도 무사히 다녀 올 수 있도록 기원을 올리는데, 예전엔 무당이 주로 이 일을 했었다. 이때 준비하는 제물은 돼지머리, 채 나물 세 접시, 메 세 그릇, 포 한 개, 삼색실과 소지용(燒紙用) 한지 석 장(목상, 앞사공, 뒷사공용)이다.

이 때 올리는 강치성 제문(祭文)은 다음과 같다.<sup>45)</sup>

유세차

불계부정 택일하여 흥동백서 좌포우혜 외적내탕 진설하고 소지발원 하나이다.

동방갑을 용왕신

남방병정 용왕신

서방경신 용왕신

북방임계 용왕신

중앙무기 용왕신

사해팔방 용왕신

소례로 드린 정성 대례로 받으시고 합강정을 출발하니, 앞여울 밑에 거미소, 실바우 밑에 꿩의여울, 비트리 밑에 송곳들, 쾌팽이 밑에 쥐젓여울, 십리허간 에 사리여울, 성황당 밑에 스레여울, 포와리 밑에 개여울, 제비여울 밑에 망태 여울, 여울 여울 굽이굽이 다 지나서 신연강을 지나갈 때 비나이다.

무사 하강을 비나이다.

무사 하강을 비나이다.

43) 이응규는 인제군 『읍선생안』에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황응규(黃應奎)의 오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인제읍 지』, (p.36.)에 보면 황응규는 1572년 9월에 인제군으로 왔다.

44) 인제군향교편찬위, 『인제군향교』, 1996, p.325~326.

45) 인제문화원, 『인제뗏목』, 2002, p.64.

인제에서 춘천으로 가는 과정에 여러 개의 여울이 있다. 이중 포와리, 쾌갱이(쾌갱이) 같은 여울은 상당히 위험했기에 뗏사공이나 목상이나 무사안전을 기원하려고 성심을 다하여 빌었다. 박해순이 기억하기로는 인제읍에서 감지성은 대목상 우모리가 주관을 많이 했었다고 한다.

감지성이 끝나면 목상으로부터 ‘발기장’ (떼의 나무 수를 기록한 계산서)을 받아 출발을 한다. 발기장의 크기는 보통 A4용지 크기로 한지로 만들어졌는데, 한두 장 정도 되는 간단한 것이다. 발기장에는 이번에 출발하는 뗏목의 수량과 보내는 날짜와 받는 이 등 전달에 필요한 것들이 적혀 있었다. 이 발기장은 앞사공이든 뒷사공이든 아무나 갖고 간다. 보통은 가슴에 넣고 운행을 하는데, 혹 옹기라도 실을 때면 옹기 속에 넣어 놓기도 하였다. 뗏사공들은 아무리 물결이 쳐도 발기장을 물에 젖게 하지는 않았다 한다.

뗏목이 출발할 때 가족들은 전송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송을 하면 아주 이별을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특히 여자 무당을 제외하고는 일절 여자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다.

## 2) 벌류(筏流)

벌류란 뗏목이 물의 흐름을 타고 운행한다는 뜻이다. 인제에서 춘천까지는 1바닥이 가는데, 1바닥에는 앞사공과 뒷사공 두 사람이 탄다. 앞사공은 ‘물말기’를 잘 보아야 한다. 물말기를 잘 보아야 쉬이 뗏목이 나갈 수 있다. 물말기를 잘 타지 못하면 뗏목이 강변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힘이 두 배로 들기 때문에 앞사공이 물말기를 잘 보는 것도 운행을 쉽게 하는 주요한 기술이다.

인제(麟蹄)에서 춘천(春川)까지는 하루가 걸리고, 춘천에서 서울까지는 물이 좋으면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15일이 걸린다. 춘천까지는 당일도 가능하다. 그래서 도시락을 준비해 다녔는데, 도시락은 오늘날의 주먹밥과 비슷하게 만들어 형겅에 싸 가지고 다녔다. 식수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었다. 당시는 오늘날과는 달리 냇물이 워낙에 깨끗해 그냥 강물을 떠 마시면 그만이었다.

뗏사공이 준비해 가는 물품도 단출하기 그지없었다. 옷차림이야 중의적삼이면 그만이었고 짚신도 보통 두 켤레를 장만해 간다. 한 켤레는 신고 가는 것인데, 뗏목 위라 할지라도 짚신은 꼭 신고 있었다. 맨 발로 있기에는 발바닥이 아프기 때문인데, 이렇게 춘천까지 도달하면 짚신이 헤어져 버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또 한 켤레는 강다리에 걸어놓는다. 이것은 돌아올 때에 신는 것이다. 그러나 뗏목 위에서 단련이 된 사람은 아예 한 켤레만 강다리에 걸고 간다. 뗏목 위에서는 맨발로 지내기 때문이었다.

인제에서 아침 8시경에 출발하면 오후 4~5시경이면 춘천 소양통(昭陽通~昭陽路 윗다리 부근)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도 물이 좋을 경우이고 물이 나쁘면 여러 날이 걸렸다.

뗏목 위에 화목이나 옹기를 신고 가기도 한다. 남면 부평리에 옹기점이 있어서 이곳에서 많은 옹기를 뗏목 위에 싣기도 하였다. 또한 화목도 많이 실었다. 목상은 뗏목만 무사히 가져다주면 되므로 뗏사공이 이런 것을 실어도 상관을 하지 않았다. 대체로 화목은 목상이 자기 것을 싣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경우 뗏사공은 공가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었다.

급하게 춘천으로 가는 사람들은 혹 뗏목에 태워주기도 한다. 그러나 하루종일 뗏목 위에 셋 가야 하므로 여간한 체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탈 수가 없었다. 그렇기에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들을 태울 수는 없었다. 물론 선가는 받지 않는다.

춘천에 도착하면 3바닥을 엮어서 1바닥을 만든다. 북한강과 소양강이 합해지면서 수심이 깊어져 3바닥으로 만들어도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이다.<sup>46)</sup> 그리고 사공도 앞사공은 두 사람이 하고, 뒷사공은 1명이



한다. 처음 세 바닥을 몰고 춘천까지 온 사람은 3바닥이므로 총 6명이다. 이중 3명은 집으로 돌아가고, 남은 3명이 춘천에서 서울로 뗏목을 몰고 간다.

춘천까지는 그럭저럭 하루 이틀에 간다고 해도 서울로 가는 일은 상당히 여러 날이 걸렸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떼 위에서 간단히 쟁겨온 주먹밥으로 요기를 하기도 했다. 밤이 오면 주막을 찾아 숙박을 해결하는데, 혹 근처에 민가가 없으면 강가 돌무지(이를 버레라 한다.)에 뗏목을 묶어놓고, 그곳에서 선잠을 청하기도 했다. 어떨 때는 밤에도 뗏목을 운행하는 경우도 있다.

운행 중에 여울에서 잘못 운행하여 떼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다시 흩어진 떼를 모아 다시금 엮는데, 이럴 때 오고가던 다른 뗏꾼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도와주곤 했다. 뗏꾼들의 협동심은 대단하였는데, 사실 거의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니 인지상정이라 해야 할 것이다. 뗏목을 묶은 칩unk이 끊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나무가 부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흩어진 나무를 주워 다시 엮으면 그만이다. 혹 찾지 못한 나무가 있어도 하루로 내려가다 보면 소(沼) 근처에서 찾을 수 있다. 그곳에서 나무가 땀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찾지 못하는 나무가 발생하면, 이는 악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 먼저 갖고 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나무 값은 뗏꾼의 공가에서 공제를 한다.

뗏꾼들은 운행의 경비를 보통 선용으로 해결한다. 선용이란 이를테면 가불을 의미한다. 보통 공가의 1/4 정도를 타 간다. 그렇다보니 주막이나 들병장수를 만나면 선용이 모두 동이 나기도 했다. 그러면 심할 경우 뗏목에 손을 대기도 했는데, 자신의 떼에서 나무를 일부 빼내어 팔아먹고, 부족한 떼는 다음 주막에서 잘 때 남의 것을 슬쩍 하여 보충하기도 했다.

### 3) 여울

여울이란 풍화에 강한 기반암이나 하상에 퇴적된 사력으로 인해 갑자기 수심이 낮아지는 지점을 일컫는다. 따라서 여울은 수량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상류일수록 여울이 많고, 하류로 갈수록 여울은 줄어들든다.<sup>47)</sup> 『인제뗏목』에는 인제에서 춘천까지에 있는 여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놓았다.

합강리 ~ 앞여울(첫돌바우) ~ 시루바우(실돌이, 인제 남북리 앞강) ~ 평의 여울(송곳돌, 군축령 근방) ~ 비트리(송곳돌 가로리) ~ 쇠목여울(판대리) ~ 쾌괘이(급회전, 대흥리 앞) ~ 사십이여울(대흥리 밑) ~ 마른여울(물 깊이가 가장 얇음, 양구 수산리) ~ 쥐젓여울(양구 수전리) ~ 까치여울(양구 수산리) ~ 작은 포와리(양구 수산리) ~ 큰 포와리(양구 수산리) ~ 두지아우(바위가 엇갈려 있음, 양구 수산리) ~ 거머여울(큰 바위) ~ 개여울(사전리 밑) ~ 망태여울(춘성 내평리 위) ~ 내평리여울<sup>48)</sup>

이 중에서 가장 무섭고 험난한 여울은 포와리로 일명 호랑이 여울이라고도 한다. 마치 폭포를 뚫고 지나가는 듯 하는데, 파도를 타고 가는 것과 같았다. 앞에 타는 앞사공의 경우는 한 10m는 수직으로 떨어

46) 5바닥까지도 엮어서 서울로 갔다. 『인제뗏목』, 2002, p.65.

정선뗏목을 보면 팔당에서부터는 5바닥, 6바닥을 한 데 묶는다. 신경란 편, 『대라, 틀어라, 박아라』, 1992, p.95.

47) 김중현, 『조선 후기 한강유역의 交通路와 場市』, 고려대학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p.133.

48) 인제문화원, 『인제뗏목』, 2002, p.65. 그런데 박해순은 비트리여울이 평의여울보다 먼저라고 말했다.

지는 것을 경험한다고 한다. 뗏목이 워낙에 길어서 뒷사공은 마치 구름다리를 놓고 가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박해순은 구술했다. 워낙에 험한 곳이라 이곳을 지날 때면 이곳만 전문적으로 지나게 해주고 품삯을 받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을 ‘포와리지기’라 불렀다. 다행히 박해순은 당시 같이 갈던 분들이 모두 노련한 뗏사공이어서 이들 손을 빌리지 않고 무사히 포와리를 지날 수 있었다고 한다. 이태순(춘천 신복리 울문리, 1914년생)은 1933년부터 1937년까지 인제읍 합강리에서부터 춘천 소양호까지, 혹은 서울 광나루까지 직접 뗏목을 몰았던 뗏꾼이다. 그도 역시 여울 가운데 작은포와리와 큰포와리가 가장 험한 여울<sup>49)</sup>이라 증언했다.

합강리를 처음 출발하면서 나타나는 여울이 앞여울이고 거무여울이다. 떼를 막 빨아들이는 앞여울도 나쁘지만, 거무여울은 더 나쁘다. 떼가 떠나자마자 부딪쳐 그냥 박살이 나 거미처럼 떠나간다고 해서 거무여울이라 부른다.



비트리 여울

비트리는 인제읍 사그미 마을 앞에 있다. 사그미 마을이란 사금(沙金)이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마을 이름이다. 그곳은 물이 꺾이는 곳에 위치했는데, 더구나 워낙에 물살이 세어 뗏목이 90도로 비틀어진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마치 자동차가 코너링을 하듯이 뗏목이 뒤집혀진다.

평의여울은 비트리여울 아래에 있다. 조리미라 불리는 마을 앞이다. 평의 여울은 떼가 내려가다 보면은 돌에 막 부딪쳐 ‘쿠당당 쿠당당’ 소리가 나니까, 그 강가 건너편 수풀 속에 숨어 있던 평이 후다닥 날

49) 김종혁, 『조선후기 한강유역의 交通路와 場市』, 고려대학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p.134.

아가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송곳돌여울은 평의여울을 지나서 나타나는데 위치는 조리미 마을 근처에 있다. 물속에서 송곳처럼 돌이 뾰족하게 내밀은 것들이 많다. 이른바 송곳돌이다.

쇠목여울은 황소맥이라고도 부르는 여울인데, 남면 다 나가서 있는 여울로, 관대리 남면사무소 앞에 있는데, 여울로는 대단치 않은 순탄한 여울이다. 고기를 잡기에 적당한 여울인데 고기가 하루로 내려가다가 이곳 여울에서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이곳에서 고기를 잡는 이들이 많다. 하도 고기가 많이 잡히니 옛날에 한 양반이 농담 삼아 쇠목을 줄 터니 바꾸자고 해서 쇠목여울이란 이름이 붙었다. 쇠목이란 소 한 마리를 의미한다.

괘괘이는 신남리 밑 대흥리 앞에 있는 여울로 ‘괘괘이’가 올바른 발음이다. 상당히 무서운 여울이다. 괘괘이, 포와리, 두 곳 여울만 지나면 무서운 여울은 없었다. 괘괘이는 구반이 멀리 파고 들어갔는데, 이런 형태는 곧 물이 산쪽으로 많이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쪽으로 물이 쳐서 산쪽 흙을 헐고 나갔으니까 그래서 괘괘이라 이름하였다. 앞사공보다는 뒷사공이 상당히 위험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앞사공이 물말기를 잘못 보아 자기만 안전하게 뗏목을 운행하다보면, 뒷사공의 경우 산허리를 들이박는 경우가 많았다. 이곳은 앞사공이 뒷사공을 생각하여 운행을 해야만 하는 곳이었다. 그래서 앞사공은 이곳을 지날 때면 강가 자갈밭쪽으로 많이 들어서 운행을 해야 한다.

서레여울은 조금 힘든 곳이다. 논 삶는 서레 모양으로 여울이 생겼다. 바위가 올망졸망 솟아있는 것이 마치 서레 같아 보인다. 그 틈을 빠져나가야 하므로 상당히 귀찮다. 그러나 힘은 들어도 위험한 곳은 아니었다.

마른여울은 여울이 넓기만 하지 얇은 곳이었다. 그래서 돌이 다닥다닥 나왔는데 떼가 거기에 걸려서 내려가면 통통 뛰는 것이 마치 돌들과 같이 굴러가는 것처럼 소리가 들렸다.

사심이 여울은 사슴이 건너 다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대단한 여울은 아니었다. 아랫여울이나 사심여울은 양구 밑에 있다. 두지아우여울은 바위가 두지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두지란 쌀독을 이르는 말이다. 양구에 위치한다. 개여울은 물살이 한번 뗏목에 덩벼들면 개처럼 물고 놓지 않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개여울은 서낭당이 밑에 자리하고 있다.

망태여울도 그 근처에 있다. 모두 양구 근방에 있다. 제비여울도 그곳에 있고, 십리허간에 사리여울이라 부르는 것도 그곳에 있다. 여울이 구불구불하여 그 길이가 무려 십리나 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시루목여울은 포와리 밑에 있는데 대단한 여울은 아니었다. ‘시라우’라고도 부른다.

쥐젓여울은 쥐젓처럼 돌이 나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돌맹이가 조금 튀어나온 형국인데 그리 위험하지는 않았다.

박해순은 위험한 여울로는 평의여울, 비트리, 포와리 앞여울, 저 합강리 바로 떠나서 있는 앞여울, 괘괘이, 이렇게 다섯 군데를 꼽았다. 이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곳은 포와리, 괘괘이였다.

춘천에서 서울 사이에도 많은 여울이 있었다. 그러나 인제와 춘천 간의 여울에 비하면 수도 훨씬 적을 뿐더러 순탄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평댐 근방의 ‘전여울’을 지나고 ‘고래이’를 지날 때는 그곳 동리 사람들께 통과비(通過費)를 내야 했다. ‘고래이’는 그 일대가 물이 얇아 통과하기가 어려웠다. 이럴 경우 여울을 통과하는 방법은 끈으로 묶어 끌어올리는 방법과 수로를 만들어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다.<sup>50)</sup> ‘고래이’의 경우 마을 주민들이 이와 같은 사정을 듣고 물밀의 모래를 깊게 파서 떼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50) 김종현, 『조선후기 한강유역의 交通路와 場市』, 고려대학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p.136.

록 만들어 놓고는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이른바 골 친 값인데, 이것은 보통 뗏꾼들이 자비로 부담하였다.<sup>51)</sup> 다음은 춘천에서 서울까지의 여울 이름이다.

다리아우(신영강 뗏) ~ 마당골 ~ 가평 꼬까리 ~ 갓내울 쇠바람(소양강과 홍천강이 합수되는 들머리)  
~ 전여울(청평댐 뗏) ~ 고래이(수심이 가장 얕음)<sup>52)</sup>

여울에 걸리면 떼가 파손이 된다. 그러면 즉시 주위에 흩어진 나무들을 묶어 뗏목을 다시 묶었다. 우리나라 하천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지형적인 특징은 하나의 여울을 지나면 대체로 수심이 깊은 소(沼)가 나타난다. 이 소에서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운행하기가 만만하지 않았다.<sup>53)</sup> 그때 찾지 못한 나무는 물이 맴도는 소(沼) 근처에 가면 거진 모여 있다.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묶어놓은 떼를 밤에 자기 전에 확실히 다시 묶었다. 어떤 여울은 물이 얇아 뗏목이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럴 경우에는 도랑을 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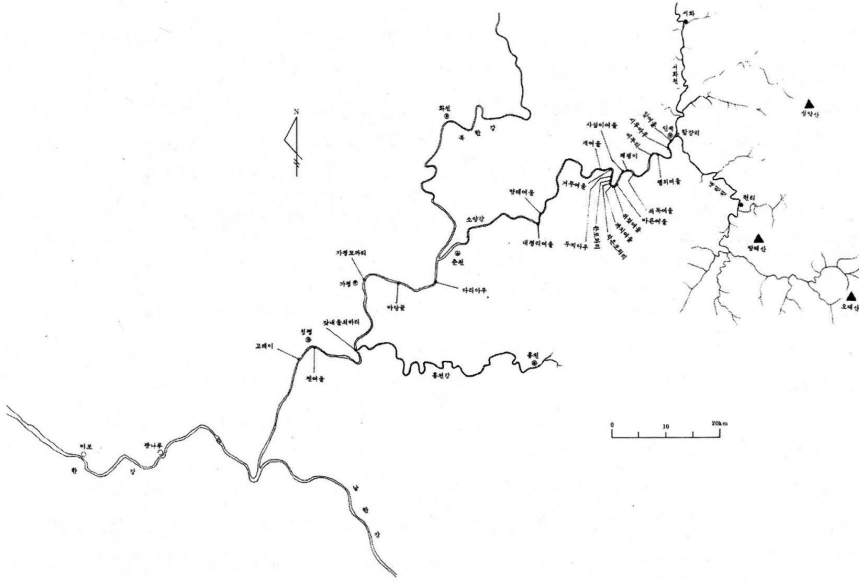


그림14 : 여울이 있는 곳

51) 인제문화원, 『인제뗏목』, 2002, p.76.

52) 인제문화원, 『인제뗏목』, 2002, p.67.

53) 김종혁, 『조선후기 한강유역의 交通路와 場市』, 고려대학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p.137.

#### 4) 주막

인제에서 춘천으로 가는 곳곳에 주막이 있었다.

합강리 ~ 가로리 ~ 대흥리 ~ 성황데이 ~ 용수목이 ~ 사전리 ~ 내평리 ~ 북청 ~ 청평골 ~ 도지거리 ~ 춘천 ~ 덕두원 ~ 마당골 ~ 갓내울 ~ 횃바리 ~ 전여울 ~ 심개구미(청평 대성리) ~ 노적봉 ~ 미음(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수되는 곳) ~ 봉안구미 ~ 팔당 ~ 토막나들이 ~ 우미내 ~ 광나루 ~ 뚝섬 ~ 서빙고 ~ 노량진 ~ 마포<sup>54)</sup>

남면 선착장 부평리에도 주막이 서너 집 있었다. 요즘처럼 간판을 달고 하는 그런 주막집은 아니지만 그런 대로 크게 영업을 했다. 술파는 아가씨가 따로 있는 그런 집은 아니었지만, 오고가는 나그네들의 술을 같이 해주는 주모는 있었다. 이런 주막은 보통 여관을 겸해서 했는데 대흥리에도 이런 집들이 두어 집 있었다.

양구에 가면 서낭탱이라고 있다. 그곳에 밤이 어둑해지면 자고 가는 주막이 하나 있었다. 주막이라기 보다는 그냥 민가이지만 뗏꾼들이 잠자기를 청하면 재워주는 그런 민가가 있었다.

춘천으로 들어가서 처음 맞닥뜨리는 곳이 물노리, 즉 샘밭이었다. 그곳에 주막이 있었지만 술집아가씨가 나오는 그런 주막은 아니었다. 술집아가씨가 나오는 주막은 도지거리에 가야 있었다.

도지거리 갈보야 술걸르게  
보매기 여울에 떠내려가네

뗏목아리랑에 등장하는 도지거리는 춘천으로 들어가 소양댐 보(洑)막이 아래 한 700m되는 곳에 있었다. 도지거리를 지나면 덕두원이 나온다. 덕두원도 주막거리로 유명한 곳이다. 덕두원을 지나 북한강 물줄기를 타고 내려가면 남한강과 합수되는 미음이 나온다. 그곳에 유명한 주막이 있었다. 지금의 양평군 양수리의 합수머리에 있던 그 주막집에 '석정(石眞)'이란 예쁜 주모가 있었다. 그래서 주막의 갈보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자연스럽게 '씩쟁이', '씩재이', '씩쟁이', '석쟁이'라는 말이 통용되기 시작했다. 당시 이 집엔 8~9명의 아가씨들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김열규는 석쟁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까닭을 그 처지가 '삭쟁이' (말라 시든 나무 가지), '씩은 신세의 술쟁이' 같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을 것으로 파악했다.<sup>55)</sup> 『인제뗏목』에서는 썩쟁이를 썩은 '쟁이'와 같은 천한 사람, 육체와 정신이 다 썩어빠진 사람, 또는 육체와 육체를 섞은 사람, 즉 썩은(腐)과 섞은(混) 것을 모두 합친 사람을 뜻한다고 보았다.<sup>56)</sup>

씩쟁이들을 들병장수라고도 하는데, 들병장수란 술을 함지에 이거나 곁에 RL고 직접 강가에 있는 뗏꾼들을 찾아다니면서 술을 팔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들은 도지거리(춘천 상류), 덕두원(지금의 의암댐 근처), 미음(지금의 양수리) 등지에서 진치고 있다가 뗏꾼이 다가오면 떼에까지 올라왔다. 남편이나 기동서방이 저어주는 마상이를 타고는 떼까지 건너오곤 했는데, 막걸리 1잔에 2전, 물고기 조림 1개에

54) 인제문화원, 『인제뗏목』, 2002, p.68.

55) 김열규, 『아리랑, 역사여, 겨례여, 소리여』, 조선일보사, 1987, p.301.

56) 인제문화원, 『인제뗏목』, 2002, p.75.

2전, 튀긴 두부 1개에 2전씩 등으로 팔았으며, 때로는 몸도 팔았는데, 조건만 맞으면 이렇게 떼에 올라 서울의 광나루나 마포나루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의 나이는 대개 20~30대였다.

또 양수리와 바랭이를 지나서 나오는 덕소에도 ‘썩쟁이 할머니집’이라고 유명한 주막이 있었다. 코 떨어진 할머니집이라고도 불렀는데, 코가 떨어졌다는 말은 성병에 걸렸다는 뜻이었다. 그 할머니가 직접 색시들에게 소리도 가르치기도 했다. 이들 술집아가씨들을 색시라고도 불렀다.

당시 술집아가씨들은 보통 각시, 색시라고 불렀는데 옷차림은 한복이었고 고무신을 주로 신었다. 머리는 비녀를 찔렀는데, 머리를 한 갈래로 묶는 이른바 콩지머리가 많았다. 그래서 콩지갈보라고도 불렀다.

그녀들은 술도 잘 먹었지만 담배도 잘 피웠다. 당시 ‘마고’나 ‘뽕쵸’ 등이 그 당시 잘 팔렸던 담배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유곽의 아가씨들은 매한가지였다. 하룻밤을 주야장창 데리고 놀려면은 쌀 열 가마니는 있어야 했다. 그래서 시간떼기로 놀곤 하였다고 한다. 시간이 되면 밖에서 시간이 되었다라고 알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면 아가씨들은 그냥 나가버린다.<sup>57)</sup> 뗏꾼들 중에는 아가씨하고 놀고 그냥 돈을 안 주고 도망가는 사람도 간혹 있었다. 그럴 때면 술집아가씨나 주모가 “돼지우리 처러”고 욕을 하곤 했다.

당시 가장 유명한 주막은 북한강계로는 춘천의 주막거리가 있었고, 남한강쪽에서는 아라리에도 나오는 영월의 전산옥(金山玉)이 있었다. 그리고 양수리 합수가 되는 미음의 썩쟁이 집이었다. 다음은 전산옥이 나오는 아라리 한 구절이다. 송문옥 응이 불렀다.

에 황새여울 된꼬까리아 떼 무사이 지웠네에에  
만지나 전산옥이는 술뺨 차려 놓아라<sup>5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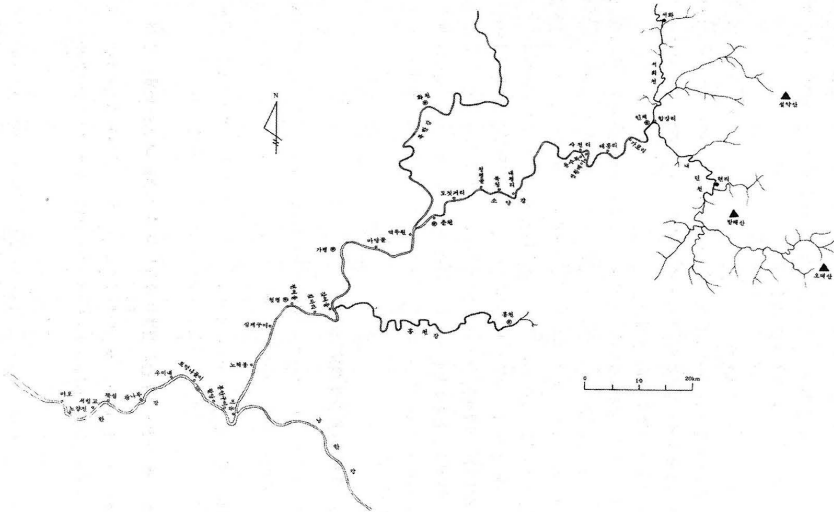


그림15 : 정류처와 주막이 있던 곳

57) 신경란 편, 『대라, 틀어라, 박아라!』, 1992, p.98.

58) 신경란 편, 『대라, 틀어라, 박아라!』, 1992, p.58.

## 7. 귀환

땃목이 목적지에 다달으면 그곳에 인수할 사람이 나타난다. 그 사람을 강주인이라고도 하는데, 목상이 직접 나올 수도 있다. 발기장에 적힌 대로 수량을 확인한 후 강주인은 공가를 지불한다. 선불이 있으면 그것을 제한 금액을 지불한다.

춘천에서 인제 간의 공가는 5~6원 정도였고, 춘천에서 서울의 공가는 30~35원 정도로 상당히 고임금이었다. 이를 상고가(上高價)라고 표현했다. 고임금이란 뜻이다. 1930~40년대 쌀 한 말 가격이 1원50전이었고, 하루 품삯이 10전 할 때이니 상당한 고임금이라 너도나도 하려고 했었다. 당시 서울까지 한 번 땃목을 타고 갔다오면 웬만한 농사비용은 모두 충당할 수 있었다.

공가를 받아서 땃꾼들은 집에 갖고 올 여러 가지 물품을 산다. 당시에 가장 많이 산 물품은 광목이나 고무신이었다. 서울에서 하룻밤 잘 적에는 정선땃꾼 송문옥의 경우처럼<sup>59)</sup> 아마도 인제땃꾼들도 모두 모여 한 여관에서 잠을 잤을 것이다. 그래야 돈이 절약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하룻밤을 유하고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 다음날 기차나 버스로 춘천까지 온 다음 인제까지는 걸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보통이나, 한 땃이라도 더 절약하려고 서울부터 아예 인제까지 걸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럴 경우 보통 4~5일은 실히 걸렸는데, 그 당시 걸어오던 코스로 가장 많이 애용된 코스는 망우리를 거쳐 팔당, 가평을 지나, 춘천, 샘밭을 지나, 내평리, 사전리, 한골, 상수래를 거쳐 인제로 오는 길이다.

돌아오는 길은 발걸음도 가볍다. 그러나 한 땃이라도 절약하느라고 짊신도 잘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이 많은 곳을 지날 때면 짊신을 신으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거의 맨발이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이 가시밭길인 경우도 있었다. 故손용인은 주막집에서 돈을 다 털리고 빈털털이로 돌아온 적도 있었다고 솔직히 고백했다.

그럴 때면 야음을 이용해서 살그머니 동네 안으로 들어와서는 집에 다다라도 안방에는 들어가 자지 않았다고 한다. 아래채나 결채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도 못할 때엔 헛간에서 밤을 새우기 예사였다. 그러고는 밝은 날, 마누라들의 암묵의 양해를 얻고서야 안방으로 들어갔다.<sup>60)</sup>

이렇게 빈털털이로 돌아오는 것은 땃꾼만은 아니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목상들도 빈손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당시에 재목 한 재당 몇 전 할 때였으니 땃목이 한 바닥이면 만 사제는 충분히 나온다. 그 정도만 해도 상당한 돈을 만졌을 것이다. 그런 대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목상들도 있었다. 북면 한계리의 목상 故김정기가 그러했다. 그는 되려 빚을 지고 와 집에 있는 논 600평을 팔아 그 빚을 충당하기도 했다. 송문옥의 구술에 의하면 정선쪽 목상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59) 신경란 편, 『대라, 틀어라, 박아라!』, 1992, p.78.

60) 김열규, 『아리랑, 역사여, 겨레여, 소리여!』, 조선일보사, 1987, p.302.

## VI. 인제 뗏목아리랑과 민속예술 자료

### 1. 뗏목 아리랑

1) 박해순(남·81)의 뗏목아리랑 : 2005년 6월 11일 채록.

아령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령아리 고개루 넘어간다

우수나 경칩에 물풀리니      합강정 뗏목이 떠내려간다  
아령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령아리 고개루 넘어간다

창랑에 뗏목을 띄워놓으니      아리랑 타령이 처량도하다  
아령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령아리 고개루 넘어간다

합강정 뗏목이 많다고하되      경오년 포락에 다풀렸네  
아령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령아리 고개루 넘어간다

뗏목의 생활이 좋기는한데      포아리 신영강이 하직일세  
아령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령아리 고개루 넘어간다

앞사공 뒷사공 물조심하게      포아리 물사품이 치솟는다  
아령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령아리 고개루 넘어간다

도지거리 갈보야 술저르게      보매기 여울에 떼 내려간다  
아령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령아리 고개루 넘어간다



포아리 신영강 다지나니 아링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덕두원 씨정이가 날반긴다 아링아리 고개루 넘어간다
노다가오 자다가오 잠자다가오 아링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보름달이 지도록이 노다를가오 아링아리 고개루 넘어간다
십년에 강산 변한다더니 아링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소양강이 변할줄을 누알았나 아링아리 고개루 넘어간다
우리나 부모가 날찾거든 아링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떼타러 갔드라고 일러주오 아링아리 고개루 넘어간다

2) 손용인(남·76)의 뗏목아리랑 : 1989년 12월 19일 채록.<sup>61)</sup>

아링아링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링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우수나 경침에 물 풀리니 아링아링 쓰리쓰리 아라리요	합강정 뗏목이 떠내려 오네 아링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창랑에 뗏목을 띄워 놓으니 아링아링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랑타령이 절로 난다 아링아링 고개로 넘어간다
도지거리 갈보야 술 거르게 아링아링 쓰리쓰리 아라리요	보매기 여울에 떼 내려가네 아링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뗏목의 서방이 좋다더니 아링아링 쓰리쓰리 아라리요	포아리 신연강이 하직일세 아링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뗏목을 타구서 하강을 하니 아링아링 쓰리쓰리 아라리요	강나루 건달이 손짓을 하네 아링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봉의산 정자는 구경 정자 아링아링 쓰리쓰리 아라리요	소양강 정자로 만나 보세 아링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61) 전신재, 「인제군의 민속문화(2)」,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림대박물관·강원도·인제군, 1996, pp.125~6.

십년에 강산이 변한다더니 아령아령 쓰리쓰리 아라리요	소양강 변할 줄 뉘 알었나 아령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뗏목의 생활이 좋다더니 아령아령 쓰리쓰리 아라리요	신식의 생활로 변해졌네 아령아령 고개로 넘어간다.
합강정 뗏목이 많다더니 아령아령 쓰리쓰리 아라리요	경오년 포락에 다 풀려갔네 아령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뗏목을 타구서 술잔을 드니 아령아령 쓰리쓰리 아라리요	만단의 설움이 다 풀리네 아령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우리집 서방님은 춘천으로 여울여울 포아리 다 지나서	떼타고 갔는데 무사히 잘 다녀오세요
아령아령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령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3) 김계근(남·88), 임일남(남·74), 박해순(남·61)의 뗏목아리랑 : 1985년 채록.<sup>62)</sup>

- |                                    |                                 |
|------------------------------------|---------------------------------|
| ①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br>우수나 경칩에 물풀리니   |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br>합강정 뗏목이 떠내려가네  |
| ②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br>창랑에 뗏목을 띄워 놓으니 |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br>아리랑 타령이 처량도 하네 |
| ③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br>도지거리 갈보야 술걸르게  |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br>보매기 여울에 떠내려가네  |
| ④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br>뗏목에 서방님이 좋다더니  |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br>포와리 신영강이 아직일세  |
| 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br>앞사공 뒷사공 조심하게   |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br>포와리 물사품 치숫는다   |

62) 인제문화원, 『인제뗏목』, 2002, pp.69~71.

이 소리는 박민일, 『아리랑』, 강원대출판부, 1991, pp.297~298.에 재수록되었다.

- |                                     |                                 |
|-------------------------------------|---------------------------------|
| ⑥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br>쾌팽이 포와리 다지나니    |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br>덕두원 썩쟁이가 날받기네  |
| ⑦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br>합강정 뗏목이 많다더니    |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br>경오년 장마에 다풀렸네   |
| ⑧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br>놀다가오 자고가고 잠자다가오 |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br>보름달이 지도록 놀다가가오 |
| ⑨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br>놀다가 갈마음은 간절한데   |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br>서산 낙조에 해떨어지네   |
| ⑩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br>십년에 강산이 변한다더니   |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br>소양강 변한줄 뉘알았다   |
| ⑪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br>뗏목을 타고서 술잔을 드니  |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br>만단의 서름이 다풀어지네  |
| ⑫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br>뗏목을 타고서 하강을 하니  |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br>광나루 건달이 손짓만 하네 |
| ⑬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br>놀기나 좋기는 합강정     |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br>넘기나 좋기는 거닐고개   |
| ⑭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br>뗏목에 생활이 좋다더니    |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br>신식의 생활로 변해졌네   |

뗏목아리랑은 강원도아리랑의 가락으로 기본 음수율은 3·4조~4·4조로 박민일은 파악한다. 모든 연에 걸쳐서 정(恨), 원(怨), 애(哀), 환(歡)의 명암이 낭만과 사랑을 잃지 않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는 애조(哀調)라고 파악을 한다. 그러면서 폐꾼들은 이런 소리를 통하여 온갖 고난을 낙(樂)과 환(歡)으로 바꾸려는 의지가 표백이 되어 있다고 박민일은 보았다.<sup>63)</sup>

뗏목을 운행하면서 보이는 것은 오직 자연뿐이다. 물소리, 하늘, 바람, 강변, 산, 이런 자연과 마주하면서 몇 날 며칠을 운행하면서 자연스레 듣게 되는 인간의 내면의 울림이 있다. 그 울림이 뗏목아리랑에는 다양한 정조로 표현이 된다. 그러다보니 어찌 들으면 처량하기도 하고, 또 어찌 들으면 사뭇 고즈넉하기도 하다. 이처럼 조용하면서도 애조 띤 소리가 뗏목아리이긴 하지만, 주막집에서 부를 땀 결코 애조는

63) 박민일, 『아리랑』, 강원대출판부, 1991, p.299.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도 자진아라리의 곡조로 돌렸을 것이다. 또 뗏 가까이 접근한 씨징이들과 수작이라도 나눌라치면 아마도 자진아라리 곡조가 아니면 흥이 반감되었을 것이다. 실제 현지 채록 중에 자진아라리로 부른 것을 채록한 경우가 『강원의 민요 I』에 보면 엇보이다. 인제를 합강2리에 사는 박춘매는 뗏목아리랑을 자진아라리 곡조로 부르기도 했다.<sup>64)</sup> 다음은 박춘매의 아라리다.

#### 4) 박춘매(여·79)의 떼타는소리 : 2000년 6월 27일 채록.

아렁아렁 쓰리쓰렁 아라리요    아렁아렁 고개를 넘어간다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더니    소양강 변할줄을 뉘알았나

아리아리 쓰리쓰렁 아라리요    아렁아렁 고개를 넘어간다  
우수야 경칩에 물풀리니    합강정 뗏목이 떠내려간다

아리아리 쓰리쓰렁 아라리요    아렁아렁 고개를 넘어간다  
뗏목을 타구서 술잔을 드니    만사에 설움이 다 풀린다

아리아리 쓰리쓰렁 아라리요    아렁아렁 고개를 넘어간다  
앞사공 뒤사공 몸조심하오    포아리 여울에 떠내려간다

## 2. 인제 뗏목놀이

이 놀이는 1985년 6월 속초에서 열린 제3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인제 뗏목놀이>란 이름으로 출연하였던 작품이다. 당시 종합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그 해에 강릉에서 열린 제2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강원도 대표로 참가하였다.

다음은 그 내용을 『강원의 전통민속예술』에서 전재했다.<sup>65)</sup>

전승마을 :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고증 : 김계근 임일남

지도 : 박동화(문화공보계장)

유래

남한 유일의 “뗏목 원형”을 보존 전수하고 있는 마을은 바로 인제군청이 소재하고 있는 인제군 인제읍

64) 강동학, 「인제군」, 『강원의 민요 I』, 2001, p.535.

65) 강원도, 『강원의 전통민속예술』, 강원일보사, 1994, pp.161~162.

합강리 마을이다.

이 지명이 말해주듯 남쪽방향으로 흐르는 인북천과 북쪽방향으로 흐르는 내린천이 서로 합류하는 위치에 형성된 마을이라 하여 동네 이름을 합강이라 명명했다.

옛부터 인제지방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협곡준령에 풍부하고 다양한 임목자원을 갖고 있어,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임목을 서울 등지에 건축용 자재로 공급하여 주며 생계를 영위하여 왔다.

교통수단이 전혀 없던 시절이었기에 이들은 설악산, 대암산, 대우산, 향로봉 등지에서 벌채된 원목은 인북천으로, 가리산, 점봉산, 방태산, 개인산 등지에서 벌채된 원목은 내린천으로 띄워보내 두 강물이 합치는 합강리 마을에서 원목을 수거하여 강변 백사장에 야적케 한 다음, 이를 뗏목으로 만들어 북한강 수계를 이용 서울로 운반했다.

이와 같은 산간지방 특유의 애환이 서린 생활문화를 이 마을은 향토민속으로 보존 전승하고 있다.

특 색

인제뗏목놀이는 풍부한 임산자원 속에 나무를 벌채하여 놓았다가 강물이 늘어나면 뗏목을 만들어서 수로를 이용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서울 등지로 운반하면서 삶을 이어왔던 옛 조상들의 지혜로움과 수로를 이용한 교통문화를 표출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구성 및 놀이과장

“인제뗏목놀이”는 옛 조상들의 교통수단을 한 장면으로 구성, 애환이 서린 생활문화를 재현하는 민속 놀이로서 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과장 : 산치성, 벌목작업

- ① 목상이 벌목꾼, 목도꾼 등 여러 사람을 인솔 입산하여, 벌목하기 전에 인부들의 통치를 예방하는 산치성을 드리는 제를 지낸다.
- ② 제는 목상이 제주가 되어 잔을 올리고 두 번 반 배례한다.
- ③ 배례 후 목상은 잔을 들어 임목나무에 3번 나누어 붓고 과일을 집어던지며 고시례를 한다.
- ④ 고시례와 동시에 젓상이 철상되고 벌목꾼이 도끼를 들고 임목나무 앞으로 나가서고, 목상이 “어머이요” 하고 소리지르면 벌목꾼과 목도꾼이 함께 “어머이요” 하고 복창한다.
- ⑤ 복창이 끝나는 즉시 벌목꾼은 도끼로 벌목작업을 실시한다.
- ⑥ 쓰러진 나무를 벌목꾼은 2개조로 나누어 한 패는 도끼로 가지를 치고, 또 한 패는 거도로 나무를 20자 길이로 자른다.
- ⑦ 원목은 종류에 따라 부동, 궁궐, 편목, 연목, 화목의 5가지 종류로 분류한다.

제2과장 : 하산작업, 목도운반

- ① 벌채된 원목은 칩이나 낫줄, 목도채를 이용 끌어서 하산하여, 목도를 운반한다.
- ② 목도는 4인목도로 하며 이때 선소리꾼의 운목노래에 맞추어 후렴을 받으며 원목을 운반한다.

제3과장 : 강치성, 뗏목벌류

- ① 야적된 원목 25~30개를 한묶음(뗏꾼은 이를 한 동가리라 함)으로 하여 5동가리를 칩으로 엮는

다.(5동가리 엮는 때를 ‘한바닥’이라 한다.)

- ② 이때 2번째 동가리부터는 엮은 원목의 숫자를 순서적으로 2개씩 줄여 엮는다.
- ③ 엮은 5동가리를 강물에 띄워 연결하고 강다리(노)와 그레(노)를 설치한다.
- ④ 뗏목이 완성되면 뗏사공의 가족, 친지, 마을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강치성을 올린다.
- ⑤ 강치성은 무속이 별지 축문에 의해 행하며 앞뗏사공과 뒷뗏사공이 제주가 되고 전 출연자가 배례한다.
- ⑥ 축문이 끝나면 뗏사공 등이 뗏목을 타고 서울로 향하는 애환의 여정이 시작된다.
- ⑦ 뗏목은 합강정을 출발하여 여러 곳을 경유하며 목적지인 서울 광나루에 도착한다.
- ⑧ 목적지인 서울 광나루에 도착하면 강주인으로부터 공가(노임)나 광목을 받아 짚어지고 귀향하며 동네사람들과 한마당 놀이를 하며 종연한다.

### 3. 인제 뗏목꾼 소리

인제군에서 1985년 6월 속초에서 열린 제3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인제 뗏목놀이〉란 이름으로 출연하여 종합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 해 9월에 강릉에서 열린 제2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강원도 대표로 참가할 때 〈인제 뗏목꾼 소리〉란 이름으로 참가하였다.

다음은 그 때의 팸플렛 내용이다.

#### 배 경

남한 유일의 ‘뗏목 원형’을 보존 전수하고 있는 마을은 바로 인제군청이 소재하고 있는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마을이다. 이 명이 말해주듯 남쪽방향으로 흐르는 인북천과 북쪽방향으로 흐르는 내린천이 서로 합류하는 위치에 형성된 마을이라 하여 동네 이름을 합강이라 명명했다.

옛부터 인제지방은 천혜적인 자연경관과 더불어 협곡준령에 풍부하고 다양한 임목자원을 갖고 있어,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임목을 서울 등지에 건축용 자재로 공급하여 주며 생활했다.

교통수단이 전혀 없던 시절이었기에 이들은 설악산, 대암산, 대우산, 향로봉 등지에서 벌채된 원목은 인북천으로, 가리산, 점봉산, 방태산, 개인산 등지에서 벌채된 원목은 내린천으로 띄워보내 두 강물이 합치는 합강리 마을에서 원목을 수거하여 강변 백사장에 야적케 한 다음, 이를 뗏목으로 만들어 북한강 수계를 이용 서울로 운반했다.

이와 같은 산간지방 특유의 애환이 서린 생활문화를 이 마을은 향토민속으로 보존 전승하고 있다.

#### 발굴·재현

해방과 더불어 밀려닥친 서구문명의 이기로 인제뗏목이 자취를 감춘지는 40년이 넘는다.

더구나 수복지구라는 지정학적 특수조건과 대부분이 이주민인 인제주민 구성으로 보아 인제뗏목의 원형을 발굴 재현하기까지에는 어려움도 많았다.

그러나 인제군에서는 향토 고유문화의 창달이라는 의지로 당시의 인제뗏목에 관여했던 여러 어르신네

의 추적증언을 토대로 강원대학교 박물관(관장 : 최복규 교수)에 학술조사를 의뢰하여 인제뗏목의 원형을 문헌으로 정립하게 되었다.

이렇게 발굴 정립된 남한 유일의 마지막 남은 인제뗏목의 원형을 보존 전수하기 위하여 이를 향토 고 유민속으로 계발하여 오던 중 1985.6.14 제3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여 종합 최우수상을 받고, 1985 전국 대회 강원도 대표(민요부분)으로 출연하게 되었다.

※ 고증을 해주신 분

인제읍 상동리 김계근

인제읍 합강리 임일남

인제읍 합강리 송태익

뗏목 엮는 방법

- 떼는 보통 직경 5치, 길이 20자의 원목을 25~30개 단위로 묶는다.(이를 ‘한 동가리’라 함)
- 이와 같은 동가리를 5개를 만들어 연결한다.(이를 ‘한바닥’이라 함)
- 2번째 동가리에서부터는 순차적으로 원목의 숫자가 2개씩 줄어 묶는다.
- 첫째 동가리와 두 번째 동가리의 사이를 3자 정도 띠어 연결하고 이하 동가리는 붙여서 연결한다.
- 뗏목이 완성되면 뗏목 앞뒤에 강다리(Y자형의 노 받침대)와 그레(노)를 설치한다.(앞뗏사공, 뒷뗏사공)
- 뗏목을 엮을 때 사용되는 끈은 모두 칩(드렁칩)을 사용한다.

출연과장

제1과장 : 산치성, 벌목작업

- ① 목상 이기홍(45)이 벌목꾼, 목도꾼 등 여러 사람을 인솔 입산하여, 벌목하기 전에 인부들의 통치를 예방하는 산치성을 드리는 제를 지낸다.
- ② 제는 목상이 제주가 되어 잔을 올리고 두 번 반 배례한다.
- ③ 배례 후 목상은 잔을 들어 임목나무에 3번 나누어 붓고 과일을 집어던지며 고시례를 한다.
- ④ 고시례와 동시에 젓상이 철상되고 벌목꾼이 도끼를 들고 임목나무 앞으로 나가서고, 목상이 “어명 이요”하고 소리지르면 벌목꾼과 목도꾼이 함께 “어명이요”하고 복창한다.
- ⑤ 복창이 끝나는 즉시 벌목꾼은 도끼로 벌목작업을 실시한다.
- ⑥ 쓰러진 나무를 벌목꾼은 2개조로 나누어 한 때는 도끼로 가지를 치고, 또 한 때는 거도로 나무를 20자 길이로 자른다.
- ⑦ 원목은 종류에 따라 부동, 궁궐, 편목, 연목, 화목의 5가지 종류로 분류한다.

제2과장 : 하산작업, 목도운반

- ① 벌채된 원목은 칩이나 밧줄, 목도채를 이용 끌어서 하산하여, 목도를 운반한다.
- ② 목도는 4인 목도로 하며 이때 선소리꾼 박해순(61세)의 운목노래에 맞추어 후렴을 받으며 원목을 운반한다.

**제3과장 : 강치성, 뗏목벌류**

- ① 야적된 원목 25~30개를 한묶음(뗏꾼은 이를 한 동가리라 함)으로 하여 5동가리를 침으로 엮는다.(5동가리 엮는 때를 '한바닥' 이라 한다.)
- ② 이때 2번째 동가리부터는 엮은 원목의 숫자를 순서적으로 2개씩 줄여 엮는다.
- ③ 엮은 5동가리를 강물에 띄워 연결하고 강다리와 그레(노)를 설치한다.
- ④ 뗏목이 완성되면 뗏사공의 가족, 친지, 마을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강치성을 올린다.
- ⑤ 강치성은 무속 박해순이 별지 축문에 의해 행하며 앞뗏사공 심한호(66)와 뒷뗏사공 조해수(67)이 제주가 되고 전 출연자가 배례한다.
- ⑥ 축문이 끝나면 뗏사공 등 5명이 뗏목을 타고 서울로 향하는 애환의 여정이 시작된다.
- ⑦ 뗏목은 함강정을 출발하여 애닭은 여로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뗏목아리랑' 을 구성지게 부른다.
- ⑧ 뗏목은 함강정을 출발하여 도지거리, 덕두원, 팔당을 경유 목척지인 서울 광나루에 도착하게 된다.
- ⑨ 경유지 중 팔당나루에 뗏목이 도착하면 들병장수인 썩쟁이 최종옥(39), 김순경(58)이 배를 타고 뗏목에 접근하여 뗏사공들을 놀다가도록 유혹한다.
- ⑩ 목적지인 서울 광나루에 도착하면 강주인 최양준(73)으로부터 공가(노임)나 광목을 받아 짊어지고 귀향하며 동네사람들과 한바닥 놀이를 하며 종연한다.

▲ 운목노래 (p. 61 목도소리 참조)

▲ 강치성제문 (p. 70 제문 참조)

▲ 뗏목아리랑 (p. 79 참조)

※ 출연자

출연인원 : 90명(남 : 84, 여 : 6)

지도교수 : 최복규(강원대학교 교수, 박물관장, 문학박사)

소리지도 : 박해순(인제문화원 이사)

연출지도 : 박동화(인제군 문화공보실)

성명	연령	배역	성명	연령	배역	성명	연령	배역
최양준	73	강주인	이동준	62	별목꾼	안덕태	18	망태꾼
이기홍	45	목상	박용성	72	"	인중호	18	"
전재홍	46	집사	노병준	70	"	한광석	17	"
김정식	18	"	김용구	68	"	황운기	17	"
조해수	67	뗏사공	김경원	17	망태꾼	이덕환	73	목도꾼
심한호	66	"	임종규	17	"	최해수	64	"
한태석	64	별목꾼	최인환	17	"	옥재광	59	"
이종학	74	"	권동진	17	"	손용인	72	"



성명	연령	배역	성명	연령	배역	성명	연령	배역
김영배	70	목도꾼	홍문기	18	목도꾼	최종옥	39	씩쟁이
김영화	61	"	심영철	18	"	박춘매	65	"
김근수	70	"	홍성우	18	"	정옥자	59	"
정춘식	73	"	엄영호	19	"	김옥란	58	"
김해진	73	"	이병래	19	"	염희장	19	지계꾼
정재식	74	"	강경희	17	"	심재용	19	"
김홍규	72	"	최승규	/	"	신영화	19	"
김영규	74	"	김만수	75	"	한광석	18	"
김기옥	71	"	남용길	63	"	오인섭	18	"
동상인	70	"	정명택	72	"	박해순	62	소리꾼
선순영	64	"	조동관	65	"	김상혁	65	농악
박인동	48	"	송태익	63	"	전재봉	77	"
조성구	63	"	김만진	63	"	이종명	67	"
연양수	18	"	박희운	34	"	이주은	73	"
목육균	18	"	강경주	17	뗏목기	김태호	59	"
박응기	18	"	전성인	16	나루터기	위상선	62	"
김형수	17	"	김진훈	16	"	김순기	65	"
심영권	17	"	김용우	16	"	이상주	48	"
염홍석	17	"	한상운	18	"	허만영	51	"
홍석만	18	"	신동성	18	"	박재성	61	"
안길용	18	"	송옥배	70	씩쟁이	임경섭	69	"
최종근	19	"	김순경	58	"	이용길	44	"

#### 4. 인제뗏목 재현

인제문화원에서는 2002년도에 인제의 뗏목 재현 작업을 추진했다. 그리하여 2002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뗏목을 만드는 전과정을 재현하여 비디오로 영상화에 성공했다. 이어 10월에 열리는 인제 군민의 축제인 함강제에 직접 뗏목을 만들어 시연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이제 인제군에서 인제의 뗏목은 주요한 민속으로 다시금 복원되었다.

그 작업을 지휘한 인제문화원의 이만철은 다음처럼 그 과정을 설명한다.

지난 4월초 본원에서는 인제 뗏목 재현을 금년 내에 추진하고자 뗏목 생활을 직접 하였던 원로 손용인 용과 박해순 전 문화원장과 함께 인제군청을 찾아가 군수(이승호) 님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제 뗏목의 재현이 꼭 필요한 가치성이 있다고 합리적인 뜻을 이루었다. 결과는 금년 10월 함강제 행사 때 추진하기로 하였다.

땃목 재현의 계획을 틈틈이 세웠다가 점검이 따르면서 여러 번 반복을 거듭하기도 했다.

이번 재현을 영상기록으로 남기고자 서울에 있는 “디지털 영 프로비전”과 용역을 체결하고 현지 답사에 임했다.

9월 17일 그 첫 번째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목도 연습이 함강리 소재 인제 제재소에서 이루어지면서 시작이 반이라는 옛말을 지표 삼아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는 소품 구입과 제작에 준비를 하면서 시간은 흘렀고 9월 26일 아침부터 재연에 들어갔다.

인제읍 고사리 산 5번지 균유림으로 목상(문화원장)과 벌목꾼은 입산을 하고 산치성을 드리고 “어명이오”와 함께 첫 도끼질로 나무 한 그루가 넘어갔다.

이어서 벌목이 시작되고 통길을 만들어 원목을 하산하고 집하장으로 운목하여 다시 적심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하나하나 추진되더니 드디어 땃목 역기가 완결되었다. 10월 4일 함강 합수머리에는 각 기관 단체장과 지역 주민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단체로 나와 지켜보고 각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보도진이 나와 지켜보고 있었다.

오후 2시 땃목 운행에 앞서 강치성으로 시작이 되고 땃목 운행이 시작이 되더니 애환이 서린 땃목 소리가 옛 땃목 생활사의 얼을 그리면서 재연이 연속되었다.<sup>66)</sup>

인제의 땃목을 복원하는 작업이 성공함으로써 앞으로 인제군은 후대에 길이길이 전승할 주요한 민속 자료를 갖게 되었다. 더불어 땃목아리랑을 더욱 널리 알리고자 매년 함강제에 땃목 재현을 하기로 하였다. 다음은 2002년 당시 땃목 재현을 추진했던 계획(안)이다.

### 인제 땃목 재현 추진계획(안)

우리 인제군의 고유 민속사인 땃목 생활사를 재현함으로써 옛 선인들의 성스러운 지혜와 그 작업 과정에서의 고통과 애환이 서려 있는 생활사를 재정리하여 계승·보존하고 자라나는 후세들의 산 교육으로 승화시키는데 중요한 자료로 기여하고자 함.

#### ▲ 개 요

- 기 간 : 2002년. 9. 10~10. 10(1개월간)
- 장 소 : 인제읍 고산리 및 함강정 일원
- 주 관 : 인제문화원
- 후 원 : 인제군
- 협 찬 : 인제경찰서, 인제향교, 기린농협, 3821부대, 303경비연대, 두산(주), 인제제재소
- 고 증 : 손용인, 박해순

#### ▲ 추진방향

- 땃목 생활사에 종사하였던 원로 노인네의 충분한 고증 취득

66) 인제문화원, 『인제땃목』, 2002, p.130.

- 재현 사업 추진계획서 수립에 의한 단계적 추진
- 수요되는 소품 사전 확보
- 문헌 및 사진과 DVD 영상기록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추진

▲ 땃목 재료 준비물

구분	품 목	수 량	준 비 기 간	준비방법	취득처
땃목 재료	소나무 원목(12자)	60개	02.9.10~9.20	구입	인제 제재소
	소나무 원목(9자)	190개	"	"	"
	강다리	2개	"	제작	심홍규
	강다리 보조대	4개	"	"	"
	그레	2개	"	"	"
	등태	60개	"	"	"
	가줄(밧줄)	10타래	"	"	"
작업 도구	자귀(대)	1개	"	구입	철물점
	자귀(소)	1개	"	"	"
	톱	5개	"	"	"
	도끼	3개	"	"	"
	낫	5개	"	"	"
및 장비	집게	4개	"	"	"
	도비	10개	"	"	"
	격쇠	10개	"	"	"
	망치	2개	"	"	"
	목도대	8개	"	"	제작

▲ 소품 준비물

품 목	단 위	수 량	준비기간	준비방법	취득처
남자 민속복	벌	20	02.9.20	제작	한복집
여자 민속복	"	5	"	"	"
머리 수건	개	25	"	"	"
주머니	"	20	"	"	"
짚신	"	20	"	"	노인회
두루마기	벌	1	"	"	한복집
조끼	개	1	"	"	"
갓	"	1	"	구입	상점
주루목	"	10	"	"	노인회
제수물	세트	1	02.10.3	"	상점
수염	개	1	"	"	"

▲ 소요 인원

품 목	단 위	명 수	준비기간	방 법	비 고
벌목꾼	명	20	02.9,10	지역 주민	일당 지급
앞사공	"	1	"	"	"
뒷사공	"	1	"	"	"
목도꾼	"	10	"	"	"
소리꾼	"	1	"	"	"
주모	"	2	"	"	"
목상	"	1	"	"	"
계		36			

▲ 소요 인원

과 정	장 소	소요 시간	인원(배역)	수요 품목
입산	인제읍 고사리 산5번지	1시간	목상 1명 벌목꾼 20명	목상 : 갓, 민복 및 도포, 착복, 짚신 벌목꾼 : 민복, 짚신, 훑치기, 작업도구
산신제	"	"	"	제물: 주, 과, 포, 돼지머리, 소지
벌 목	"	3시간	벌목꾼 20명	벌목꾼 : 민복, 짚신 작업도구: 톱, 도끼, 낫
하 산	"	1시간	"	도비, 통길
운목 (목도)	합강 ~ 고사리 노루목	3시간	목도꾼 20명	목도채, 목도꾼, 도비, 집게
운목(적심)	"	3시간	철떡군 20명	지렛대
도장쌓기 (원목적재)	"	1시간	20명	목도채, 목도꾼, 집게, 도비
뗏목여기	"	12시간	뗏목꾼 10명 목도꾼 10명	원목(12자) 60개 원목(9자) 190개 강다리 2개 강다리 보조대 4개 그레 2개 등태 60개 가줄 10타래 작업도구 : 도끼, 자귀, 톱, 낫, 목도채, 목도꾼, 도비, 집게
강치성	합강	1시간	목상, 집사, 앞사공, 뒷사공, 축문 각 1명	축문, 돛자리, 제수장, 주, 과, 포, 돼지머리
뗏목 운행	"	5시간	앞사공, 뒷사공, 소리꾼 각 1명, 주모 2명	뗏목기, 장고 (마이크 설치)

## 5. 강원도 뗏목 소리

### 1) 인제의 뗏목 소리

\* 인제 뗏목노래<sup>67)</sup>

인제골 함강정 양소 앞에서 뿔 뿔소  
귀암 여덟 치올라 가니 뒷다리가 떨리네  
귀암 여덟 지나니 신라오가 당해  
신라오 당하니 겁이 뚝뚝난다  
그 아래 뚝떨어지니 비틀이가 당해  
비틀이 산고개 슬뵈나라  
비틀에 뚝떨어지니 황소뿔에 당해  
황소뿔 앞에다 슬뵈나라  
황소뿔 뚝떨어지니 이막손이 당해  
이막손 앞에다 슬뵈나라  
이막손으로 뚝떨어지니 까치여울이 당해  
까치여울 앞에다 슬뵈나라  
까치여울은 뚝떨어지니 화리가 당하네  
화리앞에다 슬뵈나라  
모래야무지 같으면 우리가 당한다  
화리로 뚝떨어지니 재여울에 당해  
재여울에 새순무지 달러가자  
재여울을 뚝떨어지니 배소귀리가 당해  
배소귀리 뚝떨어지니 송산파리가 나온다  
송산파리에 뚝떨어지니 거무여울이 나오네  
거무여울 그 아래는 개여울이 나온다  
송산파리여 다 지내가니 어디메나 하니  
춘천에 우두구아고 아우구가 나온다  
우두구하고 밑에는 어디가 나오나  
뒤뚜루 앞에야 모새여울 나온다  
모새여울 뚝떨어지니 소양강 다리밑이요  
소양강 다리밑에는 붕어여울이 나온다  
소양강 아래서 절별을 하니  
돌아놓고 생각하니 황새여울 무서워

67) 이창식, 「뗏목관련민요의 실상과 활성화방안」, 『한국민요학』8집, 민요학회, 2000, pp.182~3.

황새여울 똑떨어지니 차돌맹이가 무서워  
 차돌맹이 똑떨어지니 양수리 다리빨이야 정말 무서워  
 양수리 다리빨 밑을 떨어지니 석정바우로다  
 석정바우를 똑떨어지니 어디가 당해  
 우미네 광나루 다리빨을 똑떨어지니  
 그마을에 내려가니 천양산양소라  
 그소를 다 지내니 어디메가 당도하나  
 똑섬을 들어가니 마지막이로다

\* 떼꺼내는소리 : 2000년 7월 20일 채록.<sup>68)</sup>  
 - 가창자 : 손용인(남·80)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거주

야 떼가 걸렸네 떼 좀 떼주게  
 여차 에 여차  
 니나 노가 안나오나  
 여차 허니 여차

\* 목도소리<sup>69)</sup>

이나무가 어디서왔나	여차하니 여차
방태산 제일봉에	여차하니 여차
낮이면은 일광을타고	여차하니 여차
밤이면은 이승을먹고	여차하니 여차
낙락장송 되었다가	여차하니 여차
만인간의 힘을빌어	여차하니 여차
인제합강에 나왔도다	여차하니 여차
이나무를 끌어다가	여차하니 여차
기역자로 집을짓고	여차하니 여차
한오백년 살고지고	여차하니 여차
가자가자 어서가자	여차하니 여차
고향찾아 어서가자	여차하니 여차
나귀등에 술질하여	여차하니 여차
쇼고안장 지어타고	여차하니 여차

68) 강동학, 「인제군」, 『강원의 민요 I』, 2001, p.532.

69) 인제문화원, 『인제뗏목』, 2002, pp.49~51.

오작교건너 광한루가자	여차하니 여차
노류장화 인개유지	여차하니 여차
만첩청산 어디려냐	여차하니 여차
다죽다죽 드린정이	여차하니 여차
어이하어 변할손가	여차하니 여차
도중한식 바쁜몸이	여차하니 여차
점심참이 늦어진다	여차하니 여차
날아가는 월양새야	여차하니 여차
너와나와 짝을지어	여차하니 여차
노세노세 젊어노세	여차하니 여차
늘어지면 못노나니	여차하니 여차
마오마오 그리마오	여차하니 여차
사람팔시 하지마오	여차하니 여차
이팔청춘 소년들아	여차하니 여차
백발보고 웃지마라	여차하니 여차
먼데사람 듣기 좋게	여차하니 여차
곁에사람 보기 좋게	여차하니 여차
뜨물동이 호박씨날듯	여차하니 여차
빨랫줄에 제비놀듯	여차하니 여차
어화동실 잘노논다	여차하니 여차
창포밭에 불나비날듯	여차하니 여차
둥실둥실 잘노논다	여차하니 여차

\* 목도소리 : 1990년 12월 20일 채록<sup>70)</sup>  
 - 가창자 : 양주석(남·69) 인제군 상남면 하남3리

이 나무가 어데서 왔나	영차하니 영차
방태산 제일봉에	영차하니 영차
낮이면은 일광을 타고	영차하니 영차
밤이면은 이슬을 먹고	영차하니 영차
낙랑장송 되었다가	영차하니 영차
만인간의 힘을 빌어	영차하니 영차
인제 합강 나왔도다	영차하니 영차
이나무를 끌어다가	영차하니 영차

70) 전신재, 『인제군의 민속문화(2)』,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림대박물관·강원도·인제군, 1996, pp.124~5.

기역자로 집을 짓고	영차하니 영차
한오백년 살고지고	영차하니 영차
가자가자 어서가자	영차하니 영차
휘영척영 어서가자	영차하니 영차
나를 반기는 원앙새야	영차하니 영차
널과 날과 짝을하여	영차하니 영차
노세노세 풀어놀아	영차하니 영차
늪어지면 못노나니	영차하니 영차
노류장화 ...	영차하니 영차
가죽가죽 붙은 정이	영차하니 영차
어이하야 변할손가	영차하니 영차
나구안장 지어타구	영차하니 영차
오작교건너 광한루가자	영차하니 영차
마오마오 그리마오	영차하니 영차
사람갈새 하지마오	영차하니 영차

\* 인제아리랑 : 1989년 12월 21일 채록.<sup>71)</sup>

- 가창자 : 최양희(여 · 70)

인제 함강정 뗏목을 띄우고 나니  
아니나가던 춤이야 제절로 나간다

## 2) 춘천의 뗏목 소리

\* 뗏목아리랑 : 1994년 4월 17일 채록.<sup>72)</sup>

- 가창자 : 김상운(남 · 1917년 생) 춘천시 신북읍 천전3리 거주

도짓거리 갈보야 어서 술 걸러라  
귀내기 여울에 떼 내려온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71) 전신재, 「인제군의 민속문화(2)」,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림대박물관 · 강원도 · 인제군, 1996, pp.130.  
인제읍 고사리에 살았다.

72) 향토사연구회, 『한강유역사연구』, 도서출판 산책, 1999, p.474. 이 소리는 『강원의 민요 I』에도 다시 채록되어 전제되었다.



아리랑 고개고개루 나를 넘겨주게

춘천아 봉의산아 너 잘 있거라  
소양강 배덕이 하직이로구나

이라리아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루 나를 넘겨만 주소

\* 떼타는소리 : 2001년 8월 29일 채록.<sup>73)</sup>  
- 가창자 : 최선규(남·85) 춘천시 신동면 중3리 거주

아리아리랑 아라리가 났구나  
앞뒷사공 뒷사공 보구서 팔세를 마라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개여울 닳쳤는데  
뒷사공아 눈밝히어서 그대를 당겨

\* 떼타는소리 : 2000년 7월 18일 채록.<sup>74)</sup>  
- 가창자 : 허재흠(남·?) 춘천시 신북읍 천전3리 거주.

도지거리 갈보야 술걸러라  
지내리 벼랑에 뗏목 내려가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아리랑 고개고개루 날 넘겨주게

춘천의 봉의산아 너잘있거라  
서울의 독섬에갔다가 다시 돌아오마

---

73) 김의숙·전신재, 「춘천시」, 『강원의 민요 I』, 2001, p.800.

74) 김의숙·전신재, 「춘천시」, 『강원의 민요 I』, 2001, p.813.

## 3) 화천의 뗏목 소리

- \* 떼타는소리 : 2000년 11월 12일 채록.<sup>75)</sup>  
- 가창자 : 유희열(남·77) 화천군 하남면 안평리.

기내기소에 떼피워 났으니  
도지거리 갈보들은 술좁걸러나라  
오늘저녁에 도지거리서자고 갈렌다

- \* 떼타는소리 : 2000년 9월 24일 채록.<sup>76)</sup>  
- 가창자 : 서태현(남·74) 화천읍 푸산2리 거주

아리아리 아리아리 아라리요  
뗏목이 니레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사여울 내려갈제 조심하라  
뗏목아 내려갈제 조심하셔  
아리아리 아리아리 아라리요  
덜레여울 내려갈제 조심하고  
뗏목이 내려가길 기원한다

- \* 나무 벨 때 부르는 소리 : 1994년 12월 22일 채록.<sup>77)</sup>  
가창자 : 최승조(남·74)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거주.

우여 부여르 이이에 올라만 가는구나  
옆에 있는 사람 말릴 생각하여라  
발 생각지 아니하면은 니 발이 내 샷에 찢린다  
우여라 부여르 이이에 올라가자 빨리  
우여르 부여라 부여 이이에  
술 먹은 참수가 돌아오니  
빨리 이코를 끼고스 술 한 잔을 먹자  
올라 부여라  
여러 사람들 빨리 끼고스  
쉬구서 낫도 갈고 술도 먹고

75) 이창식, 「화천군」, 『강원의 민요 I』, 2001, p.1214.

76) 이창식, 「화천군」, 『강원의 민요 I』, 2001, p.1223.

77) 김풍기·김충수, 「화천군의 민속문화」, 『화천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6, p.259.

#### 4) 정선의 뗏목 소리

\* 뗏목소리 : 1997년 9월 16일 채록.<sup>78)</sup>

- 가창자 : 이명근(남·1917년 생) 정선군 신동읍 운치2리 수동 거주.

무지공산아 잘 자랐나 한양을 간다네 여어차  
 한치두치 여어차  
 이 고개가 옛날부터 소문이 났다네 여어차  
 우리 사공들은 애꾸될새 여어차  
 울컥울컥 여어차  
 한번만 더하면 되겠네 여어차  
 지남석에 찍들어붙었네 여어차  
 이랑군을 보게 몸부림을 한다네 여어차  
 삼동허리를 고분주고 서네 여어차  
 정통같은 팔심으로 여어차  
 무지공산에 잘 자란 낭귀야 한양을 간다네 여어차  
 울컥덜컥 여어차  
 한번만 더하면 될 듯하네 여어차  
 이렇게 가도 한양을 간다네 여어차  
 삼동허리를 곱은 곱상 여어차  
 왜 이리한가 여어차

\* 목도소리<sup>79)</sup>

자 여영차 하면	영차
여 우우리 군인	영차
여 자알 한다고	영차
팔도 명산에	영차
자 소오문 났소	영차
자 여영차 할 제	영차
여 두발치를	영차
자 모두쳐(모아서) 덮고	영차

78)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한강유역사연구』, 1999, p.452.

이 소리는 후에 『강원의 민요 I』, 2001, pp.625~626.에 재수록되었다.

79) 신경란 편, 『대라, 틀어라, 박아라』, 뿌리깊은나무, 1992, p.40. <아우라지 뗏사공 송문옥의 한평생>이란 부제가 붙어 있다. 소리는 송문옥(1906년생)이 했다.

다 읽겨(웁겨) 보세	영차
또 한 번만	영차
대이레(힘을 써) 보면	영차
아 군두목(군두쇠) <sup>80)</sup> 이	영차
하 콩튀듯 하네	영차
자 우리 군인	영차
참 잘하네	영차

\* 떼타는소리 : 2001년 6월 21일 채록.<sup>80)</sup>

- 가창자 : 최봉출(남·83) 정선군 남면 무릉리 멀미아파트 거주.

황새어울 된꼬까리 떼지워놓게  
만지산 전산옥이 술판차려놓게

미창아리랑 서창영월아 술한잔 부어라  
물명주 돈지갑에 돈쏟아진다

\* 뗏목 넘기는 소리<sup>82)</sup>

뗏목이 내려가다가 바위에 걸리면 떼가 뒤엎켜 ‘돼지우리’를 짓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앞 사공과 뒷 사공이 떼에 신고 가던 긴 막대를 떼 밑에 넣고 들썩거리다 보면 떼가 미끄러져 내려가지만 꼼짝하지 않을 때도 많았다. 앞 사공과 뒷 사공만으로 힘에 부치면 지나가던 떼꾼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떼꾼 사이의 동료의식은 대단해 앞서가던 떼가 파손되거나 걸리더라도 하면 갈 길을 멈추고 도와주었다.

떼꾼 여럿이 긴 막대를 밑바닥에 놓고서 힘을 쓴다. 사십 미터가 넘는 뗏목을 넘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뗏목을 넘기는 일이 힘에 부치면 강제로 넘기려하지 않고 마지막 동가리의 양쪽 가장자리에 매어놓은 목재 한쪽을 둔테에서 풀어 마치 비행기 날개처럼 펼쳐놓고 쏘리는 물살의 힘을 받아 부드럽게 넘어가게 하는 방법을 쓴다. 이렇게 끝 동가리의 나무를 펼치는 방법을 ‘뗏봉 단다’고 한다. 바위에 걸린 뗏목이 넘어가라고 마치 사람을 달래듯 소리를 메기면 나머지 사람들이 “오오차” 하는 소리를 한 목소리로 받아 부르며 힘을 썼다.

80) 군두쇠 : 큰 재목을 산에서 운반할 때에 재목의 한쪽 머리에 박고 거기에 줄을 매서 끄는 크고 굵은 쇠고리

81) 진용선, 『정선군』, 『강원의 민요 I』, 2001, p.583.

82) 진용선, 『정선뗏목』, 정선문화원, 2001, pp.91~94.

오호차

이낭구 보게 몸부림을 한다네	어어차
한 번만 더하이면 될듯하네	어어차
한치두치	어어차
일세 번쩍에	오호차
이 고개 보게 옛날부턴 소문이 났다네	오어차
목상은 보든 혼심 적겠네	오오차
우리야 사공들 옛고겘세	오오차
여차하니 한번만 더하이면 될듯하네	
정동같은 팔심으로	오려차
삼동허리를 고분 곱상에	오오차
어데가 절렸나 저린데 마음	오오차
이낭기 지남석이 쩍얼어 붙었다네	오오차
어데가 절렸지 절린데 마음	오오차아
무지 공산에 잘자란 낭기	오오차
이렇게 가도 한양을 간다네	오오차 <sup>83)</sup>

\* 뗏목노래 : 1997년 11월 11일 채록.<sup>84)</sup>

- 가창자 : 최종명(남·54) 정선읍 덕송리 다래마을 거주

정선서 떼를 타고 호탄 영월 호단 정든 댐을 넘어갈 적에  
 무사히 짓는 뗏공이 누구늬더냐  
 아무께라 격서 뗏사공이 이러노라  
 너희에게 떼를 타자한 이난 서울갈 제는 서울떼  
 서울떼가 영월서 여섯 개를 포함해서 서울떼로다  
 거기서 일월서 수사공이 누구 뗏사공이 누구더냐

에 에

강원도라 금강산 정선 조양강에 뗏사공아 사공아  
 뗏사공아 우리 떼를 타야 오졸떼를 타고  
 영월간 이는 영월 한전 맥혔는니  
 영월 한전에 뒤대놓고서  
 정선 뗏사공 앞사공은 다 탈지요  
 영월 앞사공이요 영월 뒷사공이 앞사공된이는

83) 가창자 : 이명근(남·77세) 정선군 신동읍 윤치2리 수동 거주, 1998년 채록.

84) 진용선, 「남한강 뗏목과 전승민요 고찰」, 『강원도 민요의 삶의 현장』, 집문당, 2005, p.112.

우리 정선 앞샷대에 앞사공들도 섭하도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대일신 오대일에  
 앞사공을 잡은 사람 영월대표시로다  
 그계 한에는 서울 한강 간에는 한강의 뒷방에 대니난

한강변에다 떼를 대니 잡놈이 많아 무슨 잡놈이나  
 돈 뜯는 잡놈 그때 허시허시  
 우리 누구려나 십원짜리라면 백원짜리 십원이라  
 윤통화 사실적에 우리는 우리가 끄실려나  
 시화영풍 국태이나 요런 동글동글한 나무타곤

\* 영월가는 소리(떼타는소리)<sup>85)</sup>

- 가창자 : 송만옥(남 · 1906년 생) 정선군 북면 여량리 갈금마을 거주.

에 황새 여울 된꼬까리야 떼 무사이 지웠네에에에에  
 만지나 전 산옥이는 술빤 차려 놓아라

에 제남 문 제적은 앞사공이 하아아고오오  
 아가씨 중등<sup>86)</sup> 제작은 거 누가 하는가

### 5) 영월의 뗏목 소리

\* 떼내려간다소리(떼꺼내는소리) : 2001년 8월 5일 채록.<sup>87)</sup>

- 가창자 : 정연옥(남 · 76) 영월읍 거운리 거주.

여기여차 떼내려간다 일심받아서 심을쥐라  
 여기여차 떼내려가네 일심받아서 심을주게

85) 신경란 편, 『대라, 틀어라, 박아라!』, 뿌리깊은나무, 1992, p.58.

86) 중등은 여자의 음부를 이르는 말. 중등 제작이란 말을 뚝을 쉬는다는 뜻.

87) 이창식, 『영월군』, 『강원의 민요 I』, 2001, p.217.

- \* 목도소리 : 1995년 1월 23일 채록.<sup>88)</sup>  
 - 가창자 : 이주현(남·60) 영월군 연하1리 거주.

얼씨구 절씨구 어얼짜 올라가자 내려가자 얼씨구  
 얼씨구 올라가자 얼시절씨구 얼쌀말 똥똥 뛰어

### 6) 한강원가(漢江怨歌)<sup>89)</sup>

다음 글은 한강에 주교를 놓을 경우 그 폐단이 심했었다는 글인데, 그 노래가사에 강원도의 뗏목이 들어가 있다. 흥미로운 자료이므로 그 전문을 인용했다.

한강(漢江)을 오르내리던 뗏꾼들에게 주교폐(舟橋弊)라는 것이 있었다. 임금의 도강(渡江)을 위해 임시로 주교(舟橋)를 만들 때는 이 근방은 아무도 얼씬 할 수 없었다. 폐건, 곡식이건, 무엇이건 다 멀리 쫓아 버렸다. 이 때 뗏꾼들은 한 푼의 ‘공가’도 받지 못하는 엄청난 수폐(受弊)였기 때문에 그 아픈 심사를 원가(怨歌)로 표출하였던 것이다.

세종(世宗)조 때 능(陵) 참배 등으로 왕이 도강해야 할 때는 배다리(舟橋)를 놓는데 이 때는 어떤 배든 징발을 당하였다. 왕실(王室)에서 강을 건널 때는 삼군 장수(三軍將帥)가 강 이편저편에서 열을 지어 서 있고, 각(角)과 북을 호응 취주(吹奏)하는 가운데 좌군(左軍)의 구운(九運)이 선행(先行)을 맡고, 중군(中軍)의 십칠운(十七運)이 그 뒤를 받치고, 그 뒤를 어거가 행차하였다. 그리고 우군(右軍)의 삼운(三運)이 후미(後尾)를 맡는 주교도강(舟橋渡江)을 하였다. 연산군(燕山君)은 시흥(始興) 청계산(淸溪山) 사냥에 말너댓 마리 건너가는 데도 이 주교를 놓도록 하명하였던 것이다.

왕의 행차에는 대개 민간선(民間船) 8백여 척이 징발되었다. 이 주교를 완성시키는데는 20여 일이 걸렸다. 그 동안 경(京)을 중심으로 한 한강(漢江)의 수운(水運)은 두절될 수밖에 없었다.

다음에 소개하는 노래의 가사는 이같은 주교폐(舟橋弊)로 인해 생겨난 한강 원가(漢江怨歌)이다.

강원도 뗏목장수  
 뗏목 뺏기고 울고 가고  
 전라도 알곡장수  
 통배 뺏기고 울고 가면,  
 마포 객주 발 뺏고 울고  
 노나루 색주가 머리 잘라 판다.

88) 남근우·전신재, 『영월군의 민속문화』, 『영월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5, p.188.

89) 인제문화원, 『인제뗏목』, 2002, pp.73~74.

원래 이 글은 이규태가 지은 『개화백경』3권, (신태양사, 1969), pp.85~86.에 실렸었다.

주교폐(舟橋弊)가 얼마나 크고 심했는가를 익히 알게 해 준다. 세종은 주교폐의 뚝뚝하지 못함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배다리는 어지럽다”는 구실로 한강 건너기를 애써 피하곤 하였다.

세종이 붕어(崩御)하여 영릉(英陵)으로 이장될 때 주교를 놓고 한강을 건너는 도중 비가 내려 대련(大輦)이 흠뻑 젖어 버렸다. 어지러운 황천길에 죽어서까지 백성을 아끼시는 인자한 비라고 뱃사람들이 말했다.



## VII. 맺음말

인제는 예로부터 삼림이 울창하여 나라에 나무를 진상하던 곳이었다. 인제군 북면 한계리에 있는 황장금표가 그 증거로서, 당시 황장목을 진상하기 위해서는 수운(水運)을 이용하였다. 그렇지 않고는 그 아름드리 나무를 운송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인제는 옛날부터 뗏목이 발달하였다. 일반적으로 뗏목이라 하면 뗏목 위에 무엇인가를 운송하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지만, 뗏목으로 엮어진 그 뗏목 자체가 하나의 운송물품이란 점을 생각한다면 한층 이해가 쉬워질 것이다.

인제의 뗏목은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전통도 194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강 수계에 하나들 댐들이 건설되고, 또한 38선이 그어지면서 차츰 사라지게 되었다. 최근 들어 래프팅으로 오히려 각광을 받고 있는 내린천이 그 옛날 아름드리 황장목을 적심하던 곳이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인제군에서는 이렇게 잊혀져 가는 선조들의 문화를 복원하는데 힘쓰고 있다. <인제의 뗏목 재현>이란 제목으로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매년 10월이 오면 인제 지역의 가장 큰 축제인 함강문화제 때에 예전에 뗏목을 떠나보내던 행사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함강문화제는 1983년 10월 27~28일 처음 개최된 이래 1985년부터 뗏목을 재현하고 있다. 이 뗏목 재현에 가장 큰 도움을 준 분이 손용인(1913년 생)<sup>90</sup>, 박해순(1925년 생) 두 분이다. 박해순은 전통민요인 뗏목아리랑을 계승한 소리꾼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뗏꾼이자 소리꾼인 박해순의 일생을 중심으로 뗏꾼의 삶을 총체적으로 조망해보았다. 그러면서도 민속생활사적으로 뗏꾼과 아울러 당대의 목상, 적심꾼, 벌목꾼, 산림간수, 인부, 주막집 여인들도 조망함으로써 그 당시의 생활상을 끄집어내려고 노력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1930~40년대 뗏꾼들과 그들 주위에 있었던 다양한 삶의 군상들을 살필 수 있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오래 전의 일이라 그 당시의 일들을 구술해줄 분들을 만나기 힘들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뗏목의 대부분은 박해순의 구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인제문화원에서 발간한 증보판 『인제뗏목』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90) 손용인 용은 2004년에 별세하였다.

뗏목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벌목을 해야 한다. 그런데 당대 목상을 했던 분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 대부분 세상을 달리 했기 때문이었다. 다만 산림간수 김춘홍, 적심꾼 방법수 두 분을 만나 어느 정도 목상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방법수는 고령(1919년 생)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정하다. 농사가 주업인 그는 여름 농한기에 적심을 했고, 겨울 농한기엔 벌목을 했다. 방법수를 통하여 뗏목을 만들기 이전의 과정, 벌목과 적심의 과정을 자세히 조망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의미 있는 소개의 장이 마련되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한다.

벌목 허가를 얻고, 벌목을 하고, 적심을 하고, 뗏목을 만들고, 뗏목을 타고 춘천이나 서울로 가져가 강주인(혹은 목상)에게 뗏목을 전달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선 본문 중에 자세히 설명을 했기에 따로 요약을 하진 않는다. 사실 뗏목을 만들고 띄우고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진통민 요인 뗏목아리랑이다.

강원도 아리랑의 곡조인 인제 뗏목아리랑은 상당히 독특한 아리랑이다. 강원도 내의 정선아리랑이나 평창아리랑,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진도아리랑이나 밀양아리랑 등에 비해 그 학술적 가치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지적 받는다면 노랫말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뗏목아리랑이 주목받아야 마땅한 점은 뗏목을 타고 불려졌던 몇 안 되는 생활민요라는 점에 있다. 그런 점에서 박해순의 뗏목아리랑은 적잖은 의미를 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뗏목아리랑의 가사는 훨씬 더 다양하고 길었을 것으로 추정한다.<sup>91)</sup> 왜냐하면 함강정에서부터 쾌갱이, 포와리, 도지거리, 덕두원을 지나 북한강으로 들어서며 만나는 수많은 주막들, 그곳을 소리 없이, 아리랑 없이 헤쳐나가는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다.

뗏목아리랑은 뗏꾼들의 삶이 가사 속에 용해되어 있지만, 가장 주요한 것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불려졌을까 하는 점이다. 박민일은 남한강의 정선뗏꾼, 북한강의 인제뗏꾼들이 아리랑의 전파자로 파악하면서 어떤 전파 목적을 갖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부르다보니 그렇게 되었다<sup>92)</sup>고 설명했다. 애초 댄 가사 말로 보아, 자연을 벗하면서 하루 종일 뗏목만을 운행하다보면 고요하면서 자연과 동화되고픈 감정이 들 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럴 때 불려졌다면 당연히 강원도 아리랑의 애조(哀調)임은 분명하지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막거리에서 불렀던 거라면 얘기는 사뭇 달라질 것이다. 아마도 진도아리랑이나 밀양아리랑처럼 흥겹고 낭창거리는 자진아리리 곡조는 아니었을까.

뗏목을 타고서 술잔을드니  
만단의 서름이 다풀어지네

이처럼 만단의 설움을 다 풀어내는 술잔은 실재는 뗏목 위가 아니라 아마도 주막거리였을 것이다.

오늘날 점차 사라져 가는 우리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인제를 비롯하여 춘천에서는 소양재 때 뗏목놀이를 해마다 하고 있으며, 영월, 정선에서도 뗏목 만들기를 재연하고 있다. 물론 인제군도 마찬가지다.

현재로서는 뗏목아리랑 가사발굴은 힘든 일이나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며, 나아가 뗏목아리랑 경창대회, 뗏목만들기체험 등 문화 소프트웨어를 발굴·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1) 권혁준, 「인제군의 무형문화」, 『강원민속학』18집, 2004, p.348.

92) 박민일, 『아리랑』, 강원대출판부, 1991, p.30.

## [사진자료]<sup>93)</sup>

\* 벌목에서 뗏목까지의 과정



1. 황장목



2. 벌목 입산

93) 이 사진자료는 인제문화원에서 제공받았다. 순서대로 벌목을 하는 과정부터 뗏목을 만들어서 출발하는 과정까지 전재했다.

3. 산치성



4. 나무껍질 깎기



5. 도끼로 벌목





6. 나무 끌기



7. 통길 만들기



8. 통길나무 하산

9. 집하장으로 2목도 운반



10. 4목도 운반



11. 어깨메기 운반





12. 원목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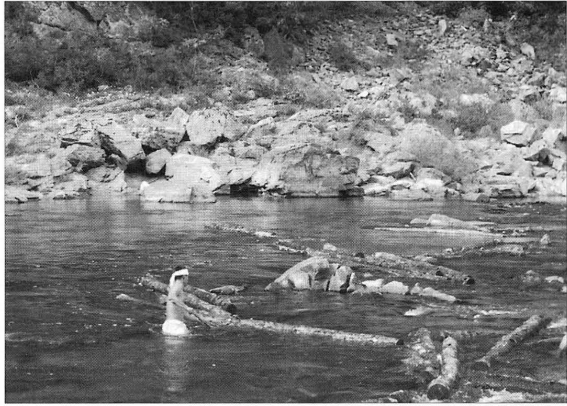


13. 원목토장 쌓기



14. 적심운반

15. 데미털기



16. 둔테가지



17. 뗏목나무 코뿔기







18. 뗏목 엮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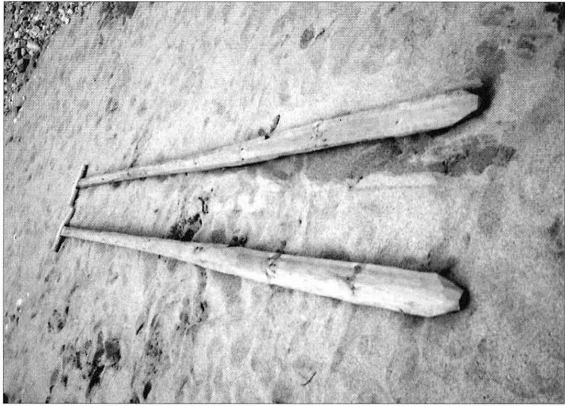


19. 뗏목 엮기



20. 그레 깎기

21. 완성된 그레



22. 강다리 만들기



23. 강치성





24. 뗏목출발준비



25. 주모와의 만남



26. 뗏목 위에서 주모와 놀기

\* 인제뗏목놀이 재연 화보<sup>94)</sup>



1. 합강머리에 있는 뗏목



2. 인제 뗏목놀이 경축

94) 이 사진은 2004년 9월 합강문화제에서 뗏목을 재연한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3. 강치성으로 준비한 제물



4. 목상과 함께 강치성을 드린다. 무당역할에 박해순(뗏목아리랑 기능보유자), 목상역할에 방효정(인제문화원장)



5. 주모들이 장구를 치면서 흥을 돋운다.



6. 서서히 강심으로 나아가는 뗏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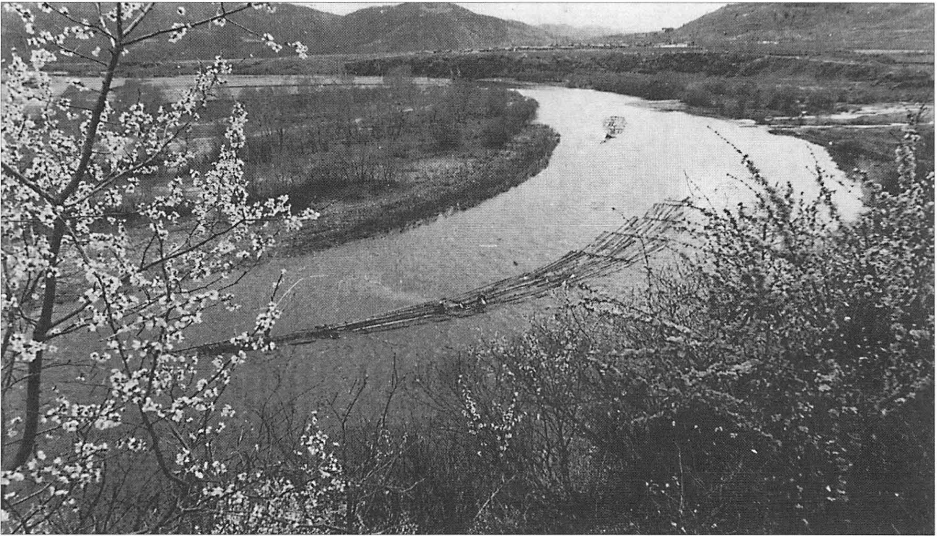


7. 뗏목 위에서 주모들과 정겹게 놀다.



8. 소양강으로 사라져가는 뗏목

\* 기타



두만강 뗏목



압록강 뗏목과 뗏꾼



## [생애사 구술자료]

본 채록 조사자료는 장정룡과 이한길이 2004년 7월 30일, 2004년 10월 5일, 2005년 3월 28일, 2005년 6월 11일 등 4회에 걸쳐 박해순 前인제문화원장을 방문한 것이며, 그 외 전화로 여러 번 땃목과 땃목아리랑, 그리고 생애사를 채록했다. 내용이 일부 중복된 것도 있어서 여기에는 2005년에 채록한 것만을 신기로 한다. 편위상 조사자는 '조'로 박해순은 '박'으로 약칭으로 사용한다. 대화 중에 설명이 필요하거나 의미의 전달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를 사용하여 의미의 전달을 매끄럽게 하였다.

### ◎ 2005년 3월 28일(월)

조 : 오늘이 2005년 3월 28일입니다. 前인제문화장님 성함은요?

박 : 바다 '해(海)' 자, 순할 '순(順)' 자, 춘천 박씨입니다.

조 : 생년월일은요?

박 : 1925년 1월 20일, 양력입니다.

조 : 태어나신 곳은 어디시지요?

박 : 인제군 남면 부평리 1064번지죠. 본적이예요.

조 : 몇 남 몇 녀시죠?

박 : 2남3녀 중의 장남이지요.

조 : 선친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박 : '박(朴)' 자, 터 '기(基)' 자, 동녘 '동(東)' 자요. 살아 계시다면 102살. 용띠입니다.(1904년 생)

조 : 모친은요?

박 : 김(金), 용 '용(龍)' 자, 바다 '해(海)' 자, 모친도 역시 102살로 용띠입니다.

조 : 두 어르신은 고향은 어디시지요?

박 : 다 거기지요. 인제.

조 : 그러면 뭐 하셨나요? 농사지셨나요?

박 : 농사짓죠.

조 : 할아버지는요?

박 : 할아버지는 요기 인제 소재지에 계셨더랬어요.

조 : 할아버지는 뭐하셨나요?

박 : 우리 할아버지는 상업을 하셨어요. 장사라는 게, 그때 인제(에서) 장사, 구멍가게죠.

아버지가 7남매인데, 6남1녀 중의 셋째예요. 그래서 장가들어 가지고 부평으로 와 살았지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 들어와 살게 되었고, 우리 아버지는 뗏목에 베풀랑이어요.

조 : 결혼은 언제 하셨나요?

박 : 제가 20살 때 했으니까, 지금 60년 되었어요.

조 : 사모님 성함은요?

박 : 이장생. 긴 ‘장(長)’, 날 ‘생(生)’.

조 : 자녀분은요?

박 : 둘들이예요. 2남2녀.

조 : 모두 출가하셨겠죠?

박 : 그렇지 뭐.

조 : 자제분들은 어디?

박 : 큰아들은 서울 가 있고, 둘째 아들은 울산 가 있고, 큰딸이 지금 여기 같이 있어요. 우리 사위가 여기 인제 농협조합장이고, 다른 딸 하나는 울산 가 있어요. 울산 가 있는 딸은 괜찮게 살아요.

조 : 선친이 뗏목을 타셨다고요?

박 : 네.

조 : 뗏목을 접하신 것은 어떻게 접하셔서요?

박 : 그 당시에는 여기 인제는 그 때가, 뗏목이 생활벌이로선 노동벌이로서는 최고거든. 그러니 저희 아버지가 요즘 이룰테면 건달기가 좀 있지요. 건달기가 좀 있어 가지고 별이가 좋으니까 그것을 택하셨고, 우리 아버지는 가산은 별로예요. 그래도 참 재주가 많으신 분이어요.

조 : 소리도 잘 하셨나요?

박 : 네. 소리도 좀 하시고, 그 놀음도 잘 하세요.

조 : 어렸을 적에 같이 찍은 사진이 후 있으시나요?

박 : 없지요. 우리 아버지는 사진이 어디 조그만 게 있을 거예요.

조 : 나중에 우리가 복사해서 사용할게요. 때를 처음에 선친하고 같이 타셨나요?

박 : 아버지 하고요? 같이 안 탔지요. 어떻게 같이 타요? 그게 앞사공, 뒷사공 그러거든요. 같이 못 타고, 저희 아버지가 그제 돈이 되는 거 아니까, 같은 목상의 때를 타는데 다른 사공과 짝을 지워 주어서 그래서 탔지요.

무슨 얘기인줄 아시죠? 그러니 아버지하고는 같이 안 타고 다른 사람 뒤에다가 짝을 지워줘서 탔지요. 그때 내가 19살<sup>65)</sup>이예요. 그때 19살이 요즘 19살과 달라. 다 성장한 거 같고, 1년에 춘천을 두 번 갔었고, 19살 먹던 해, 서울에 한 번 갔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때만 탔지 돈은 구경도 못하고, 아버지가 다 챙기니까, 하하하, 그래구 21살 때 해방이 되었으니까.

조 : 해방 후에는요?

박 : 해방되고는 못 탔지. 본적지 있는 남면 부평리가 38선이어요. 거기 38선이 있었거든요. 여기(인제읍)는 이북이고, 거기(남면 부평리)는 이남이고, 바로 우리가 38선 경계에 있었다고. 그래 인제 해방이 되어 가지고 남북으로 갈렸으니까 떼는 못 타고, 그런데 1946년 해방 그 이듬해에, 5월달에 떼가 내려왔더라구. 떼가 이북에서 물이 불어가지고 내려왔더라구, 남면 부평리 그쪽으로 떼가 내려가거든. 이북에서 뭐를 어떻게 했는지, 떼만 내려온 거를 우리가 가 붙잡았거든. 친구들하고.

그거를 건져 가지고 춘천 갔다 팔자. 우리가 나무를 공짜로 얻었으니까, 그전에 떼 타던 놈들끼리 세이서(3명이서) 어떻게든 망글어서 춘천 갔다 팔자. 그래 춘천으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잡니까?

조금 가면 이북, 조금 가면 이남, 이래니, 그때 그걸 타고 가다가, 이북에 가 붙잡혔지. 이북 땅으로 들어갔을 적엔 그놈들이 지키고, 이남에 왔을 때는…. 가서 그걸 집어내 버리고, 낮엔 가지 못하고 밤에 갔거든. 달밤이니까 떼를 가지고, 참 죽을 줄을 모르고, 글썽 밤에 어떻게든지 가지고 가서 해서 갔는데, 갔는데 붙잡혀 가지고 못 가져 갔어요. 빼앗겼어요.

포와리 그런 떼가 전부 이북이예요. 이북 땅에 군대도 군대지만 보안대라고 요즘 여기 경찰이야. 그제 있었다구.

조 : 붙잡혀서 어떻게 했어요?

박 : 그제 좀 복잡한데, 미리 생각을 했어.

가다가 이놈들이 붙잡으러 올라올 거다. 올라오면 우리 한탕하자, 그래 가지고, 몸치<sup>95)</sup>, 야구방망이 같은 거, 그걸 참나무로 깎아서 준비하고 갔다가 떼로 올라와서 말썽을 부리는 놈 때려서 패자. 그리고 가자.

(그래서 몸치를) 해 가지고 갔는데, 위낙에 여럿이 달려드니까, 물이 깊은 데는 못 들어오네요. 여들목(여울)이 있어. 여들목은 얕으니까 거길 지키고 있다가 이놈들이 떼로 올라오더라구. 우리들은 셋인데, 저놈들은 수십 명이니 배길 수가 있어야지. 하다 못해서 떼를 집어내 버리고 그 밑에 소에 뛰어 들어서 이남 쪽으로 낚다 뛰었지. 그래서 그 떼를 내버리고 튀어서 갱변으로 육지로 나갔는데도 (거기도) 이북이야. 거기도 이북 땅이여.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밤에, 날만 새면은 가자, 여기 있다가, 그래서 거기 산 속에서 5월달이니까, 잎이 다 피고 춤지 않거든요. 산 속에 있다가 날 새면 가기로 하고 거기서 묵었지. 그런데, 날 새고 한 9시쯤 되니까, 총 맨 놈들이 두 놈이 찾아 쫓아 올라오더라구. 그래 갈 수도 없고 붙잡혔지.

자꾸 사정을 했지. 좌우간 우리가 뗏목 애기는 안 하고, 우리가 춘천 갔다오다가, 돈이 떨어져서 집에 못 가고 여기서 묵다가 날이 저물면 밤에 집에 가려고 한다. 창피해서 낮엔 집에 못 들어가고. 거기서 산 하나 넘으면 부평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있다가 갈란다. 그러니까,

95) 19살을 나중에 전화통화로 17살로 정정하였다. 처음에 녹음을 하니 당황하고,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을 못하였는데, 나중에 조금씩 옛날 일이 기억이 난다며 연도를 정정해 주었다. 이후 그렇게 전화로 문의했을 때 정정한 것들이 여러 곳이 있다.

96) 나무방망이를 의미.

“아. 그러냐?”고 “동무들 참 수고한다”고.

이놈들도 우리가 춘천에서 온다니까 정보 수집한다고 그냥 매달리더라구. 그래서 사정사정해도 안 되고 자꾸 가자구 하더라구. 보안서로 가자구. 그래서 그 강 이쪽이거든, 이남 쪽에 있었고, 이북 땅이래도 (위치 상으로는) 이남 쪽이었거든. 그레 거기서 뭐 할 적에, 우리 눈 꿈쩍<sup>97)</sup>을 했죠.

조 : 누구누구였죠? 이름 다 기억나나요?

박 : 이름 다 기억나죠. 하나는 이성준이고, 한 사람은 박덕근이고.

조 : 동네 사람들인가요?

박 : 그렇지요. 한 동네에서 살았죠.

조 : 지금도 생존해 계시나요?

박 :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뭐 두 놈이 총은 들었어도 좀 만만해 보이더라구. 그레 우리 스물 한 살, 스물 두 살, 뭐 그때는 소도 둘러 매치려고 덤빌 텐데, 좌우간 가면서 은근히 약속을 했죠.

붙잡혀 가서 들어가면은 이북으로 들어가면은 안되니까, 우리 어떻게든 들고 뛰자.

그래서 그때는 지금처럼 담배가 갑담배가 아니고, 봉지담배, 엽초 쓸은(쓸은) 거를 갖고 갔었거든. 그레 가면서 내가 신호를 했지. 내가 담배를 말아서 입에 탁 붙이면 그때 치자. 세 놈이 두 놈 한 놈 치면 안되겠냐고.

그래서 인제 나하고 이성준이란 사람은 두 놈이 한 놈을 달라붙고, 박덕근이는 좀 쉰 놈이거든. 그놈은 한 놈을 독차지하기로 하고,

그래서 아무런 사정을 해도 안 들어. 그때 강변에 이렇게 집에 하나 ‘일(-)’자로 있었는데, 그 집 마당에 가서 우리가 맹탕을 치는 거야. 가지 말자고, 못 간다구, 그레 부득이 가자고 할 적에 담배를 말아서 입에 탁 물 적에 탁 쳤거든.

하하.

총 가진 놈이, 하하 그놈이 총만 가졌지 뭐. 제까짓 게 뭐, 얼마나 되게 쳤는지, 한 놈은 총 내버리고 도망을 가더라구. 한 놈은 도망을 가구, 한 놈은 좌우간 그놈도 쉰 놈이 붙었는데, 총은 이렇게 돌렸는데, 구식장총이거든. 이렇게 쥐고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 서로 넘겨다쥐니까. 서로 두 놈이 싸울 적에, 우리는 한 놈이 도망을 갔으니, 그 다음엔 세 놈이 한 놈을 들이치니까, 총으로 막 냐기다 쳤지 뭐. 그리고 산으로 도망을 쳤지 뭐.

그게 지금 신남 휴게소 있는 데야. 그쪽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 산등성이를 넘어오니 지서가 있더라구. 그 지서에 총 두 개를 갔다 주고, 총을 뺏었지요. 총 그만두고 오면 큰일이 날까봐, 그래서 인제 그런 일화가 있었다구.

조 : 그게 언제 일이죠?

박 : 46년도예요. 해방 되고 그 이듬해 5월이니까.

조 : 그 멧목의 크기는요?

박 : 그리 크지는 않았지요. 세 동가린가 네 동가린가 그래요. 떼를 이렇게 완전히 멧는데, 우리 합강리 거기에 매어 놓은 거 그만해.

조 : 내린천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반대쪽에서 내려온 거예요?

97) 눈꿈쩍 : 눈을 깜박하는 것으로 서로 의사전달을 했다.

박 : 어디서 내려온 것인지 모르지. 이쪽에서 내려왔으니까. 부평에서 발견했으니까. 지금 부평선착장에서 거기서 발견했어요.

조 : 부평이 합강 위인가요?

박 : 아니지. 합강정은 여기고, 부평리는 여기서 쫓아서 내려서 저기 신남이여<sup>98)</sup>. 신남으로 가는 선착장 거기야.

조 : 뗏목은 어떻게 가요? 코스가?

박 : 이 강을 타고 내려가지요.

조 : 내린천?

박 : 내린천이 아니고 여기가 소양강 상류거든. 소양강 상류에서 소양강 따라 자꾸 내려가지요. 남면 땅으로 들어서지, 그쪽에서 양구 동면, 그쪽으로 강이 연결되지요. 지금 이 강이 글로 가면 양구 선착장이 나오지요.

조 : 춘천으로 가나요?

박 : 그렇지요.

조 : 춘천 어디쯤에...

박 : 춘천 도지거리가 나오지요. 춘천 외곽이지. 샘밭 그쪽이니까. 덕두원 쪽으로 나가지요. 덕두원은 지금 춘천 중도 그쪽이 덕두원이야. 그래서 청평 쪽으로 나가면 남·북한강이 합치지요. 그래서 팔당댐으로 해서 서울로 들어가지요. 뚝섬으로.

조 : 광나루로 들어가 뗏목을 주는가요?

박 : 그렇지요. 뚝섬으로 들어가서 광나루로 가서 뗏목을 풀고.

조 : 내려올 적에는?

박 : 내려올 적에는 차를 타고도 오지만, 대개 차를 잘 안 타요. 걸어서들 대개 오고,

조 : 걸어들 적엔 어떻게 와요?

박 : 걸어서는 나는 한 번 갔다와서 잘 모르지만, 얘기를 들으니까 그 팔당 있는 그쪽으로 해 가지고 춘천 샘밭으로 해서 한골로 해서 신남 그쪽으로 해서 들어오죠.

조 : 며칠 걸리나요?

박 : 나흘 걸리죠. 나흘 온대요. 하하하. 그때는 고무신도 없고, 짚신 삼아 신는데, 짚신이 하루밖에 못 신으니까, 사람있는 데는 신고, 사람 없는 데는 맨발로 가고. 그랬대요. 뗏꾼들이, 그러니 뭐...

조 : 떼를 타면 돈을 많이 벌었겠군요?

박 : 떼를 거기까지만 갈다주면, 공가지. 노임 받는 거지.

조 : 노임 얼마 받았죠?

박 : 노임은 35원 받은 거 같애. 1인당. 앞사공이나 뒷사공이나 차이가 없어. 똑같아.

조 : 당시 쌀 한 가마가 얼마했지요?

박 : 당시 쌀 한 가마가 5원 못했어. 춘천까지 35원이다. 쌀로는 계산을 못해봤는데, 그 당시 얘기가 공가 받아 가지고 주로 광목들 사고, 고무신도 사고, 좀 냉귀(남겨) 가지고 와서 농사짓는데, 뗏목 한 번 타고 춘천 한번 갔다오면은 웬만한 농사 비용이 다 빠진대요.

98) 인제읍 합강리에서 소양강 물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길에 부평리가 위치해 있다. 내린천과 서화천, 원통천 등은 합강리보다도 물줄기가 위에 위치해 있다.

조 : 떼를 사계절 다 탈 수는 없잖아요?

박 : 그렇지요. 그거를 깎때기 막사리 그러거든요. 깎때기는 아까 얘기하듯이 5월초 4월중순에 처음 나가. 막사리는 10월달이야.

조 : 깎때기, 막사리 사이에는 농사도 짓고 하다가,

박 : 그렇지요. 농사는 철농사를 지어요. 모 심고그 뭐 이러 할 적에 대충대충 해놓고, 떼에 달라붙죠. 떼가 수입이 그게 굉장히 좋거든요.

조 : (땃목으로 나간 것은) 소나무잖아요?

박 : 소나무지요. 그때는 소나무말고 다른 나무는 없어요.

조 : 그게 서울로 가면 목재로서 쓰이나요?

박 : 그렇지요. 근데 인제 떼가, 제일 나쁜 거가 화목, 그 다음에 연목이라고 있어요. 연목이 인제(아마) 서까래보다는 좀 굵고, 그런데 쓰는 연목이 있고, 그 다음에 궁궐 이런데 쓰는 거, 그 다음에 부둥이라는 게 있거든.

궁궐, 부둥이란 거는 아주 큰 나무지. 그거는 대들보 같은 큰 나무지요. 그때 나무를 보니까 24자 거든. 낭그를 24자를 쓰는데, 뒷동가리 웬만한 거는 3개밖에 안 매요. 여기서 춘천가는 거 3개, 왜냐하면 3개래도 그제 엄청나게 크거든. 그렇게 썼지. 앞에는 꽤 크지요. 열 개도 더 매죠.

조 : (앞동가리도) 10개, (뒷동가리도) 10개 이렇게 매나요?

박 : 아니죠. 처음에는 한 30개, 부둥 궁궐 같은 거는 한 20개 매요. 그 다음에 18개, 16개 그렇게 해서 5동가리를 매요.

조 : 타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박 : 둘이 타요. 떼를 밀고 가는 게 아니고, 물이 가는 데로 조정만 해주는데, 나는 앞사공을 못 해봤으니까, 뒷사공을 하는데, 앞사공이 하는 말이 물말기를 본다라고 해. 물이 양쪽이 편편한 거 같아도, 흐름이 더 센 데가 높다 그거지. 물말기를 얹어놔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떼가 빨리 내려가니까.

조 : 한 팀으로 가는데, 하루에 몇 팀이 갑니까?

박 : 목상에 달렸지.

조 : 보통 몇 팀이 가는 거 까지 보셨습니까?

박 : 나는 스무 바닥, 떼가 한 바닥이 다섯 개가 연결된 게 한 바닥인데, 그거 스무 바닥이 가는 거 봤어.

조 : 그러면 40명이 필요하겠군요?

박 : 그렇지. 어떤 큰 목상들은 많아요. 떼가 쪽 갈렸지 뭐.

조 : 가다가 떼끼리 부딪치는 경우도 발생하겠군요.

박 : 그렇지는 않아.

조 : 여울을 말씀 좀 해주세요.

박 : 큰 거만, 우선 여기서 떠나면, 그제 저기 있어요. 땃목이 처음 떠날 적에, 강치성 드릴 적에 내가 한 게 있다구.

조 : 기억나시는 것만 좀.

박 : 그제 인제, 처음에 합강에서 툭 떠나면 앞여울이 나오거든. 저 게도 대단히 나빠요. 앞여울이란 데가 대단히 나쁘거든. 거기서 떼를 탁 띄워놓으면, 앞여울 지나면 거미소라고 나와. 처음 떠나자마자 여울이 떼를 막 빨아들이는 데라고.

그 다음이 거미소인데, 왜 거미소냐? 떼가 떠나자마자 부딪쳐 가지고 그냥 박살이 나면 거미처럼 떠나간다고 해서 거미소야. 무서운 데라구.

거미소 밑에 조개 내려오면은 비틀이라고 있어. 물이 이렇게 뒤집어서 비튼다고 해서 그래, 그 다음에 썩여옴이라고 있는데, 썩여옴은 떼가 콸다닥 소리가 나면은 주변에 썩이 숨었다가 날아가는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그래. 고 밑에 가면 송곳돌이라고 있거든. 물 속의 돌이 보일듯 말듯 하게 있어. 주로 가다가 거게 걸리거든, 송곳돌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래 인제 송곳돌, 그 밑에 내려가면 시라울, 그 밑에 내려가면 황소맥이, 황소맥이는 고기가 잘 잡힌다고 해서 부자들이 황소하고 바꿨다고 해서 그래. 그 밑에 가면 쾌갱이가 있고, 쾌갱이 밑에 포와리가 있지, 거기만 지나가면 떼는 다 먹은 거야.

포와리가 제일 무서운 텐데, 포와리를, 다들 자기가 하기는 하는데, 보통사람은 겁이 나서 못 내려가서 포와리지가 있다고. 거기만 제우(겨우) 통과시켜주고 얼마씩 돈을 받는 그런 자가 있어, 포와리만 지나면 서래여울, 서래, 논 삶는 것처럼, 뭐 다리발이 많아서, 잘 찾아야 나가는데, 그리고 물고 뜯는다고 해서 개여울, 뭐 수십 개가 돼. 전여울이니 그런 거는 지금 조그만 떼는 잘 모르고, 내가 강치성 드릴 때에 대충대충 했던 여울이 그 정도고, 그 다음에 두몽바우라는 것도 있고 제비여울, 사리여울이라고 십리를 내려갔어. 십리동안에는 소가 없고 전부 여울로 되어서 내려가는 십리허간에 사리여울,

그 다음에 덕두원 가는데, 거기 인제 ….

조 : 거기 가면 다 간 거죠?

박 : 그럼요. 덕두원은 떼가 집합하는 데여. 춘천 떼는 거기가 다 한정이고.

조 : 정선뚝목 보면 만지산 풍지갈보 그런게 있잖아요? 여기도 주막이 있었나요?

박 : 그렇지요. 가다보면 미처 못 가면 아무데나 어디 가서 자고 가자하면 곳곳에 그런 게 있다고, 그제 도지거리지.

“도지거리 갈보야 술걸으게, 보매기 여울에 떠나려간다” 소리도 있잖아.

조 : 도지거리는 어디죠?

박 : 춘천이예요. 그 다음에는 보매기라고는 소양강 댐 바로 고 밑이야. 거기가 보매기지. 보매기 내려 가면 춘천 다 내려간 거여. 갈보들이 많지.

조 : 술파는 분들이 연세 많나요?

박 : 갈보지. 들병장사라 한다구.

조 : 돈은 돌아오면서 주나요? 가면서 주나요?

박 : 가면서 주죠. 떼 떠날 적에 발기장에 낭그를 몇 개 가져간다. 몇 바닥 몇 개가 내려간다. 선용은 얼마를 주었다. 그게 적혀 있어요.

조 : 그 당시 발기장 (지금 갖고) 있나요?

박 : 그게 뭘 보물이라고, 가져가면 다 주거든요. 저쪽 목상에 주죠.

조 : 그 당시 자료나, 사진이나 남은 게 있나요?

박 : 없어요. 고무신 없어서 쥘새기(쥘신) 삼아 신고 맨발로 다닐 때인데 뭐. 왜정 말에

조 : 떼가 내려가면 부딪치지 않으려 첫 번째 떼와 두 번째 떼 사이에 간격은 어느 정도를 두었나요?

박 : 그게 인제 대개 보면 떼 떠난 거 보고 떠났죠. 한 10분씩 있지. 어떤 때는 같이 떠났어도 먼저 가는 게 있고, 물 말기 잘못 잡으면 더디 간다고.

조 : 충돌 사고는요?

박 : 떼끼리 충돌사고는 안나요. 여울에서 사고가 나죠.

조 : 돌아가신 분이 있나요?

박 : 돌아가신 분이 있지요. 나는 누군지는 몰라도, 누구도 죽었다, 누구도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조 : 선친과 같이하던 분들 이름은요?

박 : 아버지와 같이 하던 분들이야 많죠. 많이 있어요.

조 : 소리를 아리랑을 흥겹게 하잖아요? 그거를 누구한테 배웠나요?

박 : 뗏목 아리랑을 배운 게 아니고, 촌에서 강원도아리랑을 했거든. 그게 강원도아리랑 곡조여. 그 아리랑을 해서 내 소리 좀 괜찮게는 채 맞게는 못 해도 듣기 싫지 않게는 했다고요.

근데 인제 여기 수복이 되어 가지고 들어와 뗏목을 시연할 적에 그때 뗏목 아리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뗏목 아리랑이 있는 줄 몰랐다고. 그래 뗏목아리랑이 어디에 있냐고 그러니까, 아이 뭐 뗏목아리랑이 있다고 그러면서, 강원대 최승순 교수, 박민일 교수, 최복규 교수, 그분들이 처음 여기 들어와서 뗏목아리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뗏목아리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모르는데, 그때 나는 문화원 이사로, 문화원장이 스승이거든요. 국민학교 (때 은사님이었다).

조 : 그때 (문화원장은) 누구셨나요?

박 : 김진용 씨. 초대 문화원장이죠.

그분(최승순, 박민일, 최복규)들이 여기 들어와서 여관에서 자면서 조사할 적에 뗏목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뗏목 좀 안다”고 했더니, 그게 소개가 되었어요.

“뗏목아리랑이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아이 테이프가 있다”고,

“그러면 그거 좀 들어보십시오.”

그래 그걸 여관에서 들어봤어. 그러니 그게 순전히 강원도아리랑이더라 거야. 뗏목에다가 가사를 붙였는데, 그 소리가 조금 강원도아리랑하고는 다르더라 이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슬프게도 부를 수 있고, 기분 좋게도, 경쾌하게도 부를 수 있고, 그게 뗏목아리랑이라는 거예요. 박민일 교수가. “이 뗏목아리랑을 두 가지 소리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강원도아리랑하고 조금 다른 게, 잡아 멩기는 데가 있어. 조금 이렇게.

“이게 뭐 훌륭한 아리랑이라고 하느냐?”고. “내가 이보다는 더 잘하겠소.”

“해보라”고,

그래 딱 했더니,

“아 됐다”고, “이제 건졌다”고, 이 얘기가.

인제 “그 소리를 누가 하셨냐?” 하니까

촌천에 있는 이태순 씨라고 그 분이 뗏목아리랑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태순 씨 부른 테잎 소리를 따라 불렀지.

그래서 인제 교수님이 저보고 인제소리꾼이라고 언제 한 번 내주셨듯이, 그게 어딘가 하니 그 뗏목을 한참 할 적에 인제종합고등학교 학생들이 했거든. 학생들을 뗏목 할 적에 3학년생을 골라 불러 가지고 써먹을 적에, 소리를 하라 말이야. 소리, 소리를 해야지, 소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소리를 그때 내가 인제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도를 했지요. 소리를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해야 하고, 그때 계시던 분이 손용인 씨, 임일남 씨, 김계근 씨, 심한호 씨, 송태익 씨….

조 : 같이 때를 타던 분들인가요?

박 : 저 하고는 때를 못 탔죠. 우리 아버지뻘들이니까.

조 : 손용인 어르신도 원가요?

박 : 저보다 10년 위죠. 그분들이 증인이죠. 다 돌아가셨어요. 소리도 잘했어요. 어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얘기를 그분들한테 그때 들어서, 그래 가지고 소리를 계속 했죠.

조 : 그때 제일 많이 가르쳐준 분은 누구죠?

박 : 가르쳐 준 분은 없었죠. 손용인 씨가 조금 감각이 있었고, 여느 사람은 그걸 모르고, 손용인 씨는 소리를 조금 해요. 하는데 그분도 막치기 소리를 하지요. 내 소리만큼은 하질 못하고.

조 : 집안 어르신은요?

박 : 올 아버지는 좀 했지요. 뗏목아리랑보다도 서도잡가도 하고, 경기민요도 하시고….

조 : 뗏목 아리랑도 잘 했나요?

박 : 그렇지요. 잘했죠. 그러나 내가 듣지는 못했지요. 때를 같이 타고 갔는데 김계근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네 아버진 소리를 자네보다도 더 잘했네. 근데 제가 집계 있을 적에 친구들하고 아버지가 막걸리 타령을 하시면서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소리는 못 듣고 다른 경기민요나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조 : 부친이 부른 소리는 어느 곳에서 들었나요?

박 : 우리집 근처에 막걸리집이 있으니까 노래 한 것을 들었지요.

조 : 강치성 하고 때를 몰고 가면서 소리를 하시고,

박 : 강치성하는 것은 손용인 씨한테서 들었어요. 손용인 씨가 소리를 무당이 했다고 하면서 무당 소리를 입내를 하더라구, 그 소리를 배워서 하나까, 그분이 자네가 하계. 그러더라구.

조 : 강치성은 원래 무당이 했군요.

박 : 그렇지요. 1년에 한번씩 강치성을 드린 데요. 무당이 와서 굿하듯이 한다. 그런데 가사를 그 영감이 대충 얘기해주더라구,

조 : 실제로도 집안어르신하고 손용인 씨한테서 영향을 많이 받으셨네요.

박 : 그렇지요.

조 : 농사철에는 안 탔나요?

박 : 농사 그저 짝꿍 해도, 계속 탔지. 농사철이든 돈주고 사람 사서 농사짓고 한 거지며, 떼한 바닷 타면 돈이 얼마인데. 그거도 백이 있어야 되어요. 목상들이 대개 누구누구 지정을 한다고, 그러면 앞사공이 뒷사공을 데리고, 뒷사공은 초보라도 되니까.

조 : 목상들 이름은요? 기억이 나나요?

박 : 찬찬히 생각을 하면, 왜놈 성으론 '노부찌' 라고 했거든. 그 사람이 큰 목상을 했어요.

조 : 목상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면서요

박 : 그렇죠. 목상들에게 전속이에요. 전속하다시피 떼가 언제 나간다고 하면. 앞사공만 지정을 해놓으면 뒷사공은 알아서 누구누구 데리고 다니고….

조 : ….

박 : 목상들도 대개 알았거든요.

박 : 그게 머, 내가 직접 그렇게 크게 경험은 안했어도, 그 어른들이 모여 앉으면, 또 우리 집 있는데, 부평리 선착장, 그곳이 집하장이라구. 떼가 내려오다가 거기서 대개 자고 거기서 출발, 또 거기서 떼가 나오는 게 있었거든. 나무가. 거기서도 출발하는 게 있었고, 모이면은 대개 술집에들, 그 사는 떼가 밥도 팔고 잠도 자고 그러거든요. 요새처럼 방 하나에 2만원이다 그렇게는 안해도, 밥 해먹고 잠자고 술 먹고 저녁이면 투전하고.

### ◎ 2005년 6월 11일(금)

조 : 박인환 아시나요?.

박 : 여기서 태어났는데 박인환은 10살 전에 떠났어요.

조 : 그분 집안은요?

박 : 박인환 아버지는 개무덤집이라고 해서 부자지요. 박인환은 공부를 하려고 일찌감치 떠났고, 박인환 아버지는 오래도록 (인제에) 있었어요. 원래 박개명집이라고 해서 유명해요. 개명했다고 하잖아. 박개명 박개명 이렇게 불렀다구.

그 집은 일개지주야. 땅이 많아서. 여는 거 한 거는 없고. 후손들이 박인환이 장개 들어 가지고 6.25 때 죽었으니까, 아들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안 와요. 박개명 아들은 박인환 하나밖에 없어요. 딸들도 있었을 걸요.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조 : 그분들 집안하고 관계는?

박 : 없어요. 왜정 때 토지부자고 그러니, 감히 ….

박인환이 나보다 두 살 아래요. 78~79살 되었을 거요.

조 : 합강리 물귀신 얘기로?

박 : 합강리 물귀신이 말썹을 일으켰다는 말은 안 하지만, 그전에 거기가 물이 들었다구. 깊고 요새 저 거 채취를, 골재 채취를 해 갖고 가는 바람에 다 소가 망가졌지만, 그전에 소가 엄청나게 깊었거든. 그 전에 1년에 한번씩은 사람이 한두 명씩 죽었어. 그래서 내내 물굿을 했지요. 물두영상굿이라 그래요. 물귀신을 물두영상귀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지금도 뗏목을 하는 사람은 80된 사람 이후로는 잘 몰라요. 보듯 못했고, 요즘 좀 아는 사람은 재현하는 바람에 아는 것이고, 실지 뗏목을 본 사람은 팔십 이전에 없어요.

나이 많지도 않고 또 학생 때고 그러니 굿하고 그러니 별로 좋아 안 하고 그래서 모르는데, 늘 보긴 보지요. 저기 무당들이 굿하고 그러는 걸 보았어요. 막 허리에다가 밧줄을 매고 무당이 글로 막 들어 뛰고, 그런 걸 보고 굿하는 소리도 듣고, 내가 굿하는 소리도 들었어.

내가 소리에 좀 가까운 모양이야. 옛날에 들었던 소리 가만히 생각하면 알거든. 거반 비슷하게 한다고. 무당들이 서로 마눌세받이라고 그러거든. 마눌세받이 받고 암무당이 이걸 쓰고서 춤추고 그러면 숫무당은 장구 치면서 소리를 주고받고 그러하거든. 마눌쇠받이라 그래. “에헤 마눌쇠야” 그러거든.

마눌쇠받이라 하는데, 그 목상들이 우모리가, 대목상인데, 부천인가 부림인가 일본어로 쓰면 그래. 국유림만 하면 대목상인데, 김영재는 사유림 하는 작은 목상이지만 그래도 꽤 많이 했어요.

우모리가 자기가 돈 대가지고 굿을 차리지. 1년에 한번씩 하지. 떼가 출발하기 전에 강치성을 드러. 다른 목상들은 잘 안 해.

내린천 북인천 쪽에서 나무가 내려오는 걸 건져서 내놔야 하거든. 그걸 떼로 묶어 가지고 물 나면 나가고 그러지. 목도를 하고 산에서 나무를 베어 갖고 강물까지 끌어내리지.

조 : 물두영상국은 어느 계절에 하지요?

박 : 군수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몰라도 1년에 한번씩은 하던데, 추수 한 후에 하더라구.

그 나무를 겨울에 베잖아. 겨울에 벌목을 해 가지고 강가까지 끌어내리는 데 그 소리가 있대구. 목도 말구 줄로 매어서 끄는 소리가 있대구.

거두는 사람을 거두미라고 하지. 그것도 목상이 사람을 한 여나쁜 사람 사요. 아주 전업자로. 목도하고 강넙으로 훑어 내려간다고. 나무가 수풀 속에도 백혀 있고 웬만하면 촌사람들이 땀나무로 쓸라고 갔다든 거 막 훑대질 해서 험박 공갈 쳐가면서 도로 뺏아 보고 그러거든. 그제 먼저 본 놈이 임자야. 인방망이는 찍어놔어도 그 지(자기)꺼나 같은데 머. 들키지 않고 갖고 가면 그만이야. 강넙에 사는 사람들이 나무가 마치 맞고 좋은 놈이 있으면 갖다가 파묻거든. 그러니까 꼬쟁이를 갖고 다니면서 봉양 캐듯이 질러봐요. 들키기만 그 집이 아주 조자리<sup>99)</sup>가 나지. 남의 나무 갖다가 훑었다고. 술 얻어먹고 어찌구저찌구 험박공갈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두미하는 사람들이 제 것인지 누구 것인지 모르고 덮어놓고 내 거라는데 머. 그래도 목상이어야만이 그걸 하지 목상이 아닌 사람은 그걸 하지 못하거든.

조 : 길이는요?

박 : 지렛대처럼 길지 않아. 1미터 반 미처 안되게 길지 않아. 1미터 20, 30되는 걸 그걸 끈을 해 가지고 달고 다녀요. 나무가 내려가다 보면은 더미를 친다고 그러는데, 나무가 더미를 치는데, 가다가 하난 걸리면 또 걸리고 걸리고 해서 산더미를 만드는 거예요. 그 더미를 치는데, 옛날에는 서투른 사람은 떼놓지 못해요. 그 기술자가 더미치는 기술자가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이 더미치는 지레가 1미터 30정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나무를 해쳐놓아요.

잘못 건드리면 나무에 치여 죽을 게 아니야. 바위 밑으로 쑥 들어간다고, 왈카닥 나무를 떼어놓고, 그거를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건들건들하는데도 안 떨어질 때는 지렛가지로 조금만 건들면 왈각 무너진다고, 무너질 때는 그 사람은 오리새끼 모양으로 바위 속으로 쑥 들어가서 저 꼭대기로 기어나오고 나무는 떠내려가고 그래 더미치는 기술자는 목상이 아주 데리고 다닌다고.

조 : 물두영상국을 좀더 자세하게...

박 : 그건 뗏목과 관계가 없고..., 좌우간 군에서 주최를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고, 1년에 한번씩 했는데, 난 그건 떼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요. 마늘쇠받이를 하는데, 에헤 마늘쇠야 그렇게 하더라구. 하루나 이틀 하고 말지요.

조 : 해방 후에도 했나요?

박 : 해방 후에는 안하고, 좌우간 작년에 하고 올해 하는 식으로 연연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조 : 돌미륵 얘기

박 : 물 속에 있으니 건져내 달라고 화춘이 어머니가 선물을 했다고 하던데, 화춘이 어머니는 무당이에요. 해방 후에 한 3~4년 되었나, 그래서 건져내었대요. 미륵을 건져내었다는...

99) 조자리 : 아주 망가진다는 뜻의 사투리.

미륵이 그전에 여러 개가 있었어요. 합강정에 무슨 미륵 하나를 건져내 달라고 해 건져냈다는 말을 들었어요. 화춘이라는 딸을 둔 어머니가 무당인데….

나는 인제읍 출신이 아니고 여기서 한 30리 나가면 남면 부평리 출신입니다. 난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는 몰라요.)

조 : 어렸을 적에 돌미륵을 보았나요?

박 : 보긴 보았죠.

조 : 흥진포를 아시나요?

박 : 몰라.

조 : 합강정 앞 포구라던데….

박 : 거무세기, 거무소라고 그래요. 앞여울 밑에는 거무소가 있는데, 거기서 떼가 부서지면 다시 매는 곳이 거무소라고 (하지요).

조 : 하답은 어디죠?

박 : 하답은 인제읍 하고 기린면 경계가 하답인데….

조 : 거니고개란 데는 어디죠?

박 : 노래에도 있지.

조 : 인제가면 인제오나 ….

박 : 그런 얘기는 6.25전에는 없었고.

조 : 미륵천이 어디죠?

박 : 합강정 앞 물줄기일거야. 옛날에, 지금 거기 다리가 있는 곳이 미륵천일 거야.

조 : 암물, 솟물이 있나요?

박 : 기린천이 암물이고 인북천이 솟물이야. 그래서 인제 장마가 젖을 적에 인북천 물이 많으면 한번 장마가 또 진다 그랬거든. 그건 틀림없어요. 인북천 물이 많아 가지고 내린천 물이 좀 적다 하면은, 그 물이 적기 전에 또 내밀지. 장마가 거듭 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보았어요. 비가 오면 목상들이 병을 내다놔요. 맥주병을 내다놓고, 그때는 무슨 거야, 강우량 재는 거지, 한 병 차기만 하면 떼가 나간다고 이거지요. 떼나갈 준비를 해요.

조 : 우모리는 어디 사람인가요?

박 : 우모리는 여기 사람은 아닌데 목상하기 위해서 여기 정착했고, 김영재는 여기 사람입니다.

조 : 박선생님 부친도 목상 좀 하셨죠?

박 : 그건 조그맣게 한 거고, 그런 목상은 많아요.

조 : 예전 목상이 많을 때는 얼마나 되었지요.

박 : 그건 모르지요. 내가 대충 알기도, 김영재, 김덕순….

조 : 김덕순은 어디 사람이죠?

박 : 김덕순도 인제 사람인데, 남의 심부름 많이 했지. 말하자면 심부름목상이지.

조 : 즐겨 먹는 음식, 가리는 음식은요?

박 : 그런 거 없어요.

조 : 동티나는 거 때문에 꺼리는 거 없나요?

박 : 산제사를 지내잖아, 처음 나무를 벨라고, 나무를 벨 적에 산제사를 지내고 나무 한대를 착 베는 거야. 우지직 하고 넘어갈 적에 지골을 입는다고 하대. 나무 벨 적에 지골을 입는다고 하대.

조 : 지골이 뭐죠?

박 : 그게 귀신이에요. 귀신 입어서 나무 넘어가자마자 죽는다 그랬거든. 그럴 적에 “어명이요” 하고 소리를 지른다구. 갔던 사람들 전체 소리를 지르는 거야. 어명 그게 임금의 명령이거든. 귀신이, 그게 사불범정(邪不犯正)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귀신도 어명엔 꺾잡못하니까 어명이라 소리치면 지골 그 귀신이 목신귀, 나무귀신이 범접하지 못하라고 소리질렀다구.

조 : 지골이라 한자로 쓰나요?

박 : 옛날 무속인들이 부르는 얘기에요.

조 : 어명이라 소리치는 걸 보셨나요?

박 : 보았죠. 그런데 주로 지골이 어떤 나무에서 많이 나오냐면 밤나무 벨 적에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근데 그 뒤로 내가 알아보니까, 학술적으로 밤나무에서 가스가 많이 나온대. 그 나오는 가스를 잘못 마시면 죽는데요. 그걸 가지고 옛날엔 과학적으로 얘길 못하고 지골이라 그랬지요.

조 : 부친께서 산판을 하실 때 전날에 특별히 주의할 점은 보셨나요?

박 : 모르지요. 전연 기억이 안 나요.

땃목은 편목이 있어요. 편목테라고 있어. 나무를 이렇게 베어 가지고 그냥 둥그런 채로 갖고 가는 게 아냐. 죽데끼를 다 땀다구. 사방을. 네모를 떼내고, 그러니 네모치 나무지.

조 : 천목이라 하는 거 아닌가요?

박 : 편목이지. 네모가 반듯한데 뭐. 로쿠로 하지. 톱이 둥그렇게 생긴 게 있어.

이: 첼로목은요?

박 : 그건 잡목을 할 적에 첼로목으로 하지. 소나무도 편목은 로쿠로 캔다구.

조 : 목상들이 산에 갈 적에 주의할 옷차림은요?

박 : 옛날에 뭐 주의할 옷차림이 있나요?

조 : 계절적으로 겨울이잖아요?

박 : 겨울이니 바지저고리 입어요.

조 : 목욕하나요?

박 : 안 그래요. 얼음이 버석버석하는데, 어떻게 목욕을 해요. 그건 하는 말이고….

조 : 발기장을 보셨나요? 크기는요?

박 : 요렇지요.(A4용지 크기를 가리킴)

조 : 재질은?

박 : 미농지인지 된 종이인지 몰라도 허연 종이에다 써놓았더라구.

조 : 떼 위에서 생활하면 그제(발기장)이 젖지 않나요?

박 : 왜 그제 젖어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하면 물론 젖겠지.

조 : 춘천 가는데 젖을 거 아녜요?

박 : 떼사공들은 그거 하난 안 젖고 춘천까지 가요. 왜냐면 떼 위예다가 웅기를 싣고 가요. 그걸 ‘자래’라고 하더라구. 웅기 몇 자래 그래. 수량을 몇 자래 실었다 그러더라구. 웅기 실은 거 떼를 가보니까 물 속에 쑥 들어갔더라구. 그래고 웅기 향아리 꼭대기 위로 물이 한 5센티 정도 올라왔어요. 떼예다 싣고 가는데 하나도 안 깨트리고 가는데, 그 점한 기술자예요.

조 : 떼를 깎아내지도 않고 그냥 실나요?

박 : 그렇죠.

조 : 그거 책에는 없네요

박 : 그거 함강리에선 못 해. 함강리에선 못 하고 우리 살던 부평, 거기서부터 실어요. 함강에는 옹기점이 없거든. 부평 신착장 있는 데여. 거긴 옹기점이 있었거든. 옹기 굽는 데가.

조 : 목상은 모르나요?

박 : 목상도 알지요. 자기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나무만 갖다주면 되니까.

조 : 그러면 떼사공은 풍돈을 챙기네요.

박 : 풍돈은요? 대단한 돈을 받지요.

조 : 보통 몇 개 실지요?

박 : 엄청나게 많이 실더라구. 지금 제무시 뒤서너 개를 실는 거 같더라구.

조 : 얼마 받지요?

박 : 모르지. 나는 나이가 열 몇 살이니까, 열일곱 열여덟 살이니까.

조 : 앞사공이 얼마 안 나눠주던가요?

박 : 뭐 난 돈도 구경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돈 다 받고. 그때 사실상 뒷사공이란 거는 할 일이 없어. 앞사공이 뭘 하면 그렇게만 하면 돼.

조 : 정선뱃목은 앞사공과 뒷사공이 차이가 나는데요?

박 : 아니, 여긴 차이가 없어. 그것두 얘기가 비슷한 얘기가, 기술적으로 앞사공이 좀 뭐했지. 힘든 거는 뭐 같애. 앞사공은 물굽이 지어놓는 거 그거만 하고, 떼가 이렇게 갈라면 뒤를 이렇게 해야 하잖아. 그건 뒷사공이 다 해. 힘은 뒷사공이 더 힘이 든다구. 공가는 다 똑같았어. 선용 받는 것도 다 똑같이 받아췄어.

조 : 춘천 목상은 인제에 오면 돈은 얼마를 뿌리고 가던가요?

박 : 그 사람들이 인제 오냐? 안 오지. 오지도 않고 여기 목상들이, 김덕순 씨 같은 분들이 앞잡이 목상이지. 거간꾼이지. 그 사람들이 다 하지. 막살이 할 적에, 막살이 알죠? 맨 마지막에 나가는 거. 9~10월, 얼음이 버섯버섯한데도 떼를 밀고 나간다구요. 그건 왜 그러냐? 돈 갖다 썼지, 나무 갖다 주어야지, 나무 안 갖다주면 서울 목상이 지랄하니까.

조 : 인방망이 뭐로 만드나요?

박 : 쇠로 만들지요.

조 : 어디서 만드나요? 인제에서 만드나요?

박 : 아니요. 어디서 주물공장에서 맞춰오는지 ... 인제에서는 만든 적이 없어요.

국유림 목상 인방아이와 있고 사유림 목상 인방망이가 있고, 사유림 거는 대개 사람 '인' 자도 있고, 이렇게 '복' 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국유림 거는 나라 '국' 자 썼죠.

조 : 국유림 인방망이 개인 거를 나라 '국' 자를 썼나요?

박 : 네. 나라 '국' 자를 썼죠.

조 : 크기는요?

박 : 못빼기 있지. 그거 가닥진 거만 없을 뿐이지 망치지 뭐. 직경이 한 3센티 되고, 길이는 한 10센티 정도 되어요.

조 : 치면 도장이 찍히나요?

박 : 그렇지. 검은 칠을 해놓아. 먹물일거야. 그걸 문혀서 치더라구.

조 : 안 지워지나요?

박 : 안 지워지더라구. 그걸 몇 군데에다가 찍어요.

조 : 발기장은 누가 갖고 가나요?

박 : 앞사공이든지 뒷사공이든지 누구든지 관계없어요.

조 : 용기 속에 신나요?

박 : 용기는 때면 하는 게 아니고, 용기가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나올 적에 실어내지.

조 : 폐사공의 옷차림은?

박 : 중의적삼

조 : 신발은?

박 : 짚세기

조 : 물에 많이 뿔을 테니 특별히 다른 짚신인가요?

박 : 짚세기인데, 보통 두개를 갖고 가는데, 한 개는 강다리에 달고 매고, 하나는 신고 그래요.

조 : 물에 젖은 짚신은 썩을 거 아닙니까?

박 : 그건 춘천 가면 버려야죠.

조 : 춘천 갈 때까지 짚신 두 개 갖고 갈 수가 있나요?

박 : 그거 때 위에는 짚신 신고만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 켤레만 갖고 가면서 맨발로 간다구. 때 위에서 맨발로 다녀요.

조 : 한 켤레로 고향까지 올 수 있나요?

박 : 그러니까 사람 있는 곳에만 짚신을 신지. 맨발로 이렇게 오다가 사람 사는 동네만 오면 내려놓고 짚신을 신지.

조 : 짚신 가격은?

박 : 몇 전 했겠지 며. 난 그래도 그때 학교를 다니고 그러니까 아주 백문텡이<sup>100</sup>로 거기 종사는 안 했거든. 학교 땡기다가 우리 여럿이서 이맘때쯤 되면 학교 갔다가 집으로 올 때 “떼 타자” 그러거든. 그러면 책가방들을, 요샌 가방이지만 그땐 책보를 한 군데다가 모아놓고 옷 벗어놓고, 벌거숭이로 저 위로 올라간다구. 떼가 내려와요. 그럼 해엄쳐 가 타고 물로 내려오고 그랬다구.

조 : 산판하는 사람들이 해지면 내려오나요? 아니면 텐트 치고 자나요?

박 : 해지면 내려와야지. 해지면 추워서,

조 : 인부가 그 동네 사람인가요?

박 : 그 동네 사람이지. 동네사람도 있고, 대개 동네사람들이지.

조 : 대개 도급을 줄 거 아닙니까? 십장이 데리고 다니지 않나요?

박 : 대개 목상한테 하청을 받지. 벌목꾼들이 다 하지 며.

조 : 나무 베어낸 그루터기 앉는가요? 동티난다고 하던데.

박 : 동투 그런 거는 없고, 대개 안 앉지. 베어낸 자리엔 송진이 흘러서 못 앉아.

조 : 내린천이나 인북천에서 나오는 나무 구별이 되나요?

박 : 구별을 못 해요. 연목, 화목, 서카래, 궁궐, 부동, 편목 등 종류는 여러 개가 있지요.

조 : 강치성 물품은 어디서 사나요?

박 : 인제읍에서 사죠.

100) 백(白) 문둥이. 완전한 문둥이. 여기서는 땃목전업자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조 : 물품 살 적에 주의할 점은?

박 : 그런 거 없어요. 아무나 사다가 준비하는데, 강치성 드릴 때 그것도 무당이 하더라우.

조 : 용왕제군요.

박 : 그렇지요. “해도~~동 조선 강원인제 합강천변에다 자리잡고 불개부정 택일하야 흥동백서 좌동 우혜 진설하고…” 이렇게 나와.

조 : 서도소리 비슷하군요.

박 : 서도소리로 해요.

이 : 떼는 누가 엮지요?

박 : 앞사공과 뒷사공이 엮어요

조 : 떼를 타고 갔다오면 그때 공가 계산하나요?

박 : 그렇지요

조 : 떼를 탈 때부터 계산을 하나요? 떼를 매는 건 따로 지불하나요?

박 : 지불 안 해. 공가라는 것은 순전히 떼를 출발시켜서 춘천이고 서울이고 대주는 데까지만 책임이지. 일하고 뭐하고 잡동사니는 전부다 ….

조 : 여울의 전설 부탁드립니다. 아까 처음에 사진 찍은 것은 비트리 여울이고, 다음에 평의 여울을 사진 찍었는데….

박 : 쇠목여울은 저기 남면 다 나가서, 쇠목은 여울은 대단치 않은데, 그거는 여울이 괜찮아요. 순탄한 여울인데, 고기 잡는데 필요한 여울이에요. 삼 댄다 그러지. 이를테면 내려가다가 고기 걸리게 하는 게, 하두 고기가 잘 걸리니 옛날 양반들이 쇠목을 줄 테니 바꾸자 그래서, 쇠목여울이야.

조 : 소 목이라면 진짜로 소목만 의미하나요? 아니면 소 한 마리인가요?

박 : 소 한 마리이지. 그만큼 고기가 많았지요.

조 : 쾌갱이는요?

박 : 쾌갱이가 아니고 쾌갱이인데 그것두 여울이 무서워요. 쾌갱이 포와리 다 지나면 여울이 있어도 괜찮아. 쾌갱이는 구반이 멀리 파고 들어갔거든. 구반이라는 것은 물이 산 쪽으로 많이 돌아간다는 것이거든. 산 쪽이라는 것은 산으로 헐고 나갔으니, 산허리를 파고 나갔으니, 쾌갱이는 산 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파고 갔다구 해서 쾌갱이라고 해. 아주 위험해.

거기는 정말로 참 뒷사공 까먹는 데예요. 뒷사공을 어떻게 까먹느냐하면은, 앞사공은 어떻게 하던지, 그 돌아서 나왔는데 뒷사공은 돌아서 뒤에다 들이치지요. 그러면 나가떨어지지요. 뒷사공 까먹는 데라고 그러지요. 그러니 거기가 조심시키지요. 앞사공이 보면 쾌갱이 들어가면 쪽통으로 살살 기어 내려가죠. 구반이 있고 산 쪽이 있고 자갈 쪽이 있잖아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안 갈라고 자갈 쪽으로 휘어들지요. 이렇게 이렇게 휘어 나가죠.

조 : 앞사공이 잘못하면 뒷사공은 그냥 당하는군요

박 : 그렇지. 조금만 느슨하게 굴면 뒷사공이 혼나지.

조 : 사십이여울은요?

박 : 사십이 여울은 사십이 건네 다녔다 그래서, 그건 여울인데도 대단찮아요. 사십여울.

서레여울이 조금 나쁘지. 서레여울은 눈 쌓는 서레 있지요? 그거 모양으로 여울이 이래. 바위가 많지. 그 틈을 빠져나가야 하니까. 그래도 거건 사람이 다치거나 뭐 그렇지는 않는데 포와리하고 쾌갱이여울만 지나가면 다 ….



조 : 이 포와리는요?

박 : 포와리는 왜 포와리 여울인지 몰라도 포와리 여울이라 그러는데, 거기는 낙차가 한 20미터 거반 될 거야.

조 : 20미터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20센티라면 몰라도.

박 : 뭐이 정신 없는 소리. 십미터가 넘지.

조 : 그러면 오층빌딩에서 떨어지는 격인데,

박 : 그렇지. 그런데 인제 떼는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구. 일일이 다 떨어져서 나갈라면 못 나간다 이 말 이야. 떼 앞대가리만 쑥 빠졌다가 쑥 나가면 중간은 다리를 놓고 나간다는 얘기가. 허공으로 다리를 놓고 나간다는 말이지. 그러니 웅기 싣고 나가도 안 깨지지. 차이가 10미터 실이 돼. 이층 삼층 높이가 같더라구. 그 나무가 스물넉 자 이십 자씩 되거든. 그 나무가 공중 까꾸로 백혀 있거든. 들어 갔다 나오거든. 두멍바우가 그 옆에 붙어 있는데, “상목에 나무를 두 개 놔라. 세 겹 놔라” 그러거든. 나무가 두 개, 세 개, 둘 꼭대기를 걸쳐 나간다구. 그렇게 해야 무사히 나가지, 안 걸렸단든지, 더 걸렸단든지 하면 쓰러지지. 그게 앞사공의 기술이야. 그게 포와리야. 그래서 포와리지가 따로 있어. 옛날에 거기 가면 별별 떨고 못 간다고. 포와리지가 들어와서 지워지고.

이 : 그러면 원장님 타셨을 때엔 포와리지를 이용했나요?

박 : 난 앞사공이 기술자여서 (안 했어).

조 : 앞사공 이름은요?

박 : 김응순이

조 : 동네사람인가요?

박 : 동네사람이지. 김응순 씨는 우리 외삼촌이고,

조 : 다른 때는?

박 : 김응순이라고 있어, 그 분은 (김응순의) 사촌이 되지. 그때는 다른 사람에게는 못 맡기거든. 친척 이니까 끌고 다니고 그러지. 누가 생각이, 나 어린 사람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조 : 그 분들 연세는요?

박 : 연세는 그때 아무래도 한 오십씩 되겠지 머.

외삼촌들 하고 두 번 하고, 손용인 씨하고 두 번 갔어요.

조 : 그러면 총 몇 번 갔어요.

박 : 총 네 번 갔지. (그리고) 해방 돼 가지고 저거 한 번 해 먹으러다가 혼나고 그랬지.

해방 돼 가지고 이북에서 떼가 내려오더라구. 그런데 4동가리짜리야. 앞에 그레도 다 있고 뒤에도 그레가 있고 다 있는데 네 동가리더라구. 달밤에 가다가 걸렸지. 저놈들이 떼가 언제쯤 떠나간다는 걸 알았지. 떼가 적어도 사람은 서이가 탔다구. 앞에서 두 사람, 뒤에는 내가 혼자 타고.

이 : 마른여울은요?

박 : 마른여울은 여울이 넓기만 하지 얇아. 그래서 돌이 다문다문다문 나왔는데, 그 떼가 내려가면 떼하고 그거하고 같이 굴러가는 거 같아.

조 : 아랫여울은요?

박 : 지금 양구 그 밑에 있어요. 사십이 여울도 다 그 밑이에요. 쾌갱이는 요 신남서 나가 가지고 요 대흥리 앞에, 쇠목여울은 관대리에 있어. 관대리 남면사무소 앞이야.

비트리는 인제읍 사그미 마을이고, 사금이 많았어. 평의여울은 고 밑인데 조리미라 불러. 우리 아

까 갔던 데가 조리미야. 꿩의 여울은 떼가 내려가다 보면은 돌에 막 부딪쳐 쿠당당 쿠당당 소리가 나니까 그 꿩이 건너 수풀 속에 숨어 있다가 후다닥 날아 가지고 그런 소리가 난다구 꿩의 여울이야. 얼마나 후당당거리는지 꿩의여울이야.

조 : 비트리가 물이 비틀어져서 비틀이인가요?

박 :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물이 나와서 돌아가니까 뗏목이 반쯤 뒤집혀지게 되지. 마치 차가 코너링 하듯이.

조 : 송곳돌

박 : 물속에서 송곳처럼 뾰족하게 내밀은 거, 송곳돌이야. 조리미야. 용소라고 하는 곳도 조리미야.

조 : 시루목은요?

박 : 시루목은 포와리 밀이야. 여울은 여울이지만 대단하지 않아요. 시라우라 부르지.

조 : 쥐젓여울.

박 : 쥐젓처럼 돌이 나왔다 그래요. 돌맹이가 조금 튀어나왔어. 그리 위험하지는 않아. 위험한 여울은 꿩의여울, 비트리, 포와리, 앞여울, 저 합강리 바로 떠나서 있는 앞여울, 쾌갱이, 포와리, 다섯 군데만 지나면 먹여주지.

조 : 어디에 있죠?

박 : 춘성군 거기에 있어요. 두지아우여울도 거기 있어요. 바우가 두지처럼 생겼다 그래서인지 뭔지 모르지. 두지 몰라요? 쌀독.

조 : 거무여울은?

박 : 거무소 여울이지. 합강리야.

조 : 개여울은?

박 : 서낭텝이 밑인데, 양구여요. 다 괜찮아요. 망테여울도 다 거기예요. 제비여울도 있고 십리허간에 사리여울, 여울 지력지<sup>101)</sup>가 십리예요. 꾸불꾸불하면서 그렇게 길어요.

조 : 사람이 죽은 여울이 있나요?

박 : 그런 곳은 쾌갱이 밖에 없어요. 쾌갱이 하고 포와리가 제일 무섭지. 사람 죽을 만한 데는 없어요.

조 : 떼 위의 생활은요?

박 : 아침에 어떤 때는 밥 싸 갖고 가는 떼도 있고 그 집에서 천엽에다 싸지, 밥을 무슨 도시락을 싸는 데, 무슨 도시락에다 싸는 게 아니고, 밥을 그냥 보자기에다 싸요. 물 묻혀 가지고 보자기에다 싸요.

조 : 주먹밥식으로

박 : 그렇지요. 강다리 끝에다 매달고 가다가 그것두 여울이 많으니까 밥을 못 먹으니까 여울 지나가면 소가 나타나잖아. 소에 띄워 놓고 먹지요.

그런데 그것두 앞사공 뒷사공이 한 자리에서 못 먹어요. 각각 따로 먹지. 참 외롭지.

조 : 물은요?

박 : 물은 그 물 먹지. 냇물, 떼 내려가는 물 먹지. 요새야 물이 더럽지. 그때야 물이 전부 일급수지 며. 여울 하나 지나면 물 떠 마셔야지. 물이 바삭바삭 마르는데.

조 : 술은 안 드시나요?

101) 지력지 : 길이

박 : 술도 먹지요.

조 : 목상이 갖고 가게 하나요?

박 : 목상이 갖고 가게 하나? 또 갖고 가도 말을 못하는 게지,

조 : 외삼촌하고 가니 술 못 드셨겠군요?

박 : 나는 술을 그때부터도 안 먹었어요.

조 : 옹기말고 다른 거 안 실었나요?

박 : 땔나무 실지. 화목 장작, 부평리에서도 싣고 함강리에서도 실었어요.

조 : 다른 데에서는 안 실었나요?

박 : 왜요. 대항리(대흥리)에서도 싣고, 대항리가 꽤깁이 웃목이지. 땔나무는 장작이라 그러는데, 장작은 많이 실어요. 장작은 부딪쳐도 괜찮고, 그런데 장작이 대작이지. 나무를 큰 거를 반씩 쪼갠 거, 그런 거를 평이라 하거든. 사방 네 자를 한 평이라 그러는데, 평으로 몇 십 평씩 싣고 나가지.

조 : 양구에서 싣는 거는 없나요?

박 : 양구 가서 싣는 거는 없구, 양구 가도 물류간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폐가 거기에도 조금씩 있었으니까 거기에서도 조금씩 싣고 가지요.

조 : 그런 거는 목상 모르게 하나요?

박 : 목상 모르긴 왜 몰라. 다 알아요.

조 : 목상이 관여 안 하나요?

박 : 그럼 관여 안 하지. 어떤 때는 목상이 화목까지 하니까.

이 : 목상이 화목 할 때는 돈 더 주나요?

박 : 더 주지. 화목 싣는 공가는 더 주지. 대개 화목 같은 거는 목상이 한 다구.

조 : 혹시 사람도 실어 나르나요?

박 : 사람을 실어 나르지는 않지만 사람이 타지. 폐가 언제 간다면 “나 좀 가세” 하고 타지. 배선가를 받았거나 그런 거는 없지.

조 : 태워주신 적 있나요?

박 : 나는 없지만, 다른 폐에 타고 가는 거는 보았어요.

조 : 여자도 싣나요?

박 : 여자는 안 싣죠. 여자도 겁이 나서 탈 생각도 못하고

조 : 아이는요?

박 : 아이들도 안 태워요. 어른들만 태워요.

조 : 나이 드신 분은요?

박 : 안 태워요. 힘이 있는 사람이 타지 웬만한 사람은 못 타요. 마루바닥 갈아야 뭐 앉아 있더라도 하지, 순 서서 가는데... 또 물이 좋으면 땀일 가져든. 여기서 춘천을. 그러니까 타고 갈만 하지. 요즘처럼 물이 저릴 때 가면 한 보름씩 가요.

조 : 김계근, 임일남, 그 분들 후손들이 있나요?

박 : 임일남 씨도 후손이 없고, 김계근 씨도 후손이 없어요. 송태익, 심한호 다 자손들이 없어. 임일남 씨 손자는 있어요.

조 : 폐꾼들에 대해 욕하는 말은 있나요? 저거 폐 타는 놈 등등.

박 : 그런 거는 없고, 애들이 장난하느라고 “돼지우리 틀어라.” 그러지. 그러면 이놈의 자식들 그만 소

리 하지 말라고, 떼는 자꾸만 내려가고 강가 바깥에서 그러는데 뭐라 할 수 있나.

조 : 그놈들이 왜 그러죠?

박 : 괜히 장난하느라 그러지요. 떼 좀 타고 갈려면, 아까도 얘기했지. 책보파리를 한 군데 모아놓고 저 꼭대기 올라가 떼 타고 내려간다고, 같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못 타게 한다고. 그러면 돼지우리 나 틀어라 하고 욕한다고. 하하.

조 : 돼지우리 틀어라가 무슨 뜻이죠?

박 : 엉클어져라 이런 뜻이지 머.

조 : 떼강아지란 말은?

박 : 몰라요.

조 : 산에서 나무 끄는 소리 부탁드립니다.

박 : “여차하니 여차”

그러면 나무에다가 코를 다 뚫거든. 코를 뚫어서 줄을 매 가지고 양쪽에서 쥐고 끌지. 그러면 “여차하니 여차” 이렇게 하면, 노동요니까, 소리를 받지.

#### 여차하니 여차

이 나무가 어데서 왔나	여차하니 여차.
방태산 상상봉에	여차하니 여차.
한낮이면은 일광을 받고	영차하니 영차
밤이면은 이슬을 먹고	영차하니 영차
화모진 비바람 시달리며	영차하니 여차
낙락장송이 되었는데	영차하니 여차
궁궐재를 명을 받아	여차하니 여차
어명ियो 한 마디로	여차하니 여차
만인간에 힘을 얻어	여차하니 여차
수로천리 육로천리	여차하니 여차
인제합강에 나왔구나	여차하니 여차

#### 대개 요런 소리지요

조 : 떼 타시고 가는 동안에 심심하면 다른 노래는?

박 : 유행가이고 뭐고 소리는 아리랑밖에 없었거든.

조 : 김정구의 <눈물 젖은 두만강> 이런 노래는요?

박 : 그런 노래는 생각도 못 해보았고 또 그 사실 뗏목아리랑도 물이 어지간히 좋고 여울도 지나고 그 래야 부르지, 뗏목 타고 바쁜데 목이 막 타는데 언제 노래해요?

조 : 소리 없이 손장난이나 발장난은요?

박 : 노래 같은 거도 대개 밤에 부르고 하지.

조 : 정말 유명한 사공은요?

박 : 프로들이 있었지. 글썽 그제 인제에는 임일남, 김계근이, 박동윤이, 수태 많지. 농사도 일부 짓지만 뗏사공 전업이지. 손용인 씨 같은 분은 일년 내내 떼만 타는 거야. 떼 없으면 집에서 놀고.

조 : 노름은요?

박 : 가다보면 뗏사공 놈들이 투전을 한다고, 주막에서, 낮엔 가고 밤엔 자야 하잖아. 투전해서 돈 다 떨어지고 그러면 나무 훔쳐다가 팔잖아. 나무 떼다가 팔고, 다음날 밤에는 다른 사람 떼에 가서 훔쳐다가 자기 떼를 보충하고….

조 : 춘천까지 주막이 덕두원, 도지거리 말고 어디에 있나요?

박 : 신남 선착장 부평리도 거기도 주막이 큰 게 있었지. 간판은 없었지. 그저 주막집이지. 대흥리도 거기도 나무 많았어요. 부평리도 서너 집 되었지.

조 : 여관 겸업이죠?

박 : 뭐 겸업이랄 게 있나. 그저 밥 먹고 잠자고 같이 했지 며.

조 : 아가씨 있는 집도 있었나요?

박 : 부평에는 없었고 주로 있는 게 여기에는 그런 거는 없었고, 대흥리도 없었고, 술집은 대흥리에 한 집 있었지. 대흥리에도 두어 집 주막이 있었지.

조 : 숙박비는?

박 : 숙박비가 아니고 밥 먹고 자는 거야. 몇 전 주었겠지.

조 : 아가씨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박 : 술 먹자고 접근하지

조 : 뗏목에 아가씨들이 올라오나요?

박 : 그건 서울 가야. 바랭이라고 하는데, 소(沼)야. 죽 내려가서 덕두원 지나서 거기서 서울 쪽으로 가는데, 거 가면 인제 나간 떼를 세 개를 합친다고, 열다섯 동가리지. 넓이도 길어지고 지력지도 길어지고 그렇게 해서 간다고.

조 : 대흥리 지나서 어디에 주막이 있었나요?

박 : 물노리란 데가 있었거든. 물노리가 춘천일 거야.

조 : 양구는 없나요?

박 : 양구는 그런 게 없어요. 주막이 없었고, 인제 서낭탱이라고 양구에 있었거든. 거기에 집이 한 채 있었어요. 뗏문 자고 하는 집이. 그때는 길옆에 집만 있으면 아무데고 자고 그랬으니까.

조 : 춘천 가서 처음 있는 주막은?

박 : 물노리, 샘밭이라고 했는데, 샘밭 그쪽으로 들어가고, 거기는 무슨 동네니까 집들이 여러 집 있는데.

조 : 거기에 아가씨가 있었나요?

박 : 없어. 도지거리 가야 있지. 도지거리는 아가씨가 많았지.

조 : 도지거리 지나서 덕두원인가요?

박 : 그렇지. 덕두원은 합강리 하고 똑같은 데야.

조 : 신연강은 그 다음인가요?

박 : 그렇겠지. 그 다음은 난 잘 모르니까.

조 : 도지거리 유명한 기생 있나요?

박 : 나이 스무 살 이상이 되어야 알지. 나는 모르지. 도지거리 갈보란 소문만 들어어.

조 : 들병장수란 무허가인가요? 색주집 소속인가요?

박 : 술집갈보를 들병장수라 하는지 그런 거 몰라. 그때는 무슨 옥(屋), 무슨 옥 하는 그런 거 없었고,

그냥 술장사 하는 거를 들병장사라 그래. 인제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술 파는 여자가 따로 있는 거를 들병장수라 하지.

조 : 손용인 씨 주량은?

박 : 손용인 씨 술 잘 안 먹어. 우리 아버지는 술은 안 잡수셔도 노름은 많이 했다.

조 : 노름은 주로 어떤 것?

박 : 투전이지며. 투전, 투전밖에 뭐가 있나.

조 : 화토는요?

박 : 화토가 있었겠지.

조 : 판돈은요?

박 : 가져간 돈이 뻘한데 머. 선용 타 가지고 가는데. 선용은 1/4 타요.

조 : 주막에서 설 때 하는 소리는요?

박 : 경기민요지 머. 나는 안 불렀지만, 청춘가도 부르고….

\* 청춘가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구요 에헤  
이내가슴에 에헤 수심도 많구나

\* 노랫가락

노세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은 못노나니  
화무십일홍이요 달도 차면은 기우나니  
인생은 일장춘몽에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 어랑타령

신고산이 우루루 화물차 가는 소리에  
고무산 큰애기 단뽕집만 싸노나  
어라얼어랑 어허야 데헤야 어랑 내사랑아

조 : ‘인제’ 라는 말이 들어가는 노랫말은 없나요?

박 : 없어.

조 : 갈보들의 머리모양은?

박 : 머리는 비녀 찌르지, 아니면 풍지갈보라고 땡기 따고, 치마는 검정치마, 남색저고리 등이지.

조 : 신발은?

박 : 고무신, 까만 고무신인데.

조 : 아가씨들이 뭐라 하며 접근하던가요?

박 : 몰라.

조 : 사공들 중에서 소문난 난봉꾼 있나요?

박 : 임○○씨. 직업이 떼사공이고 줄난봉장이고, 서울 떼사공 가면 나무 몇 개씩 팔아먹고, 그 사람은 서울 가서 팔아먹는데, 나는 그 사람 보지 못했는데, 어디서 흠뻐는지도 모르고 임○○씨가 대단

했다 하더라구.

조 : 들병장수 보았나요?

박 : 나이가 어려서 본체만체 해서 잘 몰라.

조 : 밥은 쌀밥인가요?

박 : 쌀밥이지.

조 : 혹시라도 떼를 만들다가 피를 보면은 어떻게 하지요?

박 : 피가 나면 낫지 머. 상관없어. 그리고 망치질하는 것도 없고, 뭐 찢어서 멍이 들 수는 있지.

조 : 떼가 부러지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그래도 나무가 부러진 적은 없나요?

박 : 부러지진 않아.

조 : 책임 소재는요?

박 : 떼가 부서졌잖아. 고 밑에 가면 소에 가면 나무가 동동 떠다니고 있으니 다시 동동 매지. 그리고 잘 때에 다시 꼭꼭 묶지.

조 : 만일에 잃어버리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박 : 공기에서 까지.

조 : 사고날 확율은요?

박 : 뭐 대중 없어. 물이 많으면 사고가 안 난다고. 물이 없으면 바우(바위)에 부딪치는데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잖아. 도랑을 판다고, 떼가 도저히 걸려서 못 내려갈 때에는 도랑을 판다구. 양쪽 나무를 돌려서 물을 막지 떼 쪽으로.

조 : 술은?

박 : 막걸리지 머.

조 : 집에서 만든 건가요?

박 : 주로 밀주지.

박 : 양조장에서 만든 술이 뭐 그런데 가?. 순 촌에서 밀주 담가서 먹고 그런 거지 머.

조 : 뒷풀이는요?

박 : 그런 거 없어. 그곳에 가서 세어 넘기면 그만이야.

조 : 임〇〇씨 생활은?

박 : 넉넉하지 않지 머. 어떤 때는 집에 안 들어간다고. 돌아오면 떼가 있으니까 합강리 가서 바로 떼를 또 맨다고. 또 바로 가고.

조 : 떼 허가 받을 때, 산판 하고 따로 받나요?

박 : 아니지. 산판 허가면 돼.

조 : 춘천 가서 발기장 넘기는 데는?

박 : 덕두원 가서 넘겨.

조 : 양구 정도 지날 때 통과세 달라는 거 없나요?

박 : 그런 거 없어. 요즘 사람들이야 머리가 좋아 막 붙이지.

조 : 신연강에 양강포감이라 해서 세금 받는 곳이 있다던데 들어보셨나요?

박 : 몰라.

조 : 초등학교는 어디를 다녔나요?

박 : 남면 거기 보통학교, 보통학교 4학년제라고, 그리고 여기(인제읍) 와서 5학년, 6학년 다녔어. 그

때가 열세 살, 열네 살인가 그랬지.

조 : 졸업 후 농사일 했나요?

박 : 아니, 한문 배웠어.

조 : 어디서요?

박 : 집에서 배웠지 머.

조 : 아버님한테서요?

박 : 아니지. 그때는 학교 우리 신남 살 적에 중학교가 없잖아. 여기는. 중학교 가자면 춘천 가서 배워야 하는데, 춘천 못 갈 처지니, 그 동네에서 소학교 나온 애들끼리 한 여나쁜 모와 가지고 훈장 하나 데려다 놓고 배웠지. 배우는 거는(비용은) 돌아가면서 치루지.

조 : 배운 책은?

박 : 난 처음부터 동몽선습을 읽었다구. 명심보감 소학 이렇게 배웠지. 천자문은 처음부터 안 배웠어. 무제시도 배웠어. 통감절요도 배우고, 하두 배운지 오래 되니,

조 : 한문은 몇 년 배웠나요?

박 : 칠 년 배웠어요.

조 : 그 당시 부평리는 인구가 몇 호 정도 되었나요?

박 : 호수가 한 120호 살았지. 컷지.

조 : 부평리 생업은요?

박 : 농사지. 상업은 업었어.

조 : 보통학교가 거기 있었나요?

박 : 아니, 보통학교는 면소재지, 관대리에 있었어.

조 : 거기까지 매일 통학을 한 겁니까?

박 : 그럼, 배타고, 아까 얘기했잖아. 갔다오다가 책보 한군데 모아놓고 빨가벗고 올라가서 떼 타고 내려오고 그런 짓을 했지. 강을 건너멍기니까. 그때가 남전리, 관대리, 대흥리, 신월리, 부평, 어론, 새재, 뭐 동네가 한 십여 리 되었거든. 학생들이 꽤 많았지. 면 소재지에 학교가 하나 있었으니까.

조 : 한문 배운 후에 뭐 했나요?

박 : 농사일 했지. 나 농사일은 별로 안 했어. 나 스무 살에 장가를 갔어. 그 후로 농사 한 2년 지었지. 해방이 되어 가지고 대한청년단 들어가 감찰부장 하다가 경찰에 들어갔지. 감찰부장 하기 전에 세꾼세이라고 청년군대, 군대 가기 전에 훈련받았다고.

조 : 세이꾼세이가 뭐죠.

박 : 일본말이야. 청년훈련소야. 그때 세이넨 훈련소가 있고 렌세이소가 있고 그랬지. 그것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뗏목을 타긴 했어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돈 생각나면 나를 뗏목 태우곤 했지. 하하. 나는 때 타기만 했지 돈 구경도 못 했다니까.

경찰에 투신한 것은 1946년 12월 달에 투신했어. 22살 정도 되었나. 3.15<sup>102)</sup> 때 그만 두었어. 한 10년 했지요. 나와서 좀 있다가 일년인가 2년인가 늘었어. 1년 장사한다고 그러다가, 단위조합장 하고, 한 6년 했어. 한 1년 늘다가 축협 조합장 한 6년하고 그땐 3년 임기거든. 그렇게 하다가, 한 1년 늘다가 문화원에 들어갔었고, 그 후론 사뭇 노는 거지. 95년도에 그만 두었으니, 91년도에 들

102)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를 의미한다. 실제 박해순이 경찰에서 퇴직한 것은 1957~8년경이다.





어갔어. 문화원에 이사는 조합장 한 이후에 시작했지. 86년도에 이사를 한 거 같아. 85년도에 조합장 그만두었으니까. 문화원 감사도 한 3년 했고, 그러다가 원장 감투를 썼지. 원장은 한 4년 했어. 4년 단임 했어요. 억지로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채웠어요. 그 다음 후임이 현재 방효정 원장이야. 방효정 원장은 재임(연임) 중이야.

조 : 큰아드님은 몇 살이지요?

박 : 62살이에요. 좀 전에 여기 왔던 사람이 큰아들이지<sup>103)</sup>요. 서울에서 사업을 해요. 내일이 아버지 제사야. 그래서 내려왔어. 둘째는 딸이야. 지금 인제조합장 마누라고, 또 둘째는 59살 되었는데, 셋째는 47~48세 되었고, 막내가 아들이고, 울산에서 장사해요. 셋째 사위는 사업 하는데 꽤 괜찮아. 회사 하나까 괜찮고, 막내아들이 괜찮긴 괜찮아. 밥 먹고 살길 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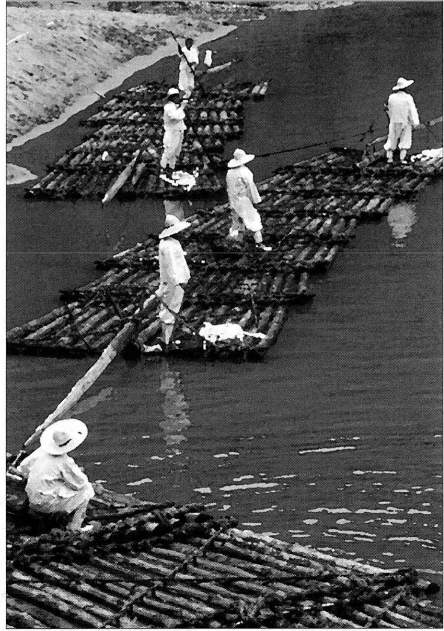
조 : 천목이 뭐지요?

박 : 철로목이라고 했잖아. 철로목도 로쿠로 깎지만 편목도 로쿠로 했어. 대흥리 거기도 편목떼가 나왔다고.

조 : 편목만으로 떼를 만드나요?

박 : 그렇지. 그거는 적심도 못 하는데, 나무는 좋은 게 있는데, 그런데는 지게로 저낸다고. 산에서부터 큰길까지는 나오지. 그래서 하루 종일 나무 한 개 짊어지고 나오는 때도 있어. 조 : 편목의 크기는?

103) 채록하던 날 다음날이 제사가 있는 날이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아들이 내려왔었다.



박 :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다만 네모지게 만든다는 것 뿐이야.

조 : 인제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전수했나요?

박 : 강원대학교에서 가사를 가져왔어. 내가 가져와서 들어보니 소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냐. 그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게 소리를 딸수가 없어서 녹음을 해야겠다구. 이런 소리를 나도 할 수 있다고 내가 다섯 단은 더 잘 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구 그랬지. 인제고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뗏목 재연하게 하는데, 생전 후련을 할 줄 알아야지. 내가 애들 운동장에 앉혀놓고 한 30명 갖다놓고, 그게 85년도야. 그 후론 학생들에게 별도로는 안 가르쳤지요.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2회부터 지도해서 계속했지. 처음엔 베틀노래를 갖고 나가 했고 2회에 뗏목아리랑을 갖고 나갔는데, 그때부터 지도를 했어요. 강원도 우승해서 전국대회가 강릉에서 열었는데, 그때 나갔는데 등수에 못 들었어요. 그때 도지사하고 심사위원들하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권 머시기였는데, 그 양반이 뭐라 했어. 최승순 씨가 와서 얘기하는데, “이거 아까운 거 버렸어.”라고 작년에 황성화다지가 전국 1등을 했는데 이거 또 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구. 몇 년 후에 다시 하자고 하니 강원도에서 1등을 했으니 다시 하기가 뭐하다고 해서 그만 두었지.

인북천(麟北川)으로 들어가면 월하리라고 있지요. 그 마을에서 뗏목을 만들었다고 그래. 가보니 뗏목이 아니고 뭐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노는데, 방학 후에 하겠다고, 들어와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뗏목연구소라고 써 붙일 수가 있느냐고 하니 아 그렇게 하라고 그래.

## [참고문헌]

- 강등학, 「인제군」, 『강원의 민요 I』, 강원도, 도서출판 산책, 2001.
- 강원도, 『江原道誌 上』, 도서출판 산책, 2005.
- 강원도, 『강원의 전통민속예술』, 강원일보사, 1994.
- 강원도, 「麟蹄뗏목군 소리」 ~ 2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작품(팜플렛), 1985.9.19
- 권혁준, 「인제군의 무형문화」, 『강원민속학』18집, 강원도민속학회, 2004.
-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
- 김열규, 『아리랑...역사여, 겨레여, 소리여』, 조선일보사, 1987.
- 김의숙 · 전신재, 「춘천시」, 『강원의 민요 I』, 강원도, 도서출판 산책, 2001.
- 김중혁, 「조선후기 한강유역의 交通路와 場市」, 고려대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 김풍기 · 김충수, 「화천군의 민속문화」, 『화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원대박물관, 1996.
- 남근우 · 전신재, 「영월군의 민속문화」, 『영월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림대박물관, 1995.
- 박민일, 『아리랑』, 강원대 출판부, 1991.
- 박민일, 『아리랑 정신사』, 강원대 출판부, 2002.
- 배선기, 「남한강 따라 천리 길」, 『도원문화』 4호, 2001.
- 신경란 편, 「대라, 틀어라, 박아라!」, 뿌리깊은나무, 1992.
- 이창식, 「뗏목관련민요의 실상과 활성화 방안」 『한국민요학』 8집, 2000.
- 이창식, 「영월군」, 『강원의 민요 I』, 강원도, 도서출판 산책, 2001.
- 이창식, 「화천군」, 『강원의 민요 I』, 강원도, 도서출판 산책, 2001.
- 인제군, 『麟蹄郡史』, 1996.

- 인제군, 『麟蹄郡誌』, 1980.
- 인제군, 『麟蹄郡誌』, 1996.
- 인제군교육청, 『향토지』, 1969.
- 인제문화원, 『유적·지명·전설』, 2003.
- 인제문화원, 『麟蹄 뗏목(증보판)』, 2002.
- 인제문화원, 『조선왕조실록 인제편 초록』, 1998.
- 인제향교편찬위, 『麟蹄鄕校誌』, 강원일보사, 1996.
- 장정룡, 『강원도 민속연구』, 국학자료원, 2002.
- 장정룡, 『민속의 고향 강원도 세상』, 동녘출판기획, 1999.
- 장정룡, 『강원의 소리·소리꾼』, 인제 뗏목아라리 소리꾼 박해순, 강원일보, 1997년 5월 12일
- 전신재, 『인제군의 민속문화(2)』,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림대학교박물관, 1996.
- 정선군, 『사진으로 본 아우라지 축제 10년사』, 정선군, 2005.
- 진용선, 『남한강 뗏목과 전승민요 고찰』, 『강원도 민요의 삶의 현장』, 집문당, 2005.
- 진용선, 『정선군』, 『강원의 민요 I』, 강원도, 도서출판 산책, 2001.
- 진용선, 『정선뗏목』, 정선문화원, 2001.
- 최병현, 『인제의 禁·封山과 禁標에 관한 考察』, 『인제문화』 16집, 2001.
- 최승순·박민일·최복규, 『麟蹄 뗏목』, 인제문화원, 1985.
- 한국향토사연구회, 『漢江流域史 研究』, 도서출판 산책, 1999.

## 필자 약력

### 장 정 룡(張正龍)

- 강릉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문학박사.
- 강원도 문화재 위원
- 문화재청 문화재 감정위원 · 전문위원
- 강원도 문화재단 이사
- 국제아세아 민속학회 부회장
- 강원도 민속학회 회장
- 『강원도 민속연구』 『강릉단오 민속여행』  
『강릉관노가면극연구』 『동해시 어로민속지』의 다수.

### 이 한 길(李漢吉)

-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 강원도 민속학회 편집이사
- 현 강릉대 · 강원대 출강
- 『황금당나귀』 『강릉의 설화』(공저)  
『속초의 민요』(공저) 외 다수.

## 인제뗏목과 뗏꾼들

발행일 ■ \_\_\_\_\_

2005년 6월 25일 인쇄 | 2005년 6월 30일 발행

편저자 ■ \_\_\_\_\_

장정룡 · 이한길

발행인 ■ \_\_\_\_\_

인제군수

발행처 ■ \_\_\_\_\_

인제군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49-6번지  
전화 (033)461-2122

제작처 ■ \_\_\_\_\_

Good Design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학교 120 강릉창업보육센터 116호  
전화 (033)648-2819 팩스(033)640-2727